

실무자를 위한
세계유산 등재신청 매뉴얼

3차 초안 (2009)

초안 관련 유의사항

본 문건은 자연유산과 세계유산을 동시에 다루는 복합 매뉴얼의 초안이며, IUCN과 ICOMOS가 마련한 초안 구성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였다.

단, 향후 개최될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본 운영지침의 일부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작성 과정에서 본 매뉴얼과 이후 변경사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하였다. 그러나 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마무리 필요 부분

- 예 - 견제와 균형
- 자연유산 추가 예

주의: XXX = 재검토 또는 완성 필요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Programme on Protected Areas
Rue Mauverney 28
CH-1196 Gland
Switzerland

전화: +41 22 999 0160

팩스: +41 22 999 0025

이메일: wcpa@iucn.org

홈페이지: www.iucn.org/wcpa



ICOMOS(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

49-51, rue de la fédération
75015 Paris
France

전화: +33 (0)1 45 67 67 70

팩스: +33 (0)1 45 66 06 22

이메일: secretariat@icomos.org

홈페이지: www.international.icomos.org

*

표지사진: XXX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카람바/드라켄스버그 공원 © UNESCO, Véronique Dauge

책임 배제

본 매뉴얼은 세계유산목록에 유산을 등재하고자 준비하는 당사국과 관련 전문가, 기관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에 관한 최종 내용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매뉴얼은 2008년 1월 운영지침과 관련해 마련되었다. 해당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수정된다.

등재 준비 시에는 아래에 나와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운영지침이 가장 최근의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 매뉴얼은 해당 운영지침 최신판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운영지침을 우선에 둔다. 본 매뉴얼의 내용은 IUCN과 ICOMOS가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모든 유산의 등재를 평가할 때 취하는 관점을 포함해, 향후 어떠한 유산이든 등재신청에 성공해 세계유산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다.

운영지침(영·불)과 함께 세계유산협약(5개국어)과 세계유산 관련 기타 문서와 정보는 아래 주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과 제시한 자료는 IUCN과 ICOMOS를 비롯해 특정 나라, 영토, 지역이나 관련당국과 연관 있거나 해당 국경이나 경계 결정과 연관되는 기타 참여조직의 의사 표시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본 간행물에 나타난 관점이 IUCN, ICOMOS 또는 기타 관련 단체의 관점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IUCN, ICOMOS 및 기타 참여 단체는 본 영어 원본 문건의 번역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와 생략, 그리고 문건 해석과정에서 빚어진 1차적인 데이터 상의 오류에 있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전화: +33 (0)1 4568 1876
팩스: +33 (0)1 4568 5570
이메일: wh-info@unesco.org
링크: whc.unesco.org/
whc.unesco.org/en/guidelines (영어)
whc.unesco.org/fr/orientations (불어)

목차

기고자 목록 및 감사의 말

서문

머리말

제1부 세계유산 배경정보

1.1 정보 획득

1.2 세계유산 등재신청 과정의 개요

1.3 세계유산 개념 설명

제2부 준비 과정

2.1 유산에 대한 기존 정보

2.2 등재전담팀 구성

2.3 지역 주민과 기타 이해당사자의 참여

2.4 등재신청 준비의 단계별 접근 및 주요 단계

제3부 유산에 대한 정의와 이해

3.1. 유산에 대한 정의: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 속성, 범위

3.2 추가 팁

제4부 등재신청 파일의 작성 및 준비

4.1 일반적 팁

4.2 등재신청서 양식

4.3 추가 팁

제5부 평가 절차

5.1 일반

5.2 IUCN 평가 절차

5.3 ICOMOS 평가 절차

참고자료

연락처

기고자 목록 및 감사의 말

저자:

던컨 마샬(Duncan Marshall)

검토 및 기고:

팀 베드맨(Tim Badman)

알레산드로 발사모(Alessandro Balsamo)

그웨나엘르 브루탱(Gwenaëlle Bourdin)

레지나 듀리겔로(Regina Durighello)

제작:

XXX

*

본 통합 매뉴얼의 바탕이 된 이전의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등재 매뉴얼 초안들과 관계있는 ‘기고자 및 감사의 말’은 다음 인사들에 해당한다.

IUCN

저자:

Tim Badman
Paul Dingwall
Bastian Bomhard

검토:

Kishore Rao; 세계유산센터
Mechtild Rössler, 세계유산센터
Alessandro Balsamo, 세계유산센터
Guy Debonnet, 세계유산센터
Marc Patry, 세계유산센터
Peter Stott, 세계유산센터
Joe King, 세계유산센터
Gamini Wijesuriya, ICCROM
Georgina Peard, IUCN
Pedro Rosabal, IUCN
Kari Lahri, IUCN
Kumiko Yoneda, IUCN
Elery Hamilton-Smith, IUCN
Josephine Lanegley, IUCN
David Sheppard, IUCN
Delwyn Dupuis, IUCN
Tarek Abdul Hawa, IUCN
Vinod Mathur, WCPA
Jim Barborak, WCPA
Stephanie Eissing, WCPA

ICOMOS

구상:

Bénédicte Selfslagh

주 저자:

Duncan Marshall
Dr Susan Denyer

기고:

Gwenaëlle Bourdin
Michel Cotte
Regina Durighello
Prof. Dr. Jukka Jokilehto

검토:

Alessandro Balsamo
Kristal Buckley
Alfredo Conti
Dr Susan Denyer
Dr Nobuko Inaba
Prof. Dr. Jukka Jokilehto
Edward Matenga
Bénédicte Selfslagh

서문

본 매뉴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IUCN, ICOMOS, ICCROM이 마련한 세계유산매뉴얼(World Heritage Resource Manuals) 기획 시리즈 중 하나이다.

본 매뉴얼은 세계유산목록에 오를 자연·문화·복합¹⁾유산 등재신청서를 마련하는 데 대한 추가 안내를 제공한다.

특히 본 매뉴얼은 세계유산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당사국을 지원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잘 관리된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오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세계유산위원회와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매뉴얼은 연구 초반, 즉 공식평가를 위해 신청서가 제출되는 단계에 있는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IUCN과 ICOMOS는 등재 신청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특정 등재신청 준비에 대한 자문 또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 매뉴얼이 당사국들이 세계유산 등재신청 절차가 갖는 의미와, 이러한 노력이 해당 유산의 보호와 지역사회 및 기타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주의 깊게 살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세계유산협약의 운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권고는 협약 및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본 매뉴얼은 운영지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추가 안내 제공의 성격을 갖는다. 모든 경우에서 협약과 운영지침이 1차 자료가 된다. 세계유산협약 텍스트와 해당 운영지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를 통해 받아 보거나 웹사이트 whc.unesc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매뉴얼은 2008년 1월 운영지침을 기초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매뉴얼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수시로 개정하는 운영지침의 최신판과 함께 이용해야 한다. 운영지침은 세계유산협약의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핵심 문건이다. 세계유산 등재신청 준비에 진지한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든 운영지침의 최신버전을 확보해 해당 내용에 익숙해야 한다.

본 매뉴얼은 당사국들이 문화유산 등재신청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한데 모은 것이다. 본 매뉴얼은 운영지침 중 세계유산 등재 관련 부분을 간단한 용어로 강조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등재신청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접근법, 문화유산의 등재 신청 결정 이전에 필요한 준비작업, 관련 서류에 포함될 주요항목에 대한 중요한 항목 등의 분명한 추가 정보도 본 매뉴얼을 통해 제공된다. 그러나 특정 등재 서류의 모든

1) 복합유산(mixed property)은 자연 및 문화적 측면 모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된 문화재이다.

측면을 자세하게 기술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자문기구의 경험 상 종종 여러 등재신청서에
서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던 측면들을 다룰 것이다.

본 매뉴얼은 세계유산기금의 지원과 IUCN과 ICOMOS 및 관련조직의 재정지원 및 자발적
인 지원으로 개발되었다.

IUCN과 ICOMOS는 본 매뉴얼의 권고가 유용하길 바라며,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한 모든 의
견을 환영한다.

IUCN

ICOMOS

머리말

매뉴얼의 맥락 및 개관

키포인트: 운영지침을 먼저 읽는다.

본 매뉴얼의 목적은 당사국이 양질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매뉴얼은 세계유산센터와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ICOMOS, ICCROM, IUCN이 마련하기로 예정한 일련의 세계유산매뉴얼 중 하나이다.

세계유산협약의 운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권고는 협약 및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세계유산협약 텍스트와 해당 운영지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를 통해 받아 보거나 웹사이트 whc.unesc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매뉴얼은 2008년 1월 운영지침을 기초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고자하나 대체하지는 않는다. 본 매뉴얼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수시로 개정하는 운영지침의 최신판과 함께 이용해야 한다. 운영지침은 세계유산협약의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핵심 문건이다. 세계유산 등재신청 준비에 진지한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든 운영지침의 최신버전을 확보해 해당 내용에 익숙해야 한다.

운영지침은 본 매뉴얼을 읽기 전에 읽어야 하며, 등재신청 준비과정 내내 주의를 기울여 참고해야 한다.

한 건의 등재신청을 준비하는 방법은 매우 다르다. 행정시스템의 다양성과 문화는 등재신청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등재신청 준비를 위한 ‘레시피’를 제공하거나 선호하는 작업 방식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로 다른 여러 좋은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문기구들은 가장 적합한 유산을 신청하고, 신청서 내에 해당 유산을 가능한 효과적으로 제시하며, 따라서 등재신청 과정 자체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전,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하는 모든 우수한 등재신청서의 바탕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원리가 있다고 본다.

문화유산 등재신청과 자연유산 등재신청의 준비는 많은 점에서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많다. 따라서 본 매뉴얼의 일부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 각각 한정된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는 개념이 세계유산협약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모든 등재유산의 기준이 여기에 있다. 등재신청의 기본 목적은 해당 유산의 구성요소, 그 유산이 잠재적으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이유, 그

리고 이러한 가치가 어떻게 유지, 보호, 관리, 감시, 소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있다.

시간 부족은 성공적인 등재신청의 최대 적이다. 수많은 등재신청서가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준비된다. 적절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소 1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자문을 구하는 데에 또 1년이 걸릴 수 있다. 연구가 필요하고, 보호를 해야 하며,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과정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세계유산목록 등재와 해당 유산의 장기 보전과 소개가 가능한 성공적인 등재신청이 목적이라면 보다 현실적인 시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준비시간 부족 때문에 당사국은 물론 세계유산위원회와 해당 자문기구를 좌절하게 하는 등재신청의 연기 또는 회부가 매우 빈번하다. 정치적인 약속 때문에 비현실적인 시간계획에 따라 등재신청이 준비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작성된 등재신청서는 적절하지 않고 평가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가 된다.

본 매뉴얼은 등재신청 당사국들이 여러 유산의 등재신청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본 매뉴얼은 아래 내용을 담고자 한다.

- 세계유산 등재신청 체계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주요 세계유산 개념을 쉬운 용어로 강조하고 설명한다.
- 등재신청 전담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등재신청 준비작업 범위의 이해를 제고한다.
- 유산 이해에 대한 정보와 요령을 제공한다.
- 운영지침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등재신청서류 마련 요령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 매뉴얼은 등재신청서의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자문기구의 경험상 등재신청에서 종종 만족스럽게 준비되지 못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언급한다. 본 매뉴얼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세계유산 배경정보

제2부 준비 과정

제3부 유산에 대한 정의와 이해

제4부 등재신청 파일의 작성 및 준비

제5부 평가 절차

본 매뉴얼에는 사례연구와 기타 관련 정보가 담긴 CD 1장이 첨부된다.

매뉴얼 활용자

본 매뉴얼은 일차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신청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본 매뉴얼에 관심을 두게 될 이해당사자는 아래와 같다.

- 당사국
- 유산보호/ 보호지역 기관
- 비정부기구
- 지방 정부
- 지역 공동체
- 단체
- 개인
- 세계유산 등재신청 개발 관련 훈련 워크숍 및 교육과정 운영자

본 매뉴얼은 아래의 목적을 위해 마련되었다.

- 자가학습
- 훈련 워크숍
- 브리핑 및 교육

당사국 간 협력

세계유산협약은 협약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국제협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세계유산 목록 등재신청 준비과정에는 아래 경우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의 기회가 존재한다.

- 특정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기술적·금전적 도움을 제공한다.
- 경계 및 국경을 넘어서는 등재신청 건을 개발한다.
- 건전한 비교분석 형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 공식 신청 전에 등재신청에 대한 국제적인 상호평가를 돕는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은 당사국 간 경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세계유산협약의 전체 정신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부 세계유산 배경정보

1.1 정보 획득

1.1.1 머리말

키포인트: 등재신청 개발은 충분히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진행한다.

세계유산 등재신청 준비 작업은 해당 업무 참여자에게 가장 만족스럽고도 보람 있는 일 중 하나일 수 있다. 등재신청 준비 작업은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 유산을 이해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 유산의 알려진 가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전 세계 자연 및 문화적 주제와의 관계를 평가한다. 자연과 인간의 역사, 문화, 발전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해당 유산의 위치를 발견한다.
- 국제적인 차원에서 잠재적으로 비슷한 다른 유산과 비교한다.
- 유산의 보호, 보전, 관리의 적절성을 시험, 도전, 개선한다.
- 유산의 보호, 보전, 관리에 참여하고 관련 공동체와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한다.

세계유산 지위에서 얻는 주요 혜택

- 해당 유산과 당사국, 지역 공동체에 영예와 명성을 안겨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 및 문화적 장소로서 해당 유산을 기념할 수 있다.
- 해당 유산은 종종 국가 차원의 보호 지역/유적 체계의 중심이 된다.
- 세계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는 해당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협력과 공동노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 기부자의 기금과 지원을 비롯해 세계유산기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하나의 유산을 신청하는 데에 대개 최소 2년,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등재신청을 잘 준비하고 조직하려면 최소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준비부족은 종종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등재 신청한 유산의 성격 또한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충분한 연구가 진행된 문화적 기념물이나 유적지는 대규모 다용도 국가문화재, 역사도시, 문화조경, 문화로(路)에 비해 등재과정이 덜 복잡하고 소요시간도 적게 걸릴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대개 관련 이해당사자 또한 크게 늘어나고, 그 결과 보다 복잡한 관리시스템이나 계획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관련 주제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절

한 주제적 맥락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은 근본적으로 해당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관계있다. 등재신청은 일차적으로 경제발전 기회와는 관계가 없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은 향후 진행될 보다 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등재신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당사국은 해당 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유산이 간직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항상 보호, 보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등재신청은 보다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딛는 일일 뿐이다.

사례연구: 등재신청 준비 시간계획

다음은 한 건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된 사례이다.

미디 운하(Canal du Midi, 프랑스) - 본 유산은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6년 공식 등재되었다. 360km에 이르는 유산의 길이와 수많은 관련 공동체를 감안하면 짧은 시간에 거둔 상당한 성과다. 비교적 단 기간 내에 등재신청을 마무리하기 위해 아래 요소를 고려하였다.

- 유능한 추진위원회와 과학위원회를 신속하게 설립
- 위원회 위원은 지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서 등재신청을 개발할 준비와 능력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
- 등재신청을 확실히 지지하는 다양한 공동체
- 등재신청 준비 자금의 신속한 마련
- 충분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의 지역 사무소
- 여러 관련 이해당사자가 지명하고 수용한 유능한 조정자 1인
- 신청과정 초반 이미 우수한 기본정보 이용 가능
- 등재신청 기초 마련 작업을 단순히 해당 양식을 채우는 관료적인 업무가 아닌, 우수한 성과물을 내기위한 지적 활동으로 이해
- 다양한 정부기관이 등재신청에 우호적으로 협력하며 효과적으로 업무 진행

XXX 중기계획

XXX 장기계획

1.1.2 세계유산에 관한 학습 - 중요 문건

키포인트: 등재신청 시작 전 추천문건을 이해한다.

충분한 준비를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세계유산의 체계와 과정, 등재를 신청할 유산과 구체적인 연관이 있는 기타 정보를 숙지하는 일이다.

아래는 숙지해야 할 추천문건이다.

본 매뉴얼의 마지막 부분에 실린 참고자료 역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자료이다.

주요 세계유산 참고문건	관련 설명
일반	
세계유산협약(공식명칭: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본 협약은 세계유산체계에 대한 근본 틀을 제공한다. 주요 정의, 개념, 조직체계, 절차 등을 다루고 있으며, 등재신청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hc.unesco.org/en/conventiontext (영어) • http://whc.unesco.org/fr/conventiontext (불어)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WHC.08/01, 2008년 1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지침은 본 운영지침에 제시되어 있다. 등재신청 과정을 포함한 여러 주요 세계유산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hc.unesco.org/en/guidelines (영어) • http://whc.unesco.org/fr/orientations (불어)
세계유산위원회 최근 회의 결정내용과 그 요약	세계유산위원회의 관점에 대한 주요 정보는 최근 열린 위원회 회의의 결정내용과 요약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hc.unesco.org/en/sessions (영어) • http://whc.unesco.org/fr/sessions (불어)
세계유산목록	세계유산목록에는 세계유산위원회가 해당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해 등재한 세계유산이 실려 있다. 본 목록은 등재신청을 고려중인 유산을 다른 나라 유산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럴 경우, 해당 목록은 등재신청서의 비교평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hc.unesco.org/en/list (영어) • http://whc.unesco.org/fr/list (불어)
다른 당사국의 잠정목록	본 목록에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유산이 실려

	<p>있다. 잠정 목록은 등재신청을 고려중인 유산을 다른 나라 유산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럴 경우, 해당 목록은 등재신청서의 비교평가 부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p>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 (영어) • http://whc.unesco.org/fr/listindicatives (불어)
주제연구	<p>주제연구가 있는 경우, 등재신청에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등재 신청할 유산과 연관된 주제연구가 있다면 해당 연구는 등재신청서의 비교평가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p> <p>일부의 경우, 당사국들이 등재신청 개발 과정의 한 부분으로 특정 주제연구를 준비해 왔다.</p> <p>ICOMOS에서 획득할 수 있는 여러 문화유산에 관한 주제연구는 www.icomos.org/studies에서 찾아볼 수 있다.</p> <p>IUCN에서 획득할 수 있는 여러 자연유산에 관한 주제연구는 www.iucn.org/about/union/commissions/wcpa/wcpa_puball/wcpa_pubsubject/wcpa_wheritagepub/에서 찾아볼 수 있다.</p> <p>나아가 다른 여러 주제연구가 있을 수 있으며, 등재를 신청할 유산과 연관 있는 관련 연구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p>
<p>세계유산 국제전략 자연 및 문화유산 전문가회의 보고서(1998년 3월 25~2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네덜란드 정부 공동주최)</p>	<p>본 보고서에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연관된 유용한 정보와 결론,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p> <p>해당 보고서는 http://whc.unesco.org/archive/amsterdam98.pdf에서 볼 수 있다.</p>
<p>자연유산 참고문헌</p> <p>뛰어난 보편적 가치 - 세계자연유산의 기준, 자연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기준에 대한 개요</p>	<p>IUCN이 마련한 본 보고서는 자연유산과 관련된 과거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을 검토한다. 지침 매뉴얼 형태로 축적해 관련 자료와 결정사항을 요약하고 있으며, 세계유산목록 등재 측면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논의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전례가 잘 나타나 있다.</p> <p>해당 개요는</p>

	<p>www.iucn.org/about/union/commissions/wcpa/wcpa_puball/wcpa_pubsubject/wcpa_wheritagepub/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문화유산 참고문헌</p>	
<p>세계유산목록: 간극 메우기-미래를 위한 행동계획(ICOMOS 2005)</p>	<p>세계유산목록과 잠정목록에 오른 문화유산에 대한 ICOMOS의 분석은 신뢰성과 대표성을 갖춘 균형 있는 세계유산목록 마련을 위한 국제 전략을 추가로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 본 분석은 현재 ICOMOS가 진행 중인 작업이며, 목록에 대한 유형, 지역, 연대, 주제적 대표성을 고려한다. 주요 목적은 세계유산목록에서 대표성이 낮은 유산의 범주를 식별하는 데 있다.</p> <p>본 연구를 참고하면 등재신청에 대한 비교 연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성이 낮은 범주들이 대표성이 충분하거나 과한 범주보다 유리한 경향이 있다.</p>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world_heritage/gaps.pdf (영어) •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world_heritage_fre/whl_gaps.htm (불어)
<p>뛰어난 보편적 가치: 세계자연유산의 기준, 문화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기준에 대한 개요(ICOMOS 2008)</p>	<p>ICOMOS가 마련한 본 보고서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과거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을 검토한다. 지침 매뉴얼 형태로 축적해 관련 자료와 결정사항을 요약하고 있으며, 세계유산목록과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의 등재 측면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논의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전례가 잘 나타나 있다.</p> <p>해당 개요는 whc.unesco.org/en/sessions/32COM/documents/(WHC.08/32.COM/9)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ICOMOS 문서센터가 준비 중인 주제 및 지역 참고자료</p>	<p>문화유산 관련 참고자료는 매우 다양하다. 아래는 그 중 일부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암각화유적 • 세계유산 조경 • 세계유산 호미니드유적 • 아프리카의 세계유산 • 아시아태평양의 세계유산 • Patrimonio Mundial en América Latina y Caribe • 아랍국 세계유산 • 세계유산 산업유적 <p>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entre_documentation/bib/</p>

1.1.3 세계유산에 관한 학습 - 세계유산위원회의 업무

키포인트: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등재 전담팀의 대표자를 파견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업무에 익숙해지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도 일부 가능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최근의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의 결정사항과 요약기록을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등재신청 준비팀의 대표가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파견되는 정부대표단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좋다. 위원회의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 위원회의 업무, 특히 등재신청과 보존상태 문제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한 눈에 보는 세계유산 협약

요약: 세계유산협약은 UN회원국 간의 국제조약이다. 협약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유산을 파악해 보호, 보존, 소개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달하고자 한다. 협약의 운영지침에 정의된 특정 기준과 조건은 여러 유산을 파악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데 활용된다.

*

세계유산협약은 문화 및 자연유산이 개별 국가 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환산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값진 유산 중 어느 하나의 상태가 악화 또는 소멸을 통해 소실되면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유산이 피해를 보는 것에 해당된다. 그러한 유산이 갖는 예외적인 특별성 때문에, 해당 유산의 일부라도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며 해당 유산을 점점 더 위협하고 있는 여러 위협에 대해 그 자체로 특별히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세계유산을 가능한 적절히 파악, 보호, 보존, 소개하기 위해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1972년 세계유산협약으로 알려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했다. 협약에 의거 세계유산위원회와 세계유산기금이 설립되어 197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협약 이행에 관한 공식지침을 제공하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개발해 왔으며, 필요시 위원회가 이를 수정하고 있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유산을 파악해 보호, 보존, 소개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달한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는 협약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유산목록을 관리해 왔고, 이것이 바로 세계유산목록이다.

세계유산목록에 유산을 등재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은 여러 유산을 평가하고 당사국들이 이를 보호, 관리하는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유산은 세계유산위원회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등재신청 서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해당 유산이 협약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특히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가 특정 유산이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주요 시험내용을 담고 있다.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기준의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유산이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지 고려한다(운영지침 77항).
- 특정 유산이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해당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및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78항).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심각하고 특정한 위협에 노출될 위협을 받을 경우 해당 위원회는 이를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올릴 것을 고려한다.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정당화했던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파괴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할지 고려한다. 최신 세계유산목록과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웹사이트(whc.unesc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유산협약은 신청된 특정 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관리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업무는 해당 사무국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3개 공식 자문기구인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ICOMOS(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원한다.

IUCN은 자연적 가치를 바탕으로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하는 반면, ICOMOS는 문화적 가치로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한다.

세계유산과 기타 보전수단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수많은 자연보전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국제유산(람사르 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및 지역유산도 많다. 그러나 세계유산의 지위는 운영지침의 정의대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시험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갖는 유산에 한정된다. 세계유산으로서의 잠재성이 있는 유산을 고려하는 초기 단계의 당사국이라면 그에 대한 대안 역시 고려해야 하며, 당사국의 여러 보호지역과 국가유산을 인식, 보호, 보전할 수 있는 여러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단의 충분한 범위를 활용해 연관되고 조정된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유산의 국제적, 지역적 보전수단의 범위는 보다 제한될 수 있지만, 명시된 원리는 대개 동일하다.

(그림 - 작은 글씨는 판독불가로 제외)

세계유산

기타 국제유산

지역유적 및 네트워크

지역하위 유적

국가유적/보호지역(PA) 체계

국가하위 유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

잠재적으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잠재목록)

뛰어난 보편적 가치 vs. 대표성을 핵심 결정요소로 볼 때 세계유산유적과 기타 보호지역 (PAs)의 관계

1.2 세계유산 등재신청 과정의 개요

세계유산목록에 유산을 신청해 등재하는 과정은 세계유산협약의 핵심이며, 신청 당사국이 해당 협약에 대해 저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다. 해당 책임은 다음 세 가지 분야에 해당한다.

- 잠정목록 준비
- 등재신청 준비
- 등재된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보호, 보전, 유지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

(그림)

유산을 당사국의 잠정목록에 올린다.

- 당사국이 어떤 유산을 잠정목록에 포함시킬지 결정한다.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한다.

- 당사국이 어떤 유산을 등재 신청해 잠정목록에 올릴지, 세계유산목록 등재시기를 언제로 할지 결정한다.

- 세계유산위원회는 IUCN 및/또는 ICOMOS의 해당 유산 평가 후, 이를 세계유산목록 등재 할지 결정한다.

등재된 유산은 해당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 감시된다.

- 당사국이 세계유산협약의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유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등재신청 과정 각 단계와 당사국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주요 책임 요약

세계유산협약에 서명한 국가만이 해당 영토 내의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목록 등재여부 검토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등재과정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2.1 잠정목록

한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또는 자연유산으로 간주돼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영토 내에 위치한 중요 자연 및 문화유산의 '목록(inventory)'를 작성하는 것이다(운영지침 II.C 참조). 이 목록은 잠정목록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당사국이 향후 5~10년 이내에 등재 신청을 할지 결정하게 될 유산을 포함시킨다. 잠정목록에 모든 가능한 유산이 담기는 것은 아니다. 잠정목록은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적어도 매 10년마다 당사국들이 해당 목록을 재검토하고 다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지침에는 잠정목록 등재신청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당사국은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그 시기는 등재신청 최소 1년 전이 바람직하다.

잠정목록, 왜 중요한가?

- 유산이 당사국의 잠정목록에 올라있지 않다면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고려할 수 없다.
- 세계유산 지위를 획득할 잠재력을 갖춘 유산과 관련해 국가, 지역 및 지방 정부, 유산 소유자 및/또는 관리자, 지역 공동체, 민간부문, NGO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전 논의, 협력, 합의를 생각할 수 있다.
- 당사국이 잠재적으로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닐 자연 및 문화유산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 당사국이 필요시에 자연 및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도움을 고려하면서, 해당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 당사국,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센터, 자문기구들이 미래의 잠재적인 등재신청을 표시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획도구이다.
- 등재신청 개발 과정의 일부로 비교연구 수행 시 유용한 자원이 된다.

1.2.2 등재신청서

잠정목록을 준비하고 그중에서 해당 유산을 선택함으로써 당사국은 특정 유산에 대한 개별 등재신청서를 언제 제출할지 계획할 수 있다. 세계유산센터는 당사국이 본 등재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 등재신청서는 가능한 포괄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필수적인 자료와 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단 서류가 완성되면, 세계유산센터는 이를 적절한 자문기구에 보내 평가를 받도록 한다.

1.2.3 제출 및 평가 대상이 되는 등재신청의 수 제한

당사국은 제출될 등재신청 수와 위원회 회의에서 고려될 등재신청 수 제한을 담당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숙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수의 적절한 균형유지 달성을 계속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1.2.4 자문기구

등재신청 유산은 세계유산협약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각각 평가해 그 결과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공하는 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ICOMOS)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중 하나 혹은 둘 모두로부터 독립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세 번째로 정부 간 기구로 위원회에 문화유적 보전과 각종 훈련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ROM)가 있다.

1.2.5 세계유산위원회

유산이 일단 등재 신청돼 평가가 진행되면 해당 유산의 등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 간 기구인 세계유산위원회에 달려 있게 된다.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모여 어떤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지 결정한다. 해당 유산의 등재 또는 미등재 결정과 함께, 위원회는 등재신청을 연기 또는 회부하고,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해당 유산에 대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2.6 선정 기준

유적이 세계유산목록에 오르기 위해서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최소 10개 기

준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본 기준은 세계유산협약 문건 외에 세계유산 업무 관련 주요 자료인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설명되어 있다. 본 기준은 세계유산 개념의 발전을 반영해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정한다.

1.2.7 시간표

운영지침에는 당사국과 해당 자문기구가 관계되는 등재신청 제출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되어 있다(168항). 주요 마감일을 엄수해야 하며, 타협은 불가능하다.

1.3 세계유산 개념 설명

본 항목은 세계유산의 정의, 기준, 다양한 유형의 유산을 포함해 세계유산의 주요 개념을 설명한다.

1.3.1 정의 - 문화 및 자연유산, 복합유산

문화유산

세계유산협약에는 문화유산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기념물: 건축물, 기념적 의미를 갖는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지 및 여러 요소의 복합체로서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
- 건조물군: 독립 건물 또는 연속된 건물의 군집체로서, 그의 건축, 동질성 또는 경관 속에 접한 위치로 인해 역사, 예술, 또는 학술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
- 유적지: 사람의 소산 또는 자연과 사람의 합작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으로서 역사상, 미학적, 민족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제1조)

일부 유산의 경우 이러한 정의의 하나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다(예. 기념물 및 건물 군집체).

본 정의는 1972년 개발되었으며 문화유산 개념은 이후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의는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왔다.

운영지침에는 조경, 역사도시, 도시지구, 유산운하, 유산로(路)에 관한 추가 정의가 기술되어 있다(별첨3).

아래 목록에 오른 유산의 예를 통해 문화유산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해당 정의에 관한 글과 그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다).

얌의 첨탑과 고고학유적(아프가니스탄)

건축물이자 고고학유적. 얌의 65m 높이의 미나레트(첨탑)는 우아한 모습의 위로 솟구치는 형태를 띤 12세기 구조물이다. 벽돌로 축조하고 꼭대기 부분은 파란 타일로 꾸몄으며, 우수한 건축술과 장식 면에서 주목할 만한 유산으로 이 지역의 건축과 예술적 전통의 정점을 보여준다. 구어 지방 중심부의 높은 산 사이의 깊은 강 계곡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크다.

수쿠 문화조경(나이지리아)

수쿠 문화조경은 아래쪽 마을을 관찰하는 언덕 위의 히디(족장)궁전과 계단식 논, 신성한 상징물, 과거 번성했던 방대한 철기산업 유적을 아우르고 있으며, 한 사회와 그들의 영적, 물질 문화가 놀라울 만큼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유적이다.

리장 고대마을(중국)

건축 군집체. 평탄하지 않은 지형에 완벽히 적응한 주요 상업 및 전략지로, 우수성과 진정성을 갖춘 역사적인 도시조경을 유지해 왔다. 이곳의 건축물은 수세기동안 이 지역에 들어온 여러 문화요소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까지도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급수시설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에센의 즐베레인 광산 공업지대(독일)

건축 군집체이자 산업고고학유적.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에 위치한 즐베레인 공업지대는 유서 깊은 광산유적의 완벽한 인프라와 뛰어난 건축적 가치를 지닌 20세기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50년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이었던 석탄산업의 진보와 쇠락을 잘 보여주는 물질 증거이다.

리오핀투라스 암각화(아르헨티나)

기념적 의의를 갖는 회화 및 유적 기념물/소산. 리오핀투라스 암각화에는 13,000~9,500년 전 사이에 완성된 뛰어난 동굴벽화 유적이 존재한다. 유적의 이름(‘손들의 동굴’이라는 뜻)은 이 동굴에 찍힌 인간의 여러 손 윤곽에서 따온 것이다. 그 밖에 이 지역에서 여전히 흔히 볼 수 있는 파나코와 같은 동물의 그림과 사냥 장면도 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19세기 유럽 정착민들에 의해 발견된 파타고니아의 유서깊은 여러 수렵, 채취 공동체의 조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원폭돔(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원폭돔)은 1945년 8월 6일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에 남은 유일한 구조물이다. 히로시마 시민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원폭투하 직후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무력의 명백하고 강력한 상징이자, 세계평화와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파두아 식물원(이탈리아)

사람의 유적/소산. 세계 최초의 식물원은 1545년 파두아에서 설립되었다. 세계를 상징하는 원형의 중심구역 주위로 호가 둘러싸인 형태가 과거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후 몇몇 건축적(장식을 한 입구와 난간), 실용적(펌프 설비와 온실) 요소가 더해졌다. 여전히 과학연구센터로서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유산

세계유산협약에는 자연유산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이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특징물로서, 미학이나 과학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지질학적, 지형학적 생성물 및 정확하게 구획된 구역 내에 위협받는 동물과 식물의 종의 서식지로서 과학이나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천연 명승이나 정확하게 구획된 천연 구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제2조).

사가르마타국립공원(네팔)

사가르마타는 세계 최고봉(8,848미터) 에베레스트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극적인 산과 빙하, 깊은 계곡을 지닌 특별한 지역이다. 공원에서는 눈표범과 레서팬더를 비롯한 희귀종이 발견된다. 세르파족과 그들의 독특한 문화가 이 지역에 대한 흥미를 더한다.

일롤리사트 얼음 피오르(덴마크)

북극권에서 북쪽으로 250km 지점인 그린란드 서해에 위치한 그린란드 일롤리사트 얼음 피오르(40,240ha)는 그린란드 만년설이 바다에 닿는 소수의 빙하 중 하나인 세르멕 쿠잘렉 빙하의 바다 입구이다. 세르멕 쿠잘렉은 이동속도가 가장 빠른 빙하 중 하나이자(하루 19미터 이동) 가장 활동적인 빙하이다. 해마다 35km²의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는 그린란드에서 분리되는 얼음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이며 남극 외에 다른 어떤 빙하보다 많은 양이다. 이 지역에서 250년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연구는 기후 변화와 만년설 빙하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거대한 대륙빙하와 빙산에 덮인 피오르로 떨어져 나오는 빠른 속도의 빙류가 내는 환상적인 소리가 결합되면서 극적이고 장엄한 자연

현상이 만들어진다.

조킨스 화석절벽(캐나다)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 해안 689ha에 걸친 조킨스 화석절벽은 고생대 석탄기(3억5천4백~2억9천만 년 전) 화석이 풍부해 ‘석탄기 갈라파고스’로 묘사되어 왔다. 이곳의 암석은 지구 역사 중 석탄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며, 해당 시기 육상생물의 가장 완벽한 화석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지층 중 가장 두껍고 종합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초기 동물의 유해와 흔적이 남아 있으며, 동물들이 살았던 우림이 본래 위치에 그대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다. 14.7km의 해안절벽과 낮은 단애, 암석대, 해변으로 구성된 이 유적군에는 하구만, 범람원 우림, 담수 웅덩이와 함께 불에 취약한 숲이 있는 층적 평야 등 세 가지 생태계가 있다. 이곳에는 96개 속(genus), 148개 화석 종(species), 20가지 족문(足紋) 등 풍부한 화석 유물군이 있다. 지구 역사의 주요 단계를 대표하는 탁월한 유적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말펠로 동식물 보호구역(콜롬비아)

콜롬비아 해안에서 약 50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말펠로섬(350ha)과 주변 해양환경(857,150ha)을 포함한다. 거대한 해안공원으로 동부 열대 태평양에서 가장 넓은 어로금지구역이며,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의 주요한 서식지로 영양분이 풍부해 다양한 해양생물이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상어와 다금바리, 새치의 ‘보고’이며, 심해에 사는 상어인 짧은 코를 가진 래기드 투스 상어를 목격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가파른 절벽과 뛰어난 자연미를 지닌 동굴이 있어 세계 최고의 다이빙 장소로도 인정받고 있는 이곳의 깊은 수심은 방해 받지 않는 환경에서 자신의 본성에 따른 행동패턴을 그대로 간직한 중요한 대형 포식자와 심해어종(예. 200마리가 넘는 귀상어와 1,000마리가 넘는 미흑점상어, 고래상어, 참치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의 터전이 되고 있다.

그레이트베리어리프(호주)

그레이트베리어리프는 호주 북동해안에 위치한 매우 다양하고 아름다운 유적이다. 세계 최대의 산호초가 위치해 있으며, 400종의 산호와 어류 1,500여종, 연체동물 4,00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듀공(바다소목)과 거대한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서식지로 과학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비롱가국립공원(콩고민주공화국)

79만ha에 이르는 비롱가국립공원은 늪과 스텝지역에서 고도5,000m 위치의 르웬조리 설원, 화산 경사면의 용암평원에서 사바나에 이르는 여러 훌륭한 서식지로 구성되어 있다. 공원에는 마운틴고릴라, 강에는 하마가 살고 있으며 시베리아에서 온 철새는 그곳에서 겨울을 난

다.

복합유산

운영지침은 복합유산을 협약 제1조와 제2조에 정의된 문화 및 자원유산 정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충족시키는 유산으로 정의한다(46항).

아래는 등재된 복합유산의 예이다.

티칼국립공원 (Tikal National Park, 과테말라)

무성한 초목으로 둘러싸인 정글의 한복판에 B.C. 6세기에서 A.D 10세기 사이 사람들이 거주했던 마야문명의 주요 유적 중 하나가 위치해 있다. 의식이 행해졌던 중심구역에는 화려한 사원과 궁전, 램프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광장이 있다. 주거 유적은 주변 시골지역에 널리 흩어져 있다.

타실리나제르 (Tassili n'Ajjer, 알제리)

지질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독특한 달 모양의 조경에 위치한 이 유적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사 암각화 군락 중 하나이다. 15,000점 이상의 회화와 조각이 기원전 6,000년부터 그리스도 기원(紀元)이 시작 무렵까지 사하라사막 인근의 기후변화와 동물이주, 인간 삶의 진화를 기록하고 있다. 지질학적인 모습은 뛰어난 경관으로 관심을 끌며, 침식된 사암은 ‘암석의 숲’을 이루고 있다.

1.3.2 문화유산의 분류 정의

기념물

협약의 공식 정의는 문화유산 항목을 통해 위에서 설명하였다. 다음은 기념물에 해당하는 등재 유산의 예이다.

자유의 여신상(미국)

기념적 의의가 있는 조각물. 프랑스 조각가 바르톨디가 구스타프 에펠(에펠탑 제작자)과 협력해 파리에서 만든 우뚝 솟은 이 기념물은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선물한 것이다. 이후 뉴욕항 입구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백만 이민자들을 환영해 왔다.

타지마할(인도)

건축 소산. 흰 대리석을 재료로 한 웅장한 묘로 무굴제국의 황제 샤 자한이 자신이 가장 사랑한 아내를 기리기 위해 축조를 명해 1631년에서 1648년 사이 아그라에 지어졌다. 타지마할은 인도 이슬람 예술의 보석이자, 세계유산 중에서도 널리 칭송받는 걸작 중 하나이다.

건조물군

협약의 공식 정의는 문화유산 항목을 통해 위에서 설명하였다. 운영지침에는 역사도시와 도시중심부의 맥락에서 도시 건조물군의 정의 또한 제시하고 있다(별첨3). 다음은 건조물군에 해당하는 등재 유산의 예이다.

아이트벤하두(모로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흙으로 만든 건조물군인 크사르는 과거 사하라 지역의 전통 거주지이다. 네 모퉁이에 망루가 서있는 방어벽 안쪽에 집들이 운집해 있다. 우아르자자테 지방에 위치한 아이트벤하두는 모로코 남부지역 건축술을 매우 잘 보여준다.

몰타의 거석신전(몰타)

7곳의 거석신전이 몰타섬과 고조섬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들 각각은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고조섬의 간티야 신전 두 곳은 거대한 청동기시대 구조물로 주목할 만하다. 몰타섬에 있는 하가르 킨, 므나이드라, 타르젠은 건조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자원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건축 걸작이다. 타하그라트와 스킨바 단지는 몰타 지역의 신전건축 전통이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보여준다.

유적지

협약의 공식 정의는 문화유산 항목을 통해 위에서 설명하였다. 운영지침에는 특정 유산의 형태에 관한 지침이 제공되고 있다(별첨3). 다음은 유적지에 해당하는 등재 유산의 예이다.

팔미라 유적(시리아)

고고학유적. 다마스쿠스 북동쪽 시리아 사막에 위치한 오아시스인 팔미라 유적은 고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화 중심지 중 하나였던 어느 거대 도시의 기념물 유적이 위치한 곳이다. 1~2세기까지 여러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한 팔미라의 예술과 건축술은 여러 지역적 전통과 페르시아의 영향이 그레코로만 기술과 결합하였다.

탁실라(파키스탄)

고고학유적. 고대 신석기시대의 사라리카라 고분과 시르카프의 성벽(기원전 2세기), 시르수흐 시(1세기)로 이루어진 탁실라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번갈아 받았고, B.C .5세기에서 A.D. 2세기까지 불교연구의 중요한 중심지였던 인더스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여러 발달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화조경

운영지침에는 협약 제1조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합작 소산’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문화조

경으로 정의하고 있다(47항).

세계유산의 모든 기준이 특정 문화조경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정당화하는데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조경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 창조된 조경
- 유기적으로 진화된 조경
- 결합적 문화조경(운영지침 별첨3 참조)

많은 유산이 이들 중 한 가지 이상의 유형을 나타내며 겹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협약의 동적 측면 중 하나이며, 해당 개념은 관리 접근방식 등과 마찬가지로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ICOMOS는 세계유산문화조경에 관한 주제 참고자료를 펴내고 있으며, 이는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entre_documentation/bib/index.html에서 열람 가능하다.

아래는 문화조경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예이다.

계획 조경: 참파삭 문화지역 내 왓푸 사원과 고대주거지(라오스)

왓푸 사원이 위치해 있는 참파삭 문화조경은 1,000년 넘는 시간동안 놀라울 만큼 잘 보존된 계획 조경이다. 자연과 인류의 관계에 대한 힌두교의 관점을 표현하는 형태이며, 산꼭대기에서 강둑까지의 축을 이용해 약 10km 이상의 사원과 사당, 수도시설을 기하학적 문양으로 설계했다. 메콩강 강둑에 위치한 두 곳의 계획도시 역시 이 유적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푸카오산(山)도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5세기에서 15세기 사이의 발전을 대표하는 유적으로 주로 크메르제국과 관련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진화된 조경: 필리핀의 계단식 벼 경작지, 코르디레라스(필리핀)

2,000년 동안, 이프가오의 높은 높은 산의 등고선을 따랐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 지식의 열매와, 신성한 전통과 미세한 사회적 균형의 표현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조화를 보여주는 훌륭한 아름다움을 지닌 경관을 창조하는데 기여해 왔다.

결합적 문화조경: 울루루카타추타국립공원(호주)

공식명칭은 울루루(에어즈록 울가산)국립공원으로 호주 중부의 거대한 붉은 모래평원을 위

압하며 장관을 이루는 지질학적인 형성물이 존재한다. 거대한 단일암석인 울루루와 울루루 서쪽에 위치한 돛모양의 암석군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 사회 중 한 곳의 전통신앙체계의 부분을 형성한다. 울룰루카타추타의 본 소유자는 아난구 어보리진이다.

1.3.3 자연유산의 분류 정의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이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특징물
협약의 공식 정의는 문화유산 항목을 통해 위에서 설명하였다. 다음은 기념물에 해당하는 등재 유산의 예이다.

중국 남부 카르스트(중국)

중국 남부 카르스트 지역은 주로 윈난, 구이저우, 광시 지역 50만Km² 면적에 걸쳐있다. 습윤 열대 및 아열대 카르스트지형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관을 이루는 지역 중 하나다. 스린 석림(石林)은 최고의 자연현상이며, 뽕죽탐 형태가 있는 다른 카르스트지형보다 뽕죽탐 모양의 범위가 더 크고 모양과 변화하는 색상도 더 다양해 세계적으로 참고할 만한 곳으로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해당 유형의 카르스트에서 세계적인 참고가 되고 있는 리보의 원추형 및 탑상 카르스트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조경을 형성하고 있다. 우룽 카르스트는 거대한 돌리네와 천연 다리, 동굴이 있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캄차카 화산군(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화산지형 중 하나로 활화산의 밀도가 높고 그 유형이 다양하며 광범위한 특징을 갖고 있다. 6곳의 유적이 캄차카반도의 주요 화산 특징과 함께 본 연속유산에 포함되어 있다. 활화산과 빙하의 상호작용으로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역동적인 조경이 형성된다. 매우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종류로 알려진 연어과 어류를 비롯해 해달과 큰곰, 참수리가 특별한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위협받는 동물과 식물의 종의 서식지에 해당하는 지질학적, 지형학적 생성물 및 정확하게 구획된 구역

협약의 공식 정의는 문화유산 항목을 통해 위에서 설명하였다. 다음은 기념물에 해당하는 등재 유산의 예이다.

오카피야생동물보존지구(콩고민주공화국)

오카피야생동물보존지구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북동쪽에 위치한 이투리 숲 면적의 약 1/5을 차지한다. 보존지구와 숲이 일부 포함되는 콩고강 분지는 아프리카 최대 배수체계 중 하나이다. 보존지구 내에는 위협에 처한 영장류와 조류를 비롯해 야생에서 살아남은 약 3만 마리의 오카피 중 5천여 마리가 서식한다. 이투리와 에폴루 강의 폭포를 비롯해 환상적인 경

관도 펼쳐져 있다. 본 보존지구에는 전통 유목민족으로 피그미족에 속하는 음부티족과 에페족 수렵인들이 살고 있다.

뉴칼레도니아섬 석호: 다양한 사주와 생태계(프랑스)

연속유산이며, 프랑스의 태평양 섬 뉴칼레도니아의 주요 산호초와 관련 생태계를 대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3대 산호초 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6개 해안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사주는 매우 특별한 천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산호와 어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맹그로브에서 거머리말에 이르는 여러 식물이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으며, 산호초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군집을 이루고 있다. 뉴칼레도니아의 사주는 건강한 대형 포식자와 많은 수와 다양한 종류의 대형 어류가 살고 있으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거나 위협받는 수많은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되고 있으며, 거북과 고래, 듀공의 개체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천연 명승이나 정확하게 구획된 천연 구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협약의 공식 정의는 문화유산 항목을 통해 위에서 설명하였다. 다음은 기념물에 해당하는 등재 유산의 예이다.

그랜드캐니언국립공원(미국)

콜로라도 강에 의해 만들어진 그랜드캐니언(깊이 1,500미터)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장관을 이루는 협곡이다. 아리조나주에 위치하면서 그랜드캐니언국립공원을 가로 지른다. 수평지층은 지질학적으로 20억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특별한 거친 환경에 적응했던 선사시대 인간의 흔적도 남아있다.

하롱베이(베트남)

통킹만에 위치한 하롱베이는 약 1,600개의 섬이 바다의 석회암 기둥을 형성하며 장관을 연출한다. 척박한 자연 때문에 대부분의 섬이 무인도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 경관미가 뛰어나며, 생물학적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1.3.4 기타 주요 개념 정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

1972년 세계유산협약은 인류 전체의 세계유산의 일부로 보호해 미래세대에 이를 전승할 가치가 있으며, 인류 전체에 중요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운영지침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국가의 경계를 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인류에 공통적으로 중요할 만큼 특별한 문화적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띠는 것으로 정의한다(49항).

한 유산이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해당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78항, 2장 A항 진정성 및 완전성 항목 참조).

본 정의는 세계유산목록 등재 기준을 통해 이해된다. 아래에서는 해당 기준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세계유산위원회는 하나의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때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문(Statement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을 채택해 왔으며, 그 이전에 등재된 여러 유산에 대한 기술문 마련 작업 역시 시작되었다. 이는 현재 위원회의 주요 업무이며, 등재된 각각의 유산이 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어떻게 해당 기준과 진정성, 완전성, 보호 및 관리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요약한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은 유산의 전 생애를 지배한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는 다음에 해당한다.

- 등재신청의 핵심
- 평가대상
- 특정 유산이 등재되는 이유
- 보호, 보전, 관리를 통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단 해당 기술문을 채택하면 아래의 경우 참고기준이 된다.

- 모니터링
- 주기적 보고
- 사후 모니터링 및 보전상태 보고
-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 등재
- 세계유산목록 삭제 가능성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는 여러 주제와 주제적 틀이 중요하다. 세계유산 국제전략 자연 및 문화유산 전문가회의 보고서(1998년 3월 25~2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네덜란드 정부 공동주최)와 세계유산목록: 간극 메우기-미래를 위한 행동계획(ICOMOS 2005)을 참고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는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띤 특별한 항목이다. 유산의 가치에는 지역이나 국가 등 다른 차원도 존재한다. 본 매뉴얼 전반에 걸쳐 가치(value) 또는 중요성(significance)은 종종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일컫기도 하지만 때때로 유산의 다른 차원을 말하기도 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속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연관되거나 이를 표현하는 유산의 여러 측면을 말한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가치와 연관될 수 있는 속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형태와 디자인
- 재료와 물질
- 이용과 기능
- 전통, 기술, 관리 체계
- 위치 및 주변환경
-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 정신 및 감정(82항)

속성은 유,무형 모두 가능하다.

특징은 진정성, 완전성, 보호, 보전, 관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완충지대

완충지대는 세계유산 외부의 정확하게 구획된 구역으로 해당 유산의 보호와 보전, 관리, 완전성, 진정성,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지속성에 기여하는 경계에 인접해 있다.

완충지대가 등재유산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경계지역과 관련 관리 접근방식은 당사국이 제안한 시기에 평가, 승인을 거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완충지대로 정의된 지역은 당사국이 약속한 세계유산 보호와 보존,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야 한다. 완충지대의 기능은 해당 세계유산의 각 유형과 해당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호, 보전, 관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주변환경

주변환경이 특정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일부 또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등재유산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주변환경이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 자체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면 완충지대에 포함시키거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유산 구조물, 유적지, 지역의 배경 보전에 관한 ICOMOS 시안 선언(2005)’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유산 구조물, 유적지, 지역의 배경은 해당 유산의 중요성과 독특한 특징의 일부이거나 그에 기여하는 인접한 광범위한 환경으로 정의된다.

물리적 시각적 측면을 넘어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 과거 또는 현재의 사회 및 영적 관행, 관습, 전통적 지식과 활용, 활동 그리고 해당 공간과 현재 및 역동적 문화, 사회, 경제적 맥락을 창조하고 형성한 무형문화유산의 여러 형태 또한 배경에 포함된다.”

1.3.5 자연, 문화, 복합유산 및 문화조경의 관계

복합유산과 문화조경을 혼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유산은 문화유산 기준 (i) - (vi) 중 최소 한 항목, 자연유산 기준(vii) - (x) 중 최소 한 항목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 등재된다. 문화조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문화 또는 자연적 특징이 아닌 문화와 자연 간의 상호관계에서 생겨난다. 문화조경은 문화유산 기준 하에 규정된다. 문화조경이 높은 자연적 가치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 수준은 자연유산 조건 하에 등재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문화조경이 자연적 가치 또한 지니는 경우, 해당 유산은 복합유산 및 문화조경으로 등재된다. 이러한 관계는 아래 그림에서 설명된다.

(그림)

자연유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유산은 자연유산 기준(vii-x)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킨다.

문화유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유산은 문화유산 기준(i-vi)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킨다.

복합유산: 문화유산 기준 및 자연유산 기준을 최소 하나씩 만족시킨다.

문화조경: 자연과 인간이 협력해 이룬 소산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기준으로 등재
일부 문화조경은 복합유산이 될 수 있다. 문화유산 기준으로 문화조경으로 식별되지만, 이들 유산의 자연적 가치 또한 자연유산 기준 중 하나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1.3.6 세계유산 기준

키포인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띠는 해당 유산과 관련된 기준만을 선택한다.

운영지침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에 열 가지 기준을 두고 있다(77항). 기준(i)에서 (vi)은 문

화유산에 해당하며 따라서 ICOMOS가 평가하고, 나머지 (vii)에서 (x)은 자연유산 기준으로 IUCN이 평가한다. 많은 유산이 특정 자연 또는 문화유산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복합유산은 자연유산 기준과 문화유산 기준을 함께 충족시킨다. 복합유산은 IUCN과 ICOMOS 두 기관이 모두 평가한다.

아래는 해당 기준을 충족시킨 유산의 예이다(다음 예에 나온 글과 그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다).

등재기준(i): 인간의 창조적 재능을 나타내는 걸작

이 기준은 한 문화권 내에서 발전한 특정 유형 중 뛰어난 예(최고 또는 현저한 예)를 말하며, 다음의 성격을 갖는다.

- 높은 지적 또는 상징적 자질
- 높은 예술적, 기법 또는 기술적 능력

독특하다는 특징만으로는 등재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 해당 문화재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과 관련해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은 유산 목록이지 사람의 목록이 아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기준(i)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의 창조적 재능을 나타내는 걸작이다. 세계유산목록에는 재능을 지닌 사람이 아닌 그들의 작품을 목록에 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느 뛰어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걸작을 목록에 올린다.

걸작이라고 해서 모두 유명한 건축가나 설계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선사시대 구조물 중에는 선사인들의 창조성과 그들의 세련된 기술 덕분에 상징물이 된 것도 있다. 또한 공동체의 집단적인 소산이 걸작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애초에는 아마도 기능적인 측면 이상을 의도하고 축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 산업 구조물 또한 기능성과 실용성을 넘어 비범한 수준에 도달한 창조성을 구현한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사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호주)

1973년 준공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건축적 형태와 구조적 설계 모두에서 수많은 창조성과 혁신을 이룬 훌륭한 건축물이다. 시드니항 쪽으로 돌출된 반도 끝의 뛰어난 해안을 배경으로 세워진 대형 도시 조형물인 오페라하우스는 건축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모두 서로 맞물린 둥근 천장 모양의 ‘조가비’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두 개의 주 공연장과 하나의 식당의 지붕을 이루고 있다. 이들 조가비 모양 구조물은 대형 플랫폼 위에 놓여 있으며, 보행자의 산책로로 기능하는 테라스로 둘러싸여 있다. 1957년 덴마크 건축가

이외론 우촌이 국제공모전에서 당선될 당시 극히 새로운 축조 방식으로 주목을 끌었다.

등재기준(ii): 어느 기간,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물, 기술, 기념비, 도시계획, 경관설계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

본 기준의 핵심 문구는 ‘인류 가치의 교류’이다. ICOMOS는 특정 유산의 물질적 자산이 건축과 기술, 기념비, 도시계획, 경관설계 측면에서 아이디어의 교류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고려한다. 해당 유산은 다른 지방 또는 지역에서 수입되어, 그 결과 나타난 창조성을 변형시키는 특정 아이디어나 개념을 구현한 것이 된다. 또한 그 유산 자체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통해 인류 가치의 교류를 촉진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아이디어가 쌍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때 유산은 특정 면에서 상징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문화적 혼합을 보여준다. 모든 경우, 인류 아이디어의 교류나 영향력은 해당 시기 및/또는 추후 사람 또는 사회에 대해 영향력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반응을 촉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유산에서 영향력이나 상호교류는 예술과 건축, 도시설계의 역사나 기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유형의 형태로 보급된 것을 말하며, 이는 모두 해당 유산의 특징 속에 구현되어 있다.

인간 사회와 문화 내 그리고 양자 간의 교류가 혼해진 이후에는 해당 교류와 가치/영향력이 수혜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중요해야 한다는 점이 기준이 된다. 작은 문화적 측면의 전달 또는 영향력이 미미한 전달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와 함께 전달된 가치나 영향력은 등재 신청된 유산에서 특정 측면에서 명백해야 한다. 즉 그 가치나 영향력이 해당 유산의 특징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산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인류의 가치나 영향력의 교류는 등재를 논하기에 부적절하다.

잘 보존된 유산의 경우 해당 유산의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이 기준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이 경우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례. 사마르칸트 문화교차로(우즈베키스탄)

역사도시인 사마르칸트는 세계문화의 교차점이자 용광로이다. 기원전 7세기 고대 아프라시아브로 세워진 이곳은 14~15세기 티무르 시기 이룩한 가장 중요한 발전의 흔적이 남아있다. 비비하눔 모스크, 레지스탄 광장과 같은 사마르칸트의 집합체는 지중해에서 인도 대륙 남부에 이르는 전 지역에 걸쳐 이슬람 건축의 발전에 독창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등재기준 (i)과 (iv)에 근거하여 등재되었다.

등재기준(iii): 현존하는, 혹은 이미 소멸한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에 관한 독특한 또는 적어도 예외적인 증거가 있는 것

기준(ii)와 달리, 본 기준은 과정을 고려한다. 대개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지리 문화적 지역에서 삶의 방식 또는 문명을 규정해온 문화적 전통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통은 여전히 살아있고 활기에 넘치거나, 기념물이 증거가 되는 이미 쇠퇴한 경우도 있다. 건축방식, 공간계획, 도시패턴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전통은 무형일 수 있지만, 여러 아이디어나 문화적 전통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암각화 회화처럼 정확한 유형의 결과물도 있다.

본 기준의 핵심 문구는 ‘예외적인 증거’이다. 이 증거는 특정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증거이며, 등재 신청된 유산에서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모든 문화에서 공통되고, 그러한 모든 문화에서 다루어지는 보편적인 특성 문제’가 나타나야 한다(세계유산 전문가회의, 1998년). 즉, 해당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이 단순히 특정 문화권에서만 중요한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문명은 대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조직적인 성격이나 통합된 특징을 지니며,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집단을 포괄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단기간 지속된 사회, 조직적 성격이나 통합된 특징이 부족한 집단, 또는 구성원이 소규모인 집단인 경우 반드시 문명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사례. 마카오 역사지구(중국)

마카오에는 서양과 중국 간의 최초이자 가장 오래 지속된 만남을 보여주는 독특한 증거가 있다.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마카오는 무역상과 선교사, 다양한 학문의 거점이었다. 이러한 만남의 영향은 마카오 역사지구를 특징짓는 다양한 문화의 혼합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등재기준 (ii)와 (iv), (vi)에 근거하여 등재되었다.

등재기준(iv): 인류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양식 혹은 건축적, 기술적인 집합체나 경관이 뛰어난 사례

이 기준은 하나 이상의 중요한 역사상 단계를 나타내는 특정 형식학적 맥락에서 등재를 신

청한 유산에 있어, 해당 유산이 지닌 형식학적으로 뛰어난 특징과 연관된다.

본 기준의 핵심은 해당 유산이 어떤 측면에서든 인류 역사상 결정적 순간 또는 중요한 단계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산은 그러한 순간으로 인해 생겨났거나, 그 시기의 영향력을 반영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란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영향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 단계는 정치사나 경제사, 기술발전과 연관될 수 있으며, 널리 그 영향이 미치는 결과를 수반한다.

해당 기준은 따라서 중요한 '원형'이나 해당 유형에 속하는 유산의 대표적인 예로 이용될 수 있다.

ICOMOS는 철도, 운하, 암각화, 교량 등의 유산유형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진행해 등재 신청된 여러 유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도록 한다(<http://www.icomos.org/studies/참조>). ICOMOS문서센터가 축적한 수많은 주제별, 지역별 자료를 온라인에서 참고할 수 있다(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entre_documentation/bib/index.html).

이 기준은 전 세계 모든 건축양식, 집합체, 경관의 사례가 되는 유산의 등재를 장려하거나 허가하고자 하지 않는다. 뛰어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유산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탁월한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 단계는 지역적, 전 지구적 맥락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 한 나라의 역사상 중요한 단계로는 충분하지 않다. 역사적 단계에는 시간 차원 또한 존재한다. 해당 단계는 문화사 및 해당 역사 속의 지속적인 패턴과 변화의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인위적인 기간(예. 18세기)은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정의가 되지 못한다. 유의미한 기간이란 문화적 맥락에서 중요하며 널리 인정받는 특정 기간이어야 한다.

사례. 리도 운하(캐나다)

리도 운하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와 관련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운하 중 광범위하게 잘 보존된 중요한 사례로, 아메리카 대륙 북부 장악을 위한 전투가 그 목적이었다. 유산의 범위는 본래 운하의 주요 요소를 비롯해 수로, 댐, 다리, 방비시설, 수문소 및 기타 고고학적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 운하의 원래 계획과 수로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리도 운하는 건설 이후 다른 방해 없이 수로로 운영되며 본래의 역동적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다. 수문과 제수밸브 대부분은 여전히 수동식 원치로 작동된다.

또한, 등재기준 (i)에 근거하여 등재되었다.

등재기준(v): 한 문화 혹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인류의 전통적인 정주지, 토지이용, 또는 바다이용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로, 특히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그 존속여부가 위태로운 경우

전통적인 정주지는 도시 또는 농촌이 된다. 마찬가지로 토지이용 역시 단순히 농촌 일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본 기준의 핵심은 해당 유산이 특정 문화를 대변해야 하며, 어떤 면에서 대표적으로 뛰어난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때로는 이 기준의 강조점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영향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거스를 수 없는 변화로 인해 존속여부가 위태롭기 때문에 뛰어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경우가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위태로움은 과거 그 수가 많았던 것이 희소해진 경우나 현재 남은 것이 거의 없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특정 유형의 정주지나 토지이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일하게 남은 것일 수도 있다.

ICOMOS는 포도밭 조경 등 수많은 세계적인 주제연구나 지역 주제연구를 발전시켜 특정 유형의 정주지나 조경을 평가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icomos.org/studies>).

여기서 핵심 문구는 ‘토지이용’이다. 정주지 혹은 전통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목적을 위한 이용과 관련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요구된다.

해당 정주지나 토지이용 역시 하나의 문화 또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뛰어나게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해당 정주지나 토지이용이 해당 문화의 삶에서 중요하거나 인간의 상호작용에 보편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례.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옛 데킬라 생산시설(멕시코)

데킬라 화산의 구릉지대와 리오그란데강 깊은 계곡 사이의 34,658ha 면적에 위치한 이 유적은 16세기부터 증류주인 데킬라를 생산한 이래, 그리고 발효주와 천을 만들어 온 최소 2,000년 동안 이용되어 온 용설란을 재배한 덕분에 형성된 것으로, 드넓은 용설란 재배지의 일부에 해당한다. 경관 내에는 19세기와 20세기 데킬라의 전 세계적인 소비 성장을 반영하는 증류소가 운영되고 있다. 오늘날 이 용설란 재배지는 멕시코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여겨진다. 용설란 재배지의 살아있는 실용적인 조경과, 용설란 ‘파인애플’이 발효되고 증류되는 대형 증류소가 있는 데킬라와 아레날, 아마티탄 도시 주거지가 이 지역에 포함된다. 이 유산은 또한 테우치틀란 문화의 증거이기도하다. 당시 주민들이 서기 200년부터 900년까지 농사를 짓기 위해 대지, 주택, 사원, 의식을 위한 작은 언덕, 구기장 등을 만들어 데킬라 지역을 조성했다.

들판과 증류소, 농장과 마을은 데킬라가 발전한 특정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간 정주 지이자 토지이용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이다.

또한, 등재기준 (ii)와 (iv), (vi)에 근거하여 등재되었다.

등재기준(vi): 사건이나 현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뛰어난 보편적 의미를 갖는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적 또는 구체적인 연관이 있는 것(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가급적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기준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유산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특성과 관계가 있다. 기타 모든 문화적 등재기준은 역사적 사건, 정치적 지도자, 전쟁과 분쟁,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구조적 혁신에 담긴 사상처럼 한두 가지 무형의 연관성을 포함하지만, 해당 연관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인 특성을 통해 이러한 연관성을 반영한다. 이와는 반대로 본 기준은 유산에서 직접적이고 시각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증명될 수 있는 연관성과 관계가 있다. 일례로, 산이나 풍경이 신성하거나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산이 화가, 예술가 또는 음악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는 그 자체로 뛰어난 의미가 있는 사건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사건, 전통, 사상, 신앙, 그리고 작품에는 그 자체로 뛰어난 보편적 의미가 분명 있다. 또한 유산은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이 유산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본 기준은 유산의 물질적 측면에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또는 다른 등재기준(문화적 또는 자연적)을 충족시키거나 동의한 특성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

세계유산목록은 사건, 전통, 사상, 신앙, 그리고 작품을 목록에 올리지 않는다. 종교, 영적/정치적 운동이나 중요한 인물도 마찬가지로 포함하지 않는다. 종교나 운동의 뛰어난 보편적 의미가 나타나는 장소처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산을 등재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의 주요 종교의 신전, 사원이나 교회 모두를 목록에 올릴 수는 없다. 수많은 관련 유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탁월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하는 접근법이 적당할 것이다.

또한 특별한 맥락에서 특정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이용되는 지역보다는 그 종교의 발상지나 주요 장소와의 연관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왔다.

사례. 스트루베 측지 아크 (벨로루시,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아크의 측정과 그 결과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그 모양과 크기에 호기심을 갖는 인간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는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라는 아이작 뉴턴의 이론과 관련이 있다.

또한, 등재기준 (ii)과 (iii)에 근거하여 등재되었다.

등재기준(vii): 최고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의 아름다움과 미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역이 포함된 곳

본 등재기준은 두 개의 뚜렷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첫 번째, '최고의 자연현상'은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다(예를 들어, 가장 깊은 협곡, 가장 높은 산, 가장 넓은 동굴, 가장 높은 폭포 등).

두 번째 개념인 '뛰어난 자연의 아름다움과 미적 가치'는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기준은 뛰어난 자연의 아름다움과 미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자연유산에 적용된다. 자연지역의 아름다움과 미학의 개념에 대해 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특정 접근방법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하나 이상의 인정받은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력한 지지주장을 펼치지 않고 단순히 해당 가치에 대한 단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등재신청을 문화유산 기준에서 구체화되는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의 미학적 인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본 기준에서 자연은 등재를 위해 신청된 유산의 종류로, 지역기반이 아닌 세계적으로 분포한 비교 가능한 유적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본 기준에 따라 적용된 기준은 입증할 만한 세계적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 기준에 따른 미적 요소와 문화경관의 고려와 관련된 미적 요소를 구별한다. 평가는 본 기준에 근거하여 세계유산 위원회가 이미 등재한 다른 유산과의 비교에 기초하고, 가능하면 어느 정도 풍경가치를 나타내는 측정 가능한 지표를 통한 비교를 포함한다. 본 기준에 따라 이미 등재된 유산과의 비교 및 세계유산위원회와 IUCN의 본 등재기준 사용의 관행은 유산의 등재 타당성을 고려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IUCN은 본 기준의 적용에 대한 주제별 조언을 마련하여 2012년 세계유산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가 제시하는 지침은 아니지만 (등재기준(vi)과는 달리) 등재기준(vii)은 일반적으로 최소 한 개 이상의 다른 등재기준과 함께 고려되어 왔다고 IUCN은 지적한다.

사례. 왕나비 생물권보전지역(멕시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험준한 숲으로 우거진 산악지역에 56,259ha의 왕나비 생물권이 자리하고 있다. 매년 가을 북아메리카 광범위한 지역에

서 수백만 내지 수십억 마리에 이르는 나비들이 이곳으로 날아와 보전지역의 작은 공간에 몰려 들어 나무는 오렌지색으로 물들고 나뭇가지는 나비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진 다. 봄이 되면, 나비들은 캐나다 동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8개월의 이동을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 나비 4대가 태어나고 죽는다. 나비들이 겨울을 나는 장소로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이다.

등재기준(viii): 생명의 기록을 포함한 지구역사의 주요 단계, 지형발달에 있어 중요하고 진행 중인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적, 지문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뛰어난 사례

해당 기준에 대한 평가체계는 세계적이어서 지형학적 특성의 세계적인 분포와 46억 지구 역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며, 지구의 지형 변화와 더불어 지구상의 생명의 진화를 언급할 것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관점을 반영한다. 매우 제한된 범위의 특수화된 특징이 아니라, 유산의 발견으로 지구 역사와 지질학적 과정에 대한 이해의 급진적 변화를 가져왔던 유산이 고려된다. 일부 지질학적 등재는 그 자체의 특수한 성질 때문에, IUCN은 지질학 전문가의 충고를 따른다. 본 기준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만 전혀 다른 4개의 자연 요소를 포함 하는데, 이들은 지질 및 지형과학과 관련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지구의 역사 - 이 부분의 지질학적 특징은 과거 지구 발달의 중요한 사건을 알려주는 현상을 포함하며, 지각변동, 산맥의 생성과 발달, 판상 지각운동, 대륙이동과 리프트 벨리 생성, 운석 충돌 및 지질학적 과거의 기후변화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미루어 볼 때, 세계유산목록의 등재신청을 고려하는 유산은 화석군보다는 암석의 생성순서나 결합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지구 과정과 형성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주요 발견을 기본적으로 포함 할 것이다.

(ii) 생명의 기록 - 이 부분에는 고생물학 유적지(화석)를 포함한다. 해당 등재신청을 평가 하기 위해, IUCN은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IUCN 화석유적지 평가 체크리스트

1. 유적지에서 장기간의 지질시대에 걸친 화석이 발견되었는가? 다시 말해, 지질시대가 얼마나 길었는가?
2. 유적지에서는 한정된 생물종의 표본, 아니면 전체 생물군의 표본을 채취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했는가?
3. 유적지가 지질시대의 특정 시기에 대한 화석 표본을 채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가?

다시 말해, 연구를 위한 모식 산지인가 아니면 대안으로 이와 유사한 지역이 있는가?

4. 시간/공간에서 특정 지점의 전체 ‘이야기’를 파악하는데 기여하는 비교할 수 있는 유적지가 다른 곳에 존재하는가? 다시 말해, 단일 유적지 등재신청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연속 유산 등재신청을 고려해야 하는가?
5. 유적지가 지구의 생명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주요한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졌던(또는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주요 장소인가?
6. 유적지에서 지속적인 발견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가?
7. 유적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8. 유적지와 관련된 다른 자연가치(예를 들면, 풍경, 지형, 고유 식물)가 있는가? 다시 말해, 인접한 지역에 화석자원과 관련한 근대 지리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이 존재하는가?
9. 유적지에서 채취한 표본의 보존 상태는 어떠한가?
10. 채취한 화석이 근대 생물분류군 및/또는 군락의 보존 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가? 다시 말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근대 생물군으로의 점진적인 변화 결과를 기록하는데 있어 유적지와는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출처: IUCN 1996

(iii) 지형발달에 있어 중요하고 진행 중인 지리학적 과정-지형학적 유산은 지형 및 경관(또는 지문학)과의 관계와 현재 지질학적 과정을 기록한다. 등재기준(viii)의 이 부분은 지형학적 과정, 즉 빙하, 산맥, 사막, 활화산, 강, 삼각주, 섬, 그리고 해안과 관련한 과정을 나타낸다.

(iv) 중요한 지형학적 및 지문학 특성-이 부분은 활발한 과정의 산물인 지형을 포함하고, 앞서 열거한 과정에 대한 고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그룹은 또한 잔존하는 빙하지형, 휴화산 및 카르스트 특성 등 오래전에 또는 오랜 기간 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특징을 포함한다. 일부 지형 경관의 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때때로 해당 특징에 대한 등재기준(vii)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

IUCN은 지질학적 세계유산에 대한 세계적인 주제연구에 착수했다(Dingwall, Weighell and Badman 2005). 이 연구는 본 기준에 대한 더욱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13개의 지질학적

유산에 대한 주제연구와 관련하여 세계유산목록의 유효범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사례. 와디 알 히탄(이집트)

이집트 서부 사막의 고래 계곡으로 불리는 와디 알 히탄에서 지금은 멸종된 고대 고래아목의 매우 귀중한 화석잔해가 발견되었다. 고래 화석은 육지동물이었던 과거에서 바다생물로 진화한 포유류인 고래의 출현이라는 진화의 중요한 과정을 보여준다. 이 유적지는 고래 진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화석은 변이를 거치는 고래의 생생한 모습과 삶을 보여준다. 화석 수, 군집, 그리고 상태는 유일무이한 수준이며, 이 매력적인 경관보호지역의 접근성과 주위 환경 역시 독특하다. 알 히탄 화석은 뒷다리가 사라지는 마지막 단계의 가장 어린 고대 고래아목을 보여준다. 현장의 다른 화석자료 덕분에 그 시대의 주변 환경과 생태적 환경의 재건이 가능하다.

등재기준(ix): 육지,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의 군락의 진화와 발달에 있어 중요하고 진행 중인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

본 기준에 대한 평가는 지구의 생태계와 역학관계와 관련이 있는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이해에 따라 좌우된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당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IUCN과 그 파트너는 산림, 습지, 해양, 해안지역, 산맥, 작은 섬의 생태계, 그리고 아한대 수림 등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제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본 기준의 평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www.iucn.org/about/union/commissions/wcpa/wcpa_puball/wcpa_pubssubject/wcpa_wheritagepub/에서 해당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 아치나나나 열대우림(마다가스카르)

아치나나나 열대우림은 마다가스카르 섬 동부에 위치한 6개의 국립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잔존 산림은 마다가스카르의 고유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생태적 과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섬의 지질학적 역사를 반영한다. 마다가스카르의 동식물종은 6억년 이상 다른 육지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채 고립되어 진화하였다. 열대우림은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은 물론 생태적, 생물학적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많은 종이 고유 희귀종이며 특히 영장류와 여우원숭이는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등재기준(x)에 따라 등재되었다.

등재기준(x): 과학 및 보존의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멸종위기 생물종의 서식지를 포함해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연 서식지를 포함하는 곳

본 기준을 평가하는 데는 IUCN 적색목록, 식물다양성 센터, 세계토종조류지역, 국제보호재단의 생물다양성 위협지역, 및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지정한 '글로벌 200 생태지역'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본 매뉴얼 마지막에도 이러한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목록이 나와 있다.

이러한 세계분류체계의 적용에 관한 추가 정보로, '세계유산협약의 특별전문가회의를 위한 예비 보고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 개념(Background Paper for the Special Expert Meeting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Concep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Kazan, 2005, IUCN)'이 있으며, 다음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하다. cmsdata.iucn.org/downloads/kazan_abs_english.pdf.

사례. 소코트라 군도(예멘)

아덴만 근처 북서 인도양에 위치한 소코트라 군도는 총 250km로 4개의 섬과 2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프리카 뿔(Horn of Africa)의 연장처럼 보인다. 이 군도는 풍부하고 특이한 동식물의 생물다양성으로 인해 그 보편적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이곳에 사는 825종의 식물 중 37%, 과충류 중 90%, 육지 달팽이 중 95%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서식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여러 조류를 포함해 많은 육지새와 바닷새(192종의 조류 중에서 44종이 이 군도에서 번식하고 85종은 규칙적으로 이동한다)가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다. 해양생물도 매우 다양하여 253종의 사주산호, 730종의 연안 물고기, 300종의 게, 바다가재, 새우가 있다.

1.3.7 연속유산 및 월경유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단일 국가내의 단일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면적이 무려 39,000ha에 달하는 라오스의 참파삭 문화지역 내 왓푸 사원과 고대주거지 같은 규모가 큰 유산도 있다. 반면 고작 0.4ha 밖에 안 되는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 공원(원폭돔)처럼 작은 유산도 있다. 유산에는 크게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이 있다.

키포인트: 등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산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라.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유형의 유산이 있다.

- 월경유산
- 연속유산
- 초국적 연속유산(운영지침 134-139항)

이런 특별 유형의 유산은 아래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 해당 유산의 요소들을 선택하게 된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3.1.9 참조).

월경유산

월경유산은 둘 이상의 접경 국가의 국경에 걸쳐 있는 육지나 해상지역을 의미한다.

월경유산의 장점 중 하나는 현재의 정치상 국경과 상관없이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모든 지역 및 속성을 단일유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월경 유산은 국가 간 공유 유산에 대한 국제적, 평화적 공조를 반영하고 장려할 수 있다.

유산에 대한 제도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해당 각국의 협동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경유산의 등재신청 준비와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유적지 관리, 제시, 보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보호, 관리 체제도 다를 수 있다. 운영지침에서는 그러한 쟁점에 대비해 협동관리위원회나 유사한 기구를 개설해 유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양국에 걸쳐 있는 유산의 상태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향후 전체 유산 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사례. 무스카우어 공원(독일, 폴란드)

나이세강과 폴란드 및 독일의 국경 지역에 걸쳐있는 559.9ha 면적의 무스카우 공원은 1815년에서 1844년까지 헤르만 뤼르스트 폰 뤼클러무스카우가 조성한 공원이다. 주변의 농촌 풍경과 자연스레 연결되는 이 공원은 조경 디자인에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였으며 유럽과 미국에 조경 건축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나무가 있는 풍경화'라는 테마로 구상된 이 공원은 고전적인 풍경, 낙원, 또는 잃어버린 이상을 재현하려 하지 않고 대신 이 지역 식물을 이용해 기존 조경의 내적인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조성된 조경은 개발 지역 주변에 도시의 공원을 만들어 낸 숲길을 따라 무스카우 도심까지 뻗어 있다. 이에 도심은 유토피아 조경술의 디자인 요소를 갖추게 되었다. 이 유적지는 또한 복원된 성과 다리, 수목원을 잘 보여준다.

사례. 모시 오와 툰야: 빅토리아 폭포(잠비아, 짐바브웨)

모시 오와 툰야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장관을 연출하는 폭포다. 폭이 2km가 넘는 낙수지점에는 잠베이지강의 강물이 요란스럽게 현무암 골짜기를 타고 쏟아져 내려 20km 밖에서도 아득히 보일 정도의 무지개 빛 연무를 피어오르게 한다.

연속유산

연속유산은 하나의 범위 안에 묶을 수 없는 일련의 개별, 혹은 분리된 요소/지역을 일컫는다. 각 요소는 지리적으로 서로 근거리, 또는 장거리에 위치할 수 있으며, 모두 단일 국가 내에 있다. 여러 국가에 산재되어 있는 초국가적 연속유산은 아래에서 논의할 것이다.

연속유산은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된 요소를 포함한다.

- 같은 역사문화 집단
- 지리적 특성이 같은 종류의 유산
- 같은 지리적, 지형학적 형성, 같은 지리생물학 지역, 같은 생태 환경

또한 전체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하나의 연속유산이라고 가정한다. 즉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가 반드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운영지침 137항).

분리된 요소/지역이 하나의 완충지대 내에 있을 수도 있다.

연속유산은 하나의 범위 내에 모든 요소들을 아우르고자 하는 집착을 떨쳐버릴 수 있다. 따라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속성이 전무한 광활한 지역도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등재신청서 안에 각각 분리된 지역을 모두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등재신청 과정이 보다 복잡해질 수도 있다. 또한 분리된 요소들이 같은 국가 내에 존재하더라도 각각에 적용되는 지역별 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호, 보존, 관리도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분리된 요소들의 공동 관리가 필요하다고 운영지침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지극히 제약이 많은 요소를 경계에 포함시키려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연속유산 등재라는 방법을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적절한 경계를 결정하는 지표는 바로 가치, 진정성, 완전성이다.

사례. 필리핀의 바로크양식 교회들(필리핀)

16세기말 스페인인들이 건축한 첫 번째 교회를 비롯한 기념물에 해당하는 4개의 교회는 마닐라(Manila), 산타마리아(Santa Maria), 파오아이(Paoay), 그리고 미아그아오(Miag-ao)에 각각 소재하고 있다. 그들의 독특한 건축스타일은 중국인과 필리핀의 기능공들이 유럽 바로크양식을 재해석 한 것이다.

사례. 화석 포유동물 유적(호주)

호주 동부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위치한 리버슬레이(Riversleigh)와 나라코르(Naracoorte)는 규모면에서 세계 10대 화석유적지에 속한다. 이 유적지는 호주의 독특한 동물군의 주요 진화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초국적 연속유산

초국적 연속유산은 연속유산에 속하나, 유산의 요소가 하나 이상의 국가에 위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초국적 연속유산의 장단점은 월경유산과 연속유산에서 언급했던 것과 유사하다.

사례. 세네갈비아 환상 열석군(감비아, 세네갈)

감비아 강을 따라 길이 약 350km 에 이르는 지역에 100km의 폭으로 천여 개 이상의 돌기둥들이 크게 4개의 군으로 집중 분포된 유적이다. 4개의 열석군(Sine Ngayene, Wanar, Wassu, Kerbatch)은 93개의 환상 열석군과 많은 고분, 분묘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16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라테라이트 기둥 환상 열석과 이와 관련된 고분, 분묘는 1500년 전 신성한 지역의 풍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유적지는 잘 정비되고 번성했으며 오래기간 지속되어온 고대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우브스 누르 분지(러시아, 몽골)

면적이 1,068,853hr에 이르는 우브스 누르 분지는 중앙아시아 폐쇄 분지의 북쪽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우브스 누르 분지는 광활하며 얇은 소금호수로 철새, 물새, 바다새의 중요한 서식지인 우브스호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유적지는 유라시아 동쪽의 주요 동식물 서식지를 대표하는 12개의 보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대 초원 지대인 스텝은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 사막은 희귀종인 저빌, 날쥐, 긴털족제비, 산간지역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눈표범, 산양, 아이벡스의 중요한 서식처다.

다음 그림은 다양한 종류의 유산의 이론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국유산-단일 국가(A)	월경유산, 초국적 유산- 둘 이상의 국가(A,B,C)
단일 지역	자국유산	월경유산
하나 이상의 지역: 연속유산	연속유산	초국적 연속유산(가능한 형태) 연관성 있는 유산의 각각의 위치가 한 국가 내에 온전히 자리잡은 경우 연관성 있는 유산 요소 중 일부를 하나

		<p>이상의 국가에서 공유하는 경우</p> <p>드물긴 하지만 연속유산이 국경을 공유하지 않고 각각 다른 지역에 분포하기도 한다. 스트루베 측지 아크(Struve Geodetic Arc)나 로마제국의 국경도시들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요즘에는 위의 예와 같은 문화유산의 경우만 이 범주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연속유산의 경우 유산 요소가 B,C국에는 있으나 A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p>
--	--	--

제2부 준비 과정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2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등재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에 대한 기존 정보 및 필요한 심층 연구
- 등재전담팀 구축 및 지원
- 등재신청 과정 착수 단계 및 핵심 단계별 포함 내용

2.1 유산에 대한 기존 정보

유산에 대한 기존의 정보 중 등재신청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먼저 구전 역사자료, 이미 발간된 고고학적 증거자료, 보존 기록, 관광 정보, 향후 규정 목록 등 여러 장소에 흩어진 유산에 관련된 자료를 한데 모은다. 대개의 경우 유산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거나, 기존의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해 유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키포인트: 기존의 관련 정보를 수집, 검토하여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본다.

등재신청에 대한 예비 과정으로서 유산에 대해 어떤 내용이 알려졌고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연구자료-유산 등재신청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유산의 역사 및 속성에 대한 세계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명시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 자료가 필요한가?

- 보고자료-유산을 기록한 보고자료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를 완성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한가?
- 문서기록-문서기록이란 등재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많은 종류의 정보를 언급하는 것이다. 등재신청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재신청을 뒷받침하는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 신청을 회부했거나 연기했던 사례도 있다.

2.2 등재전담팀 구성

2.2.1 등재전담팀

세계유산 등재신청 준비는 작업 자체가 까다롭고 주요 이해당사자들도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전문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개 팀을 구성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산 전문가는 물론 등재 신청한 유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도 유산에 대해 중요한 정보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팀을 구성하는 첫 단계로 주요 후원자나 이해당사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대개 유용하다. 이들 가운데는 유적지 소유자나 관리자, 당사국, 국립 문화재청, 지방 정부, 그 밖의 여타 정부 기관, 지역 공동체, 지역 주민, 대학, 전문가, 지방 사업체, 관광 가이드, 비정부 단체, 어민, 산림전문가, 레크리에이션 기관, 학계 및 연구원 등을 포함한 유저 그룹이 있다. 유산 전문가는 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심사숙고해야 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유산에 대한 식견을 갖추면 더 이상적이다. 당사자나 전문가들은 등재전담팀의 일원에 포함되거나 팀을 대표하는 팀장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적어도 이들은 등재전담팀의 작업에 직접 관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팀 구성은 향후 이해관계 가능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키포인트: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를 등재전담팀에 합류시킨다.

유산 등재신청 과정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유산 보호에 있어 주민들이 국가와 공동의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완전한 등재신청 절차를 관리하고 완성된 신청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을만한 단일 프로젝트 리더를 선출하는 작업 역시 필수이다.

등재전담팀은 유산의 등재신청과 장기적인 보호, 보존 관리 측면에서 지역, 국가, 국제적 차

원의 지원을 장려하는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정 경우에 등재신청과 관련된 업무만 담당할 핵심팀과 신청업무를 지원하는 큰 규모의 보조팀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는 훌륭한 팀장과 팀원이 필요하며,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고 이정표에 따라 분명하고 현실적인 업무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등재전담팀 내에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과학팀을 구성하는 것도 유용하다.

많은 유적지의 경우 등재신청 과정을 통해 팀으로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 맞이하게 된다. 이는 국립공원, 도시 지역, 문화 경관, 고고학적 유산이나 기념비 같은 자연 및 문화유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등재신청 과정에서 해당 유산은 과학, 역사, 고고학, 조경, 보존, 관리, 사회 구조, 여행지, 계획, 사업, 개발 및 규제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될 필요가 있다. 이런 각 관점들이 등재신청 과정에서 잘 조화를 이루고, 보호, 보존, 관리 과정에서 역시 잘 통합된다면 이러한 관점을 대변하는 다양한 당사자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등재신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이나 팀 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봉된 CD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예는 얼마든지 있다.

키포인트: 제대로 구성된 팀은 등재신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등재전담팀을 구성 시 아래와 같은 좋은 방법이 있다.

- 주요 지지자와 이해당사자의 명단을 작성하라(예 유적지 소유인/관리인, 국가, 국립 유산 관리 기관, 지역 정부, 지역 구성원, 지역주민, 관광 경영자, 대학, 전문가 등).
- 팀 내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유산의 가치를 조망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국제적 차원에서 유산을 이해하며, 폭넓은 의견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면 더욱 이상적이다.
-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팀 구성을 유연하게 하라.
- 등재신청만을 위한 소규모 핵심 팀과 신청업무를 지원할 대규모 보조팀을 구성해보라.
- 팀을 제대로 이끌 팀장과 적당한 팀원을 확보했는지, 업무 집중력이 높은지 이정표에 따라 분명하고 현실적인 업무계획을 짜는지 확인하라.

'현실적인' 업무 계획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급히 등재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며,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체크리스트: 등재전담팀이 갖춰야 할 몇 가지 주요 능력

- 세계유산협약이나 운영지침에 대한 이해 및 정보 해독력
- 유사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목록 상의 다른 유산들에 대한 이해력 및 조사 능력과 세계유산위원회 및 위원회 조문기관의 과거 기록 및 결정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해당 유산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가치를 이해하고 취합할 수 있는 능력
- 과학자, 전문가, 지역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 세계적으로 유사한 가치를 지닌 다른 유산들의 가치를 조사, 이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유산의 최우선 가치를 규정하는 데 있어 사실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확실하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
- 진술이 정확하고 잘 뒷받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산에 부여된 가치 및 해석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 세계유산협약에 다양한 언어가 통용되므로 등재신청서를 번역하고 정보 및 주장의 질과 정확성을 확인해줄 기술적 역량을 갖춘 전문 번역사
- 등재신청을 유산관리와 연계시키고 등재신청을 진행할 관리 계획 및 시스템을 반영하기 위한 핵심팀의 관리 계획 및 이행 능력

2.2.2. 재원

등재전담팀과 등재신청 과정은 업무를 지원해 줄 적당한 자원 및 자금이 필요하다. 이 과정 초기에 자원 및 자금의 수준을 예측해야 하고 재원 출처를 정확히 규명하고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자금 원천은 아마도 국가적 지원일 것이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유산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유산기금에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whc.unesco.org/en/funding 혹은 whc.unesco.org/fr/fonds 참조). 점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가 많이 출범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세계유산기금(www.Awhf.net)이나 퍼시픽세계유산기금(Pacific World Heritage Fund)과 같은 지역기금도 활용해 볼 만하다.

일부 등재신청 과정에서는 자금 및 필요한 기술력 확보 면에서 비정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기도 하다.

2.2.3. 등재 이후 팀의 역할

등재신청이 수락되고 이어 유산이 등재된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본 매뉴얼이 유산 등재신청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팀은 등재된 유산의 장기적인 보호 및 보존, 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하여 등재전담팀은 개편을 거쳐 등재 이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제대로 지원받고 보다 넓은 사회 및 정부 구조와 융화된다면 장기적으로 계승해 나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원 메커니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등재신청 과정에서 이를 규명하고 확립해야 한다. 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산에 대한 보호, 보존 및 관리를 시도하는 것도 이러한 메커니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2.3 지역 주민과 기타 이해당사자의 참여

운영지침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전반적인 세계유산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유산 등재신청 과정에 참여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있다. 참여자로는 유산 소유자, 유적지 관리인, 지방 정부, 지역 공동체, 비영리단체 및 여타 이익 단체가 망라된다.

공동의 참여라는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등재 신청한 유산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해당 유산의 앞날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배가할 필요성도 이유에 포함된다.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노력 없이는 유산에 대한 성공적인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등재신청 과정의 시작단계 및 준비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당사자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의 참여는 유산이 등재된 후에도 유산 관리의 일환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2.4 등재신청 준비의 단계별 접근 및 주요 단계

대부분의 경우 등재신청은 잠정목록 준비 이후 시간이 다소 흐른 뒤 두 번째 단계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첫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유산의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규명한다.
- 비교분석을 통해 유산의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보호, 보존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등재전담반을 구성하여 제3부에 명시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키포인트: 등재신청을 단계별로 준비한다.

첫 번째 단계가 잘 마무리되면 두 번째 단계인 등재신청서 작성 업무로 들어간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제4부에 기술된 업무와 관련 있다.

업무가 단일 프로젝트로 수행된다 하더라도 작업을 2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규명되기 전에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다보면 초점이 유산에 대한 묘사나 역사에 지나치게 치우칠 수 있으며 유산이 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지, 그 유산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 등 등재 이유의 핵심 부분에 대한 강조가 미약할 수 있다.

등재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접근하면 두 단계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활용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제3부 유산에 대한 정의와 이해

유산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은 등재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안이다. 3부에서는 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특히 등재신청에 있어 핵심이 되는 중요한 측면과 이와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3.1. 유산에 대한 정의: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 속성, 범위

3.1.1 유산에 관한 지식

2.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재신청에 대한 예비 단계로 기존의 정보 및 문서를 수집하고 심화 작업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연구자료-유산 등재신청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보충 자료가 더 필요한가?
- 보존자료-유산을 기록한 보존자료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를 완성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한가?
- 기록자료-문서기록이란 등재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많은 종류의 정보를 언급하는 것이다. 등재신청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3.1.2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 정의 및 규명

등재신청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어떤 유산이 무슨 근거로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유산이 잠정목록(운영지침 2장 C항 참조)에 포함되었을 때 등재신청서 작성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등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 업무로써 세부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세부 작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유산의 가치 및 유산에 적용될 수 있는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을 이해한다.
- 전 세계 유산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세계 각지의 유산이나 이미 등재된 유산들과 해당 유산을 비교하여 해당 유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 등재의 근간이 되는 기준을 선택하고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을 작성 한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는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편입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는 세계유산협약 전체를 떠받드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는 유산이 단순히 국내적, 지역적 가치를 넘어 국제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근거로서 세계유산위원회가 공인하는 가치다.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그런 가치를 발현하는 유산의 속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유산 및 유산의 상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사실,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구축되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등재신청 작업의 다른 측면을 전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속성들의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유산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
-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수반하는 유산의 속성을 보호, 보존, 관리, 재현, 장려하는 것과 관련된 작업

키포인트: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다.

유산의 가치를 정의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방법론을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지식과 방법론이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도움이 되는 근간이 되는 기틀을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한 유산의 모든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초기에 이런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유용하다.

가치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등재신청관 관련된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문(기

술문은 아래 따로 논의된다)의 일부로서 비교적 짧은 문서로 기술해야 한다. 정의는 간결한 문장으로 쓰며, 반드시 개별 섹션으로 나눌 필요는 없고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 유산과 유산의 구성 요소 환기하기. 유산의 가치를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단어 그림을 제공하거나, 유산의 특성을 제시하고,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 유산과 연관된 의미나 '이야기'를 기술한다.
- 어떤 근거로 해당 유산이 잠재적으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이유를 작성한다.
- 잠재적으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수반하는 유산의 속성을 요약한다.

따라서 가치에 대한 정의는 등재신청 및 향후 등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적 근거를 요약하는 것이다.

모든 신청 과정이 끝나고 향후 유산이 등재되면 유네스코는 이 짧은 요약문을 세계유산센터 웹페이지에 올려 유산의 속성과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유용한 문화적 연구로는 주제 분석, 연대기-지역 연구, 지형적 연구가 있고, 이는 '세계유산목록: 간극 메우기-미래를 위한 행동계획(ICOMOS 2005)'에 잘 나타나 있다. 자연유산의 경우 '세계유산목록: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규명하기 위한 지침 및 향후 고려사항(IUCN 2006)'을 참고한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가 보편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명되면, 유산의 가치를 탐구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주제연구가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키포인트: 사실은 설득력 있는 논지로 뒷받침 돼야 한다.

문화유산의 의미와 상대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주제 선정부터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연대기-지역 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유산을 기념물로 신청할 것인지, 건조물군 혹은 유적지로 신청할 것인지 유형을 정의한다.

문화적 가치 평가와 더불어 뛰어난 보편적 가치는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검증단계도 거쳐야 한다. 이런 평가요소들은 아래에서 따로 논의된다.

등재신청 과정에서 실패하는 주된 원인은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주요 실패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유산의 중요성을 정의하거나, 문화유산의 경우 서사하는데 있어, 자유나 추억을 이야기

하는 등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거나, 특정 병원, 특정 성곽, 특정 지역 현상, 특정 종에 대한 가치를 기술하는 등 그 가치를 너무 좁게 정의해 합리적인 균형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 유산의 전체적인 중요성을 기술하지 않고 유산의 특성만 진부하게 나열하면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라고 역설하는 경우
- 국가적, 지역적 이익에 국한된 중요성이나 국가적, 지역적 상징이라는 측면만 강조하며 유산이 등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 가지 이상 충족시킨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대신 그저 ‘문화의 접경지대’나 ‘독특한 지역’이라는 일반론만 되풀이하는 경우
- 문화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데 있어 석기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등재에 분명 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경우
- 국제적, 지역 문화적 틀 안에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림)

뛰어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유산은 완전성,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정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산의 보호 및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 그림은 세계유산협약에서 명시한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세 가지 기본 기준을 묘사하고 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유산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유산의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등재신청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그밖에도 유산은 다양한 지역적, 국가적 가치를 지닐 것이다. 이런 다른 가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런 가치들은 유산의 문화적, 자연적 자양분이며, 이 모든 가치를 조화롭게 보호하고 보존하며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유산 보호 관리의 목표이다. 유산의 지역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산이 보존된 지역의 주민들, 특히 토착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야말로 지역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공급하는 소중한 원천이다. 이에 대한 유용한 참고자료로는 학술서 세계유산 13호 ‘보편적 지역적 가치: 세계 유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 관리(Linking Universal and Local Values: Managing a Sustainable Future for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Papers 13)’가 있다.

사례연구: 문화적 가치의 여러 층위

로벤섬(남아프리카공화국)

로벤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기준(iii): 로벤섬 건축물들은 암울한 역사를 뚜렷이 대변하는 산증인이다.

기준(vi): 로벤섬과 이 섬에 위치한 감옥건물은 압제에 맞선 인간의 정신력,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대에 따라 섬의 용도가 변했기 때문에 섬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를 다루어야 한다는 난제가 있었다. 유산은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 네덜란드 선원을 위한 휴게 공간
- 19 세기에 나병환자 및 만성 질병 환자들을 위한 격리병동
- 식민전쟁 기간 동안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흑인추장을 감금하는 감옥
- 세계 2차 대전 동안 군 기지
- 1960년대 이후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이들의 유배지

3.1.3 속성 규명과 도표화

세계유산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고 묘사하는 장소다.

문화적 가치는 사회 구조, 경제적 필요, 정치적 맥락, 공간, 시간과 같은 무형적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 문화적 가치는 또한 유명한 사건, 유명 인사, 예술작품, 문학, 과학, 음악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협약은 유형유산을 기본으로 한 협약이다. 즉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적지나 유물에 관한 협약으로, 사상이나 인물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물을 다룬다. 등재된 유산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유산의 속성에 응축돼 있어야 한다.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의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이끄는 속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속성에 초점을 맞춰 유산의 보호 및 관리도 이루어질 것이며, 제도적 장치 및 유산의 배치 방향에 따라 유산의 범위가 드러날 것이다.

유산의 속성은 외적인 특성이나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독특한 풍경을 형성하는 풍화 과정, 농경 과정, 사회적 배치, 문화적 관행과 같은 외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유산과 관련된 과정일 수 있다.

복합유산이나 복합적 속성을 지닌 유산에 대한 유용한 기술적 접근 방법은 중요한 속성과 그 속성이 지닌 가치를 도표화하는 것이다. 이런 도표제작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속성들 간의 관계정립을 용이하게 하며, 유산을 둘러싼 분쟁 및 관리 문제를 조명할 뿐만 아니라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도 필요하다.

유산 연장에 관해서 원래 등재 신청한 유산의 속성을 우선 조사하고, 뛰어난 보편적 가치는 계속 유지하되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속성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확장되고, 보충되며, 확대될 수 있는지도 고려한다.

3.1.4 세계유산 기준에 의거해 유산의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 확인 및 적당한 기준 규명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는 과정의 진수는 세계유산 기준(본 매뉴얼 1.3에 수록)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것이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과 선택된 기준 사이에는 분명하고 논리적인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 이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선택된 기준이 유산의 가치를 입증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재고가 필요할 수 있다.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하면 유산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등재신청의 성공도 장담하기 어렵다.

키포인트: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준만 사용하라.

비록 기준(vi)의 경우에 한해 세계유산위원회는 다른 기준도 함께 충족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기준 대부분의 경우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단지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많은 기준을 내세워봤자 이러한 기준이 구체적 가치 및 속성에 관련된 연구 및 자료에 의해 확실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유산을 등재시키는데 많은 기준을 내세울 필요도 이점도 없다. 게다가 많은 기준을 사용하면 유산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조사와 비교연구가 필요하고, 등재신청의 범위 및 다른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등재신청서는 단순히 선택된 기준을 만족한다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며 유산이 왜 다른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등재신청서에는 잠재적인 뛰

어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특성 및 속성이 규명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준(ii)를 선택했다면, 해당 유산이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치 교환이 무엇이며, 해당 유산의 속성을 통해 가치교환이 어떻게 인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준(iii)을 선택했다면 해당 유산이 독특하거나 예외적인 증언에 속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이러한 증언을 수반하는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역시 필요하다.

기준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 가치교환이나 예외적인 증언 같은 사상적 중요성 여부뿐만 아니라 유산이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준(vii)도 마찬가지로 수려한 자연경관 및 미적인 중요성이라는 주장 역시 명백한 증거와 치밀한 지적 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단순히 유산이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고 주장하거나 잘 나온 사진 몇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준(ix)이 요구하는 '중대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진행 과정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예' 역시 전 세계적인 과학적/의미적 맥락에서 제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맥락이 분명해야 하고 유산이 왜 이런 맥락에서 대표적인 예가 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유산의 연장과 관련해서 기준의 평가는 원래 유산을 등재 신청했을 때 사용했던 기준과 연 관해서 평가를 수행한다. 처음 신청했을 때 입증했던 기준과 같은 기준을 연장 시에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적 짧은 기간 연장에 그친 경우, 그 원인은 아마도 원래 등재신청 시 제시한 속성들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막강한 파급력을 갖고 있지만, 연장 신청 과정에서 그러한 속성의 일부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누락했는지도 모른다. 예정된 연장 기간 내에 새로 다른 속성들이 규명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속성들은 이미 뛰어나다고 인정한 것과 동일한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기간 연장은 일반적으로 원래 등재 신청한 유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당사국은 등재 연장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원래 유산과 그 유산의 확장에 필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등재 신청서는 전체 유산을 아울러야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족한다는 충분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3.1.5 진정성 평가

운영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여타 중요한 두 가지 등재 기준으로는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있다. 진정성은 문화유산과 복합유산의 문화적 속성에만 적용된다.

진정성은 유산의 속성과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 간의 연결성과 관계있다. 이와 같은 연결성이 사실 그대로 표현되어야만 그러한 속성들이 유산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할 수 있다.

1994년 일본 나라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이들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유산은 (등재신청 기준에서 인정되었듯이) 그들의 문화적 가치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 되고 믿을만하게 표출된다면 진정성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82항).”

운영지침은 다음 속성을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한다.

- 형태 및 디자인
- 재료 및 내용물
- 사용 및 기능
- 전통, 기술, 관리 체계
- 위치 및 주변 환경
-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무형 유산
- 정신 및 감정

다음은 이러한 속성들이 우간다 카스비 지역의 부간다족 왕릉(Tombs of Buganda Kings)에 어떻게 잘 표출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형태 및 디자인	카스비 왕릉 유적지의 공간 구성은 바간다 왕릉/건축적 조합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음
재료 및 내용물	주건물(Muzibu Azaala Mpanga) 내부의 4개의 왕릉과 목재, 이엉, 갈대, 윗가지, 도료 등 재료 사용
사용 및 기능	종교적 사용--바간다의 정신적 지주 역할, 부간다 왕실 내에서 가장 종교적 장소로 사용
전통, 기술, 관리 체계	전통적인 관리-복잡한 책무체제를 통해 전통적 방법으로 유적지 관리 지속
위치 및 주변 환경	유적의 원위치 및 보존된 시골 환경-전통적 방법으로 경작해온 농경지 포함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무형 유산	종교적 사용-바간다족을 위한 주요 정신적 중심지와 왕실 내의 가장 종교적인 장소로 사용, 부간다 문명과 관련된 카바카 왕족과 그의 대표들이 중요한 의례를 수행하는 곳

정신 및 감정	카스비 왕릉 유적지의 인공 및 자연 요소는 역사적, 전통적, 영적 가치를 담고 있음
---------	--

건축물, 설계도와 같은 유형적 속성과 문화적 과정과 같은 무형적 속성을 잘 조합하고 있다. 각 유산에 잠재적으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매체로 규명된 속성들은 보편적 가치를 '진실하게' 전달하고 표현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시 지역의 경우 유산이 위치한 지역에 사는 현 주민들의 전통, 사회 경제 문화적 구조를 포함하여, 건축 및 공간 설계를 살펴보고 이런 요소들이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성은 유산의 속성이 잠재적으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족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거나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전통이 사라졌다거나 하는 유산의 속성이 미약할 경우 진정성은 훼손될 수 있다.

고고학유적의 경우 진정성은 고고학적인 유물이 그들의 의미를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판단된다. 많은 경우 추측에 의존해 유물을 재건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방해하고 진정성을 저해할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건물이나 구조물의 재건이 어떤 환경에는 허용될 수 있는 반면 의미를 진정으로 전달하는 능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진정성에 대한 기술에는 유산 속성의 진정한 가치 전달 방법을 통해 유산이 그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할 능력을 구축한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일부 질문들이 다음 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속성들과 질문은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유산의 속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채택해야 한다. 질문은 평가의 틀을 잘 구축해야 한다. 다음 도표를 표준 해결책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등재신청 과정에 있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속성	평가 문제점 예
모든 속성에 해당하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이 포함된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진정성이 판단되어야만 한다고 할 때 문화적 환경이란 무엇인가? 유산의 속성이 진정으로 진실되게 유산의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가? 유산의 속성이 그 가치를 신뢰할 만큼 솔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유산의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가? 가치는 어느 정도까지 속성에 의해 드러나거나 표현되는가? 유산에 내포된 문화유산의 원래 속성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화적 속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 속성의 변화가 유산 가치를 이해할 능력을 축소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 재건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 재건이 이루어진 경우 재건은 완전하고 세부적인 보존 기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나? 재건 과정에서 특정 관독 방법이 사용되었는가?
형태 및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 및 디자인에 변경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변화 정도는? 때로 변화가 가치의 일환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형태 및 디자인이 모든 점에서 정확한가?
재료 및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 구조, 물질이 변하거나 대체되었는가? 그렇다면 변경 정도는? 해당 문화에 전통 소재를 사용하여 복구가 이루어졌는가?
사용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의 사용 및 기능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유산의 사용 및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했는가? 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산의 사용 및 기능의 강도가 변했는가? 유산의 사용 및 기능을 지지하는 사회 메커니즘이 얼마나 견고한가?
전통, 기술, 관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기술, 관리 체계와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 전통, 기술, 관리 체계를 지지하는 사회 메커니즘이 얼마나 견고한가? 전통, 기술, 관리 체계가 변했거나 변화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통, 기술, 관리 체계의 강도가 변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문화에 전통 소재를 사용하여 복구가 이루어졌는가?
위치 및 주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및 주변 환경이 변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변화 정도는 어떠한가? <p>참고: 이러한 속성을 평가하려면 유산과 적절한 주변 환경과의 경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유산의 범주를 정의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p>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무형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해당 무형 유산의 관리자는 누구인가? 해당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무형 유산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했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무형 유산의 사용 정도가 감소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무형 유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존속 상태는 어떠한가? 그들의 존속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정신 및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 및 감정이 귀속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정신 및 감정이 지속되는가? 아니면 변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신 및 감정의 숭배 정도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가? 정신 및 감정의 숭배를 지지하는 사회 메커니즘이 얼마나 견고한가?

	<p>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 및 감정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존속 상태는 어떠한가?
--	--

등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유산의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관련이 없는 속성을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사례연구: 문화유산에 있어서 진정성과 완전성

오만의 아플라지 관개시설 유적지(오만)

아플라지 관개시설은 오만에서 약 3000년 동안이나 관개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왔다. 고대 토목기술이 오랫동안 유효한 형태로 존속해 현재까지 오만 극서지역의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야자수를 경작하고 다른 농산물에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과거 지역주민들은 전적으로 이 관개시설에 의존하였으며, 상호 의존과 공동의 가치라는 정신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원을 관리, 공유해 왔다.

초기에는 아플라지 관개시설의 일부, 즉 모천에서 샤리아까지만 등재되었다. 그러나 해당 관개시설이 요리, 세면, 농경을 위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정착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켜줌에 따라 등재신청에 추가되었고, 이제 이 일대 전체가 아플라지 관개 시설의 완전성을 대변하고 있다.

나라 역사 기념물(일본)

일본 나라 역사 기념물에 보존된 다양한 유산들은 진정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 일본 정부는 훼손되거나 부식된 건축물의 건축적 요소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원래 건축가가 사용했던 기술과 재료를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나라 왕실 유적지 재건축 현장 공사가 몇 차례 실시된 적이 있었다. 일본의 전통 건축의 지속성과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 복구된 상당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재건된 건축물들은 디자인과 재질에 있어서 상당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정원 재건에도 이와 같은 평가가 적용되었다. 추측을 바탕으로 재건축이 착수된 경우는 수자쿠(남문) 재건이 유일하다. 건물의 건축적, 장식적 요소의 세세한 부분을 재건함에 있어 상당 부분 고고학적 증거와 동시대 다른 곳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나타난 세부사항을 바탕으로 삼아 작업했다.

3.1.6 완전성 평가

완전성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모두에 요구되는 사안이다.

완전성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수반하는 속성의 완전무결함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유산의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유산의 완전성 고려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운영지침은 유산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어느 정도로 구비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a)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혹은 속성)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b)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유산의 특성과 과정의 완벽한 재현을 확인할 만큼 크기가 충분한지 여부
- c) 유산이 개발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88항)

핵심 단어는 '총체성' '완결성' '위해요소 부재'다.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은 아래 잘 제시되어 있다.

- 총체성=유산 안에 필수불가결한 모든 속성
- 완결성=현존하는 필수불가결한 모든 속성-그 어떤 것도 소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부식되어서는 안 된다.
- 위해요소 부재=유산의 속성 중 그 어떤 것도 발전, 퇴보, 혹은 소홀에 의해 위협받아서 안 된다.

운영지침은 이해를 돕는 다양한 세계유산 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89-95항).

완전성에 대한 기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필요하다. 즉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수반하는 특성, 과정 및 속성을 유산의 범위 안에 포함시킨 방법, 이러한 속성들의 가치 훼손이 문제가 될 정도로 상당하지는 않다는 사실, 관련된 특색 및 속성이 현존하지 않는 부분, 유산이 만족할만한 보존 상태를 보이고 그 가치가 위협받지 않다는 사실들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등재신청을 하려는 부분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선택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관련 없는 유산의 속성들의 보존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신청 시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유산 혹은 고려 대상인 가치와 무관한 다른 완전성의 개념들을 도입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구조적 완전성 혹은 시각적

완전성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완전성 평가에 있어서 유용한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수반하는 유산의 주요 특성 및 속성이 완전무결한가?
- 유산은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 유산이 그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성 및 과정을 완전히 제시한다고 확신할 만큼 크기가 충분한가?
- 유산의 주요 특성 및 속성의 기준은 무엇이며 이러한 특성 및 속성이 좋은 상태로 잘 보존되고 있는가?
- 조경, 역사도시 혹은 다른 생활 문화유산의 경우 그동안 지속되어온 그들의 독특한 특성 보존에 필수적인 과정, 관계, 동적 기능이 건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 자연유산의 경우, 지형 및 거주지와 같은 물리적 특색 보존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 관계 동적 기능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적절한 규모로 운영되는가?
- 유산이 개발, 관리 소홀, 여타 다른 저해 과정으로부터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상태 저하를 일으키는 과정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 중 일부는 유산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 만약 필수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유산의 크기가 적절치 않다면 유산의 범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나 소유자의 재량에 맡겨 유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편리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유산의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있어서는 꼭 적합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행정적 편의라는 잣대로 잠정목록에 있는 유산의 범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키포인트: 완전성과 진정성은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다른 측면이다.

유산이 더 넓은 경관과 정주지, 지형 및 문화 체제를 대변해야 완전성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산의 범위가 지닌 중요한 역할은 바로 유산이 속한 광활한 지역과 차별되는 유산의 고유성과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복합적 경관, 가치, 과정을 지닌 유산의 경우 유산의 범위라고 논리적으로 판단되는 지점을 보여주도록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수반하는 속성을 도표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산의 범위가 그 모든 가치를 충분히 아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써 완전성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경우 유산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유산의 다른 가치들과 양립할 수 있다면 인간의 유산 사용은 허용되며 세계유산목록과도 양립이 가능하다. 등재신청서 내에 유산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인간 혹은 다른 작용으로 인해 유산이 영향을 받았다면 그 부분을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의 각 요소들이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 유산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부적합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연속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3.1.7 비교분석

비교분석의 목적은 잠재목록의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편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계유산목록에 해당 유산을 편입할만한 여지가 있는지, 문화유산의 경우 같은 지리문화권 내에 해당 유산에 필적할만한 다른 유산이 있는지, 자연유산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해당 유산과 유사하면서 향후 등재가능성이 높은 유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리문화권은 유산이 표현하는 가치에 따라 다양하며, 지역 기준 또는 전 세계적 차원으로 한정할 수 있다.

비교분석의 출발점은 우선 해당 유산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그것과 연관된 유산의 특성 및 속성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산이 지닌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비교 대상은 등재 신청한 유산과 동등한 가치를 표현하는 유산이며, 문화유산의 경우 특정 지리문화권 내에서, 자연유산의 경우 전 세계를 범위로 비교 대상을 찾아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선 유산의 가치가 명시되어야 하며 문화유산의 경우 지리문화권 역시 이러한 가치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

자연 유산의 경우 비교 분석의 범위는 전 세계이며, 따라서 특정 유산이 속한 지역 내의 유산뿐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동종 유산과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사막은 아프리카 다른 지역의 사막과만 비교되어서는 안 되고 전 세계 다른 지역의 사막들과 비교되어야 한다.

우선 할 일은 해당 유산의 가치나 속성이 세계유산목록에 이미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잠정등재목록의 유산을 이미 등재된 유사한 유산들과 비교하면 된다. 비교를 마친 후에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시간에 따른 세계유산 기준 변화

2005년 이전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라는 두 가지 개별 기준(i-vi, 1.3 참조)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기준이 확립되었다. 2005년 이후 운영지침 수정안을 채택한 결과 현재 10가지 통합 기준이 마련되었다. 기준 체계의 신·구 번호 및 순서는 아래 표에 잘 나타나 있다.

	문화유산 기준						자연유산 기준			
운영지침 2002	(i)	(ii)	(iii)	(iv)	(v)	(vi)	(i)	(ii)	(iii)	(iv)
운영지침 2008	(i)	(ii)	(iii)	(iv)	(v)	(vi)	(viii)	(ix)	(vii)	(x)

기존의 자연유산 기준 4가지의 순서가 새로운 목록에서는 변경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자연유산 기준(iii)은 이제 기존의 다른 자연유산 기준(i, ii, iv)보다 선행한다. 특히 1992년에 중요한 수정안이 작성된 이래 기준에 대한 정확한 용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 이 시간 전후에 등재된 유산들을 비교할 때에는 변경된 기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등재 신청한 유산과 유사한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교분석의 목표는 유산의 독자성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유산이 규명된 맥락에서 담고 있는 가치를 얼마나 잘 대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다음 할 일은 같은 국가, 같은 지역이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 동종 유산이 향후 잠정등재목록에 오를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등재 신청한 유산은 선택된 가치 및 속성을 기준으로 다른 유명한 유산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유산들과 어떻게 비교할지, 왜 비교해야 하는지 동종 유산이 있을 경우 등재 신청한 유산이 동종 유산 가운데 과연 그러한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지, 향후 다른 유산이 일련의 후보군으로 이에 합류하게 될지에 관한 결론을 내야 한다.

단순히 지형에 따른 비교 및 유산의 해당 요소를 동종 유산의 다른 요소와 비교하는 것은 제시된 가치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해 보인다.

진정성 및 완전성은 비교분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비교할만한 유산 중 일부는 진정성과 완전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교분석 마지막 과정에서 해당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이나 같은 지리문화권(문화유산의 경우) 혹은 전 세계(자연유산의 경우)내의 유사한 군에 포함시켜 볼 수 있어야 한다.

비교 대상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곳을 통해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 세계유산목록
- 등재신청서, 자문기구 평가서, 이미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동종 유산들에 대해 세계유

산위원회가 과거에 내린 결정

- 세계유산목록 등재 과정에서 탈락된 유산들의 정보 또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장함에 있어 기대되는 핵심 사안은 무엇이고 통과하기 위해 갖춰야 할 수위는 어떠한지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같은 국가 및 다른 국가들의 잠정등재목록
- 문화유산의 경우 "세계유산목록: 간극 메우기-미래를 위한 행동계획(ICOMOS 2005)"
- "세계유산목록. 뛰어난 보편적 가치란? 세계문화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 규명" (Jokilehto 2008) XXX IUCN호
- IUCN 및 ICOMOS 주제연구
-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보호지역에 관한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www.wdpa.org)
- 다른 전문 기관에서 준비한 보존자료(Docomomo, TICCIH)
- 관련 국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여타 연구 보고서 및 문헌

위에서 언급한 많은 정보들은 1.1에 있는 다양한 웹페이지 참고자료로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유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비교분석을 준비하거나 감수 과정에서 국내외 최고 전문가를 활용하면 등재신청 과정에서 값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은 비교분석 초창기에 받을수록 유용하다. 원칙적으로 향후 등재신청을 함에 있어 우위를 다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약 당사국의 잠정목록에 있는 유적지들 가운데 비교대상을 고려하고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비교분석에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가를 활용한 예

특히 자연유산의 경우 비교분석을 수행하는데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것이 선호되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아래 잘 요약되어 있다.

1. 새로운 등재신청의 대상이 될 유산은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로 분명하게 분류되어야 한다.
 - 유산이 표명하는 주제, 지리문화권, 생물지리학 분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분류는 세계유산목록 및 IUCN과 ICOMOS에서 마련한 세계유산잠정목록 분석에서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습지, 사막, 연안 및 해양, 암각, 교량, 조경 등의 분류 체계가 있다.
 - 구체적인 세계유산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는 문화유산의 경우 지리문화권, 자연유산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지명된 유산의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당사국은 신청한 유산이 속한 주제, 지리문화권, 생

물지리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소집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은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되거나, 이상적으로 전체 분석 과정을 전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자문기구가 국제 전문가에 관해 조언해줄 수 있다. 여기에는 초반에 정의된 유산 가치 및 합의 사항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포함되며, 관련 지역 및 국가가 아닌 외부 국제적 시각을 갖춘 전문가가 영입된다면 더욱 이상적일 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회담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통신이나 이메일을 통해 얻을 수 있다.

3. 전문가 집단은 비교연구의 근간을 제공할 유산의 범위를 규명해야 한다. 이 명단에 선택한 정보의 중요한 소스는 위에서 명시되었다.

4. 전문가 집단은 잠정목록의 유산이 비교우위를 갖는지 평가하기 위해 해당 유산과 비교연구 대상이 되는 동종유산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 정보 수집 및 비교연구를 위해 유산이 잠정 등재되는데 도움이 되는 기준을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비교연구는 분석에 기반을 둔 정보의 출처만 분명히 명시한다면 자료의 분량이 반드시 길고 내용도 장황할 필요가 없다. 제대로 작성된 표를 통해서도 분석이 잘 드러날 수 있다. 운영 지침은 비교분석 대상인 다른 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비교 논의와 분명 관련이 있다. 비록 중요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해도 상태가 좋지 않거나 보호 및 관리가 적절하지 못한 유산의 경우 상태가 좋거나 높은 수준의 보호 및 관리를 받은 다른 유산들과 비교해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장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5. 전문가 집단은 등재 신청한 유산에 관한 결론(아래의 결론에 관한 논의 참조)을 포함하여 연구 및 논의에 기초하여 최종 비교연구를 준비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제 연구, 연대기적-지역적 연구, 지형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의 기틀이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비교 가능한 유산은 그런 연구 기틀의 일부가 될 것이다.

비교연구의 바탕이 될 정보나 연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정보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이러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여타 명성 있는 관련 전문가나 기관에 연구를 촉구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 전문가나 기관이 등재과정에 독립적이면서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갖춘다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키포인트: 국제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검토 분석한 자료를 확보한다.

언어가 달라 타국에서 비교연구 자료를 접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

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교분석과 상당부분 관련된 정보 체계가 단순히 언어장벽이란 이유로 무시된다는 것은 지적 측면이나 실용적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다.

비교분석은 유산의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는 핵심부이며, 그런 가치를 규명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

비교분석은 반드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비교분석은 등재신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한다. 비교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른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 해당 유산은 동종 유산과 비교분석한 결과 비교우위에 있으며, 세계유산목록에서 누락된 중요한 부분을 채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당사국은 곧바로 유산의 등재신청에 착수해야 한다.
- 해당 유산은 동종 유산과 비교분석한 결과 비교열위에 있으며 세계유산목록에 다양성을 채우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해당 유산의 등재신청을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 해당 유산은 동종 유산과 비교분석한 결과 중요도가 비슷하다. 따라서 해당 유산이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주장일 수도 있고, 겨우 수용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뛰어난 수준의 유적지 수 자체가 적다면 해당 유산을 다른 유산과 묶어 연속유산이나 국경을 초월해 공동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음을 암시한다.

연장에 관해서는 원래 등재신청서에 수록했던 비교분석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연장이 원래 등재신청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원래 등재 신청한 유산의 가치가 향후 연장 제안에 어떻게 명시되는가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교연구 준비에 있어서 고려될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분석은 가능한 정밀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비교 범위를 늘 지리문화권,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유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산이다'와 같은 진술처럼 분석의 객관성을 왜곡할 수 있는 국가적 자부심과 같은 사항은 보류해야 한다.
- 국내·외에서 가장 믿을만한 과학적 정보를 활용해 연구를 뒷받침해야 한다. 미출간된 보고서나 관리 장부처럼 출처가 불명확한 문헌은 기사나 출판물의 사본이 등재신청서에 참고 문헌으로 제출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 주제연구는 유산들의 존재 위치에 대한 언급이 명시되어야 하며 전체 분석을 전개하는데 있어 배경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관련 주제 연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 자연유산의 보존 우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 국제적 평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며, 해당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보존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가 지정한 '생물학적 다양성 위험지역', 세계자연보호기

금(WWF)이 지정한 '글로벌 200 생태지역'이 유용한 정보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반드시 해당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해 규명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분석을 준비하는 목적이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해당 유산이 국제적 수준에서 얼마나 독특한지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 평가 지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교분석의 일차 원고가 마무리 된 후에는 이에 대한 추가 정보 및 피드백을 얻고 연구 결과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외 다른 유수의 전문가와 일차 원고를 공유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자문기구는 해당국의 요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원고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상호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들을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적절치 못한 비교분석은 등재신청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며 등재 성공률을 낮출 수 있다. 일반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분석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 지리문화권(문화유산) 혹은 전 세계적(자연유산) 범위로 확대해서 비교 대상을 찾으려는 노력이 미진한 경우
- 비교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단순히 세계유산목록과 잠정목록만 참조하는 경우
- 해당 유산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확연히 중요도가 낮은 유산과만 비교하는 경우
- 등재신청 유산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잠정유산과 비교하는 경우
-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구체적으로 연관된 유산의 속성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기 보다 이런 가치와 무관한 속성이나 유산의 덜 중요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비교분석의 결과가 정밀하지 않고 신뢰성이 부족하다면 유산 등재 목표도 재고해야 한다.

사례연구: 신청 당사국이 주관한 상세한 주제 연구 준비 과정

주제연구는 비교연구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주제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는 본 매뉴얼 1.1 절을 참고하면 된다.

ICOMOS가 주제연구를 준비하지만 신청 당사국도 특정 유산의 등재신청에 도움이 될 만한 보다 철저하고 상세한 주제연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다음이 있다.

- 지중해 주변의 목축환경에 관한 주제연구는 프랑스 주도로 진행되었고 다른 국가들과 연계하여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 이태리 피에드몽과 롬바르디 지방의 영산- 해당 유산 등재 당시 포괄적 주제연구가 마련되었다.
- 영국의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는 주제연구에 효과적인 비교연구를 포함하고 있다(아래 참조).

- 모리셔스의 르몽 문화경관의 경우 등재신청에서 노예제도 저항에 관련된 주제연구를 포함시켰다
- 멕시코 산미겔 보존지구와 아토토닐코의 나사렛 예수 교회 등재신청 시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의 식민지타운에 대한 효과적인 주제연구 자료로 활용될만한 비교분석을 제출하여 지역적인 관련주제 연구의 틀을 제시했다.

사례연구: 리버풀 해양산업도시(영국)

이 유산에 대한 비교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좋은 예가 된다.

- 대영제국의 항구이자 유럽 대량 인구이동의 통로로서 유산 평가에서 필요한 중요한 주제를 기술하고 있다.
- 우선 영국의 다른 항구와 비교하여 크기, 규모, 속성, 항만 운영 기간, 인프라, 항만도시와의 경제관계 등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속성을 다뤘다. 진정성 및 완전성 문제도 이러한 비교의 주요 부분이다.
- 유럽의 다른 항구들과 비교하여 리버풀의 가치를 뒷받침했다. 이 항구들을 비교함에 있어 진정성 및 완전성은 물론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 기존의 세계유산목록 중 구체적으로 항구로 등록된 유적지와 우연히 항구로 편입된 유적지를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비교했다.

등재신청서의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리버풀만큼 무역과 상거래가 집중된 항구는 없으며 리버풀만큼 대영제국, 혹은 다른 제국들의 부와 권력, 야망을 잘 드러내는 항구도 없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항구는 기간 측면에서 리버풀보다 유서 깊은 항구가 많다. 하지만 그 어떤 항구도 리버풀처럼 도시에 담긴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도시전경으로 잘 담아낸 곳은 없다. 18세기에서 19세기, 20세기 초에도 그러했듯이 리버풀은 여전히 다른 항구보다 월등하다. 특히 항만 인프라 시설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역사 도시의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XXX 자연유산 사례연구----미구아사

3.1.8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문 작성

등재신청서 작성에 앞서 논리적이고 치밀한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재신청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술문 작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기술문을 작성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서 문제 있는

유산으로 낙점 받을 수 있고, 향후 등재 신청도 재고해야 할지 모른다.

위에서 언급한 등재신청 과정에 대한 여러 사항은 연관된 세계유산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정의하고 그러한 가치를 수반하는 특성과 속성도 규명해야 한다.
- 유산의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세계유산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 기준이 적절하다면 유산을 연속유산으로 신청할지 여부를 정하고, 유산의 요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정의해야 한다.
- 진정성과 완전성을 평가하고 묘사해야 한다.
- 철저하고 객관적인 비교연구를 완수해야 한다.

키포인트: 등재신청을 위해 필요한 다른 작업을 하기에 앞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의 초고를 확실히 작성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사용해서 제안된 기준이 여진히 유산의 가치를 대변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물론 선택한 기준이 신뢰할만한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으로 뒷받침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을 작성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기술문을 작성하다보면 선택했던 기준을 재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설 수도 있다. 이는 등재신청 진행 과정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조율과정의 일부로 수용해야 한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유산에 관한 간략한 정보
 - 사실 정보 요약(유산의 구성 요소, 지리학적, 역사적 맥락 기술, 150단어 이하)
 - 유산의 특성 요약(가치 및 속성, 150단어 이하)
- 기준(유산의 가치 및 속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및 부합 근거 제시, 각 항목에 대해 200단어 이하)
- XXX 초안 작성/등재된 시점에 (모든 유적지의) 완전성(특정 장소의 모든 것, 혹은 유산의 범위 내 모든 것이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속성 및 특색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200단어 이하)
- 진정성(문화유산의 경우 기준(i)~(vi)에 해당),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속성이 가치를 거짓 없이 반영하는지 기술, 200단어 이하)

-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보호 요건(보호 및 관리 체제와 계획이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분한지 기술)(보호 및 관리 부분은 매뉴얼 후반부에 다시 논의된다)
 - 전반적인 보호·관리 체제(200단어 이하)
 - 구체적인 장기 보호·관리 계획-지속적인 관심을 위해 필요한 주요 이슈(위해요소로부터 보호 방안, 지위 및 금전 지원 유지, 공동체 지지 유지 등, 150단어 이하)

기술문은 총 A4 한 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07년 이전 등재를 위해 제출한 기술문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지침 내용이 다소 다르다. 정보 입수가 가능하다면 완전성과 진정성 요소는 등재 시점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은 훌륭한 등재신청서를 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향후 보호, 보존,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기술문은 정책 결정자, 정치가, 일반 대중에게 유산의 가치 및 속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산의 가치 및 가치를 지닌 속성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 선택한 세계유산 기준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
- 간결성-유산의 가장 중요한 특색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충분한 정도.
-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 독자로 삼고, 가능하면 전문용어나 전문화된 언어를 피한다.

키포인트: 등재신청 과정 전반에 걸쳐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기술한 초고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기술함으로써 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려는 일련의 과정 전반에 걸쳐 유산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가치 기술문은 또한 설명, 정당화, 보존, 보호, 관리, 감사 등 등재신청서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된다.

기술문 초고가 작성된 이후에는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기술문에 대한 그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자문을 구하는 이유는 기술문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구하기 위함이다. 기술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현 시점의 초고 기술문은 보호 및 관리 부문을 제외하고는 최종본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완성도를 갖췄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등재 신청 및 다른 자문에 관한 추가 작업을 통해 유용한 수정을 거칠 수 있다. 이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설득력 있는 기술문 작성을 위한 과

정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연속유산을 새로 신청할 경우 전체 요소를 하나의 유산으로 보고 위에서 언급한 표준 요구 사항을 적용하여 기술문을 작성해야 한다. 연속유산의 각 요소에 대한 유사한 정보를 나열하기보다 가능하면 전체유산과 관련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 낫다. 그렇지만 일부 특정 요소와 관련된 특이 사항 및 구체적인 핵심 정보에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도 언급해야 한다.

유산의 특정 요소를 기존에 등재된 연속유산에 추가하고자 신청할 때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아니면 추가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약간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기술문이 아예 없을 경우 운영지침의 조항(별첨 10-2009 위원회 회의에서 XXX 동의)에 맞춰 기술문을 변경하거나 작성해야한다. 자연유산에 대한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IUCN이 마련한 준비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기술문은 새로운 가치가 아닌 중요한 새로운 속성을 반영해야한다. 해당 가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전에 동의한 것과 동일한 가치여야 한다. 새로운 가치나 다른 가치를 신청할 경우 새로운 등재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한다(166항).

기존에 등재된 유산을 연장할 경우, 원래 유산에 대한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은 새로운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중요한 속성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체 유산을 위해 새로운 기술문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사례연구: 로이 마타 추장 영지(바누아투)

바누아투의 로이 마타 추장 영지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유지되어온 추장 제도를 대변하는 문화조경의 예로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이 유산이 지닌 보편적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역 사람들과 이 지역 환경과의 관계에 반영되는 것으로, 로이 마타 추장의 유물과 추장의 사회 개혁이 남긴 영적, 도덕적 유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추장 영지라는 문화조경은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지속되어온 추장제도와 추장의 권위에 대한 숭배를 조망한다. 이는 400년 이상 보존되어 지역 조경과 사회 관습을 구축하는 데 일조한 로이 마타 추장을 기리고자 그의 영지 및 영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기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유산에는 현재 바누아투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마음에 힘과 영감의 원천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로이 마타 추장의 업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등재기준(iii): 로이 마타 추장 영지는 추장이 과거 권력자들로부터 그들의 권위를 이끌어 낸 방법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문화조경에 해당한다. 특히 로이 마타 추장 영지 및 영묘사용을

금기시한 사실은 이 유산이 400년 넘게 유지되는 데 어떻게 일조했는지, 또 이 명소가 지역 경관과 사회 관습의 틀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등재기준(v): 로이 마타 추장 영지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지속되어온 추장제도와 시간 경과에 따른 이 지역 사람들과 그들 환경과의 관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로이 마타 추장과 연관된 세 곳의 중심 유적지에 보관된 유물 및 그가 추진한 사회 개혁의 영적, 도덕적 무형유산에 대한 숭상을 통해 잘 드러난다.

등재기준(vi): 로이 마타 추장 영지는 현대 바누아투 사람들의 마음속에 힘과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여전히 살아 있다.

로이 마타 추장 영지의 진정성은 조경과 로이 마타의 구전과의 지속적인 연관성, 권력 제도로서 추장 제도의 지속, 이 지역에서 유지되어온 터부로 입증된 추장 유물에 대한 관습적인 숭배와 관련이 있다.

등재신청한 지역과 완충지대에 대한 법적 보호도 충분하다. 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도 적당하다. 추장제도, 금기를 통한 전통적인 관리 방식과 유적지 보호에 대한 정부 입법 추진이라는 현대적 방법이 동시에 이용되었다. 또한 지역 공동체 정부 행정부처도 유산 관리에 참여했다. 따라서 완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유적지이다.

3.1.9 연속유산 등재신청

연속유산 등재신청은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사한 개별 유산 요소 두 가지 이상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다(1.3 정의 참조).

연속유산 등재신청의 경우, 일련의 요소들의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는 근본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선택하게 된 분명한 이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이러한 근거는 요소들이 보여주는 속성, 특성,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비교연구는 각 요소들을 하나의 유산으로 보고 전체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요소들의 선택 이유 또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등재신청된 유산의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뚜렷하고 명확하게 관련이 없다면, 그런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잠재적인 연속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 현 시점에서 대표적인 요소만 등재를 신청했

거나 신청 중인 상황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모든 요소를 등재신청서에 기술해야 한다. 운영지침은 연속유산의 일부 요소를 먼저 신청하고, 다른 요소들을 추후에 부가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137-139항). 연속유산 중 추후에 등재신청을 계획하려는 요소들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기술해야 한다.

해당 내용에는 유산 각각의 요소가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지 또 전체 요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의 여부도 담겨 있어야 한다.

연속유산 등재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은 연속유산이 다른 모든 등재신청에서와 같은 평가기준 및 완전성, 진정성 관리에 대한 동일한 요구조건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이다. 물론 등재의 기반을 확립함에 있어 비교분석의 비교대상을 지리문화권 및 세계적 범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그 밖에 중요한 원칙으로는 연속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유산의 요소들은 세계유산 목록에 단일유산으로 신청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속유적지는 단일유산으로 등재되며 단일유산으로 취급된다. 연속유산 일부의 가치가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오를 정도로 위협받는다면, 전체의 유산이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다. 이러한 원칙은 연속유산이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월경유산은 물론 한 국가 내에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된다.

XXX IUCN 자료....

사례연구: 연속유적지 - 말라카해협 역사도시 멜라카와 조지타운(말레이시아)

말라카해협의 동서에 자리 잡은 멜라카와 조지타운은 동서 간 상거래 및 문화적 교류를 500년이나 지속해온 역사도시들이다. 이 도시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영향을 받아 문화복합적인 유·무형 유산을 부여받게 되었다. 정부청사, 교회, 광장, 요새가 남아 있는 멜라카는 15세기 술탄통치 시절과 16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시대의 서막 등 말레이시아 초기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조지타운은 주거지와 상가 건물들을 통해 18세기말 영국 식민지 시대를 보여준다. 이 두 역사도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 양식 및 문화 도시의 면모를 보여준다.

사례연구: 연속유적지 - 베를린 모더니즘 주택단지(독일)

본 유산은 1910년에서 1933년 사이, 특히 베를린시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던 바이메르 공화국 시절, 혁신적인 주택 정책을 보여주는 6개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산은 도시계획, 건축 및 조경디자인에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여 저소득

층의 주택 및 생활조건 향상에 기여한 주택개혁운동의 표본이다. 이 주택단지는 또한 기술적, 미적 혁신은 물론 새로운 디자인 해법을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도시 및 건축 지형을 보여주기도 한다. 부루노 타우트, 마틴 바그너, 발터 그로피우스는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건축가들로 이들은 세계 주택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사례연구: 중국 남부 카르스트(중국)

중국 남부 카르스트는 윈난성, 구이저우성, 광시성에 걸쳐 50만km² 이상이나 되는 면적에 분포하고 있는 자연석림이다. 이 유산은 습윤 열대 지방에서 아열대 지방에 이르는 카르스트 경관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자연유산의 전형적인 예이다. 석림(石林)은 다양한 형태와 변화하는 색깔, 봉우리를 갖춘 다른 카르스트 지형보다 뛰어난 자연현상으로 간주되며 보다 광범위한 봉우리 형태를 갖춘 세계유산으로 기록된다. 리보 카르스트는 원추형, 탑모양의 카르스트로 특이한 형태의 카르스트 유적으로 독특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우룽 카르스트는 거대한 지하수와 천연 아치, 동굴을 갖추고 있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3.1.10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포함하는 범위 규정

유산에 대한 등재를 신청할 때 유산의 범위는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유산의 모든 속성과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관련이 없는 조건은 적합하지 않다. 한편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속성이나 특성을 담고 있는 영역을 배제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잠정목록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잠재적으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 진정성과 완전성의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유산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키포인트: 유산의 범위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3.1.3에 제시되어 있는 속성과 특성의 도표화 작업은 적합한 범위를 타진하기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다.

역사도시의 건조물과 같이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문화유산을 등재하고자 신

청하는 경우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단일지역으로 신청하는 것이 요소별로 여러 지역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범위 확정의 이론적 근거는 늘 그렇듯 중요하며, 문화유산 등재의 경우 단일등재지역이 대체로 근거를 마련하기 용이하다.

중요한 보존 지역이나 요소가 지리학적으로 서로 단절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의 광대한 범위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속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

유산의 일부가 양호한 상태로 보호, 관리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해당 부분이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유산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이 최선의 방안이 아닐 수 있고 완전성의 조건에 부응하지 않을 수 있다. 최선의 결과는 해당 지역을 보호하고 더 나은 관리를 통하여 해당 부분을 잠재등재목록의 일부로 유지하는 것이다. 해당 부분이 유산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부분일 경우, 등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절한 보호 및 관리 조치를 수반해야 한다.

확정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나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는 등재신청서의 완전성 부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유산의 범위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유산의 범위는 완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속성들을 포함해야 한다. 즉 유산의 범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완벽하고 손상되지 않은 일련의 속성 및 관련 과정을 지칭한다.
- 유산의 범위는 유산의 가치를 지닌 속성을 규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리적이고 합당해야 한다.
- 유산의 범위는 명백히 정의되어야 하며 유산의 합법적 보호 및 관리와 연관성을 갖는다.
- 유산의 범위가 유산관리에 유용하려면 쉽게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범위는 종종 물리적 특징과 자연적 특성에 기반을 두게 된다. 유효한 범위라 함은 관리와 관련해 종종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는 도로와 같은 인공물의 특징에도 기반을 둘 수 있다. 하지만 포함된 지역이 완전성이라는 필요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려면 그런 특징을 활용하는 추가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 범위에 관한 양질의 도표화는 필수적이다.
- 잠정목록의 범위 안에서 구획지정 계획을 포함한 유산의 범위 수립은 관리의 우선순위와 유산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정의 내리는 것과 관련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절차와 보호, 보전과 관리 사이의 강력한 연계관계를 창출하는 과정이어야만 한다.

사례연구: 유산의 범위

우베다 베자의 르네상스 기념물군(스페인)

이 유산은 처음에는 두 개의 역사 도시로 등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두 도시에 있는 르네상스 궁전에 국한했다. 신청 근거도 처음에 건축 양식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에 전수되었다는 진술에서 르네상스 시민 건축 및 사상이 스페인에 도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는 진술로 바뀌었다.

마카오 역사지구(중국)

원래 등재신청을 했을 때는 12개의 건물만 신청했으며, 너무 많은 요소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 중요한 요소는 제외하고 신청했다. 다행히 주요 도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완전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유산은 역사적 건물들이 있는 도로 및 주요 도시 광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유산의 범위를 재정의할 수 있었다.

밤 지역 경관(이란)

이 연속유산에 처음에 등재신청할 당시 요새 및 일부 훼손된 건물만 신청하고자 했다. 하지만 자문을 거친 끝에 이 유산은 연속유산에서 문화조경으로 유산의 범위가 바뀌었다. 변경 이유는 이 지역의 물 관리 체제 및 오아시스 생활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브로츠와프 백년 홀(폴란드)

원래 등재 신청 시에는 백년 홀 건물만 신청했다. 하지만 ICOMOS 미션에 따라 백년홀과 동시에 계획되었던 전시관 지역도 목록에 편입하자는 동의를 얻었다. 완충지대 또한 전체 지역을 보호하도록 확대 지정되었다.

슬타니에(이란)

원래는 영묘, 주변 토속 마을, 소규모 종교 기념물, 장례 기념물 등을 모두 신청했다. 평가 결과 유산의 범위를 재편하여 영묘 및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작은 요새에 국한했다. 기념물이 있는 마을의 나머지 부분은 완충지대로 편입되었다. 마을 주변에는 초원을 포함한 경관 보호 지역도 있다. 바로 이 경관 때문에 몽고의 통치기간 동안 몽고족은 이 지역에 수도를 건설했다.

3.1.11. 완충지대

모든 세계유산은 유산 자체뿐 아니라 인접한 주변환경을 포함하는 완충지대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완충지대는 보호, 보전 및 관리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수단이다. 그러나 운영지침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유산을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규제적인 여러 방안이 존재하는 경우 완충 지역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104항).

완충지대는 세계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유산의 보호와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완충지대는 유산과 인접한 주변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진정성과 완전성의 보전에 기여 할 수 있다. 외딴 산 속에 위치한 사찰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다는 점 자체가 부분적으로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완충지대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유산의 보호, 보전 및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속성 혹은 특징은 유산의 범위에 포함해 신청해야 하며, 완충지대의 일부로 신청해서는 안 된다.

완충지대가 등재된 세계유산의 일부는 아니지만, 완충지대의 범위는 유산 등재 시 혹은 세계유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 시 공식적으로 등록된다. 완충지대는 유산을 보호, 보전하고 관리하게 될 신청당사국의 책무 중 중요한 요소이다.

완충지대는 잠정목록과 연관된 특성을 갖추지 않은 독립적인 지역일 수 있다. 한편 잠정목록의 특성에 도움이 되는 물리적 혹은 다른 여타의 특성을 갖춘 지역일 수도 있다. 유산으로의 접근로를 포함할 수도 있고 잠정등재지역 안팎의 전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완충지대의 역할은 집수 시설 같은 유산을 지탱하게 해주는 광범위한 자연환경의 보호는 물론 유산으로 이어지는 인접도로와 주차시설을 포함한 유산의 관광산업적인 사용을 관리 및 관광객 관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완충지대의 특징과 가치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잠정등재목록이 완전성, 진정성, 보호, 관리를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와는 유관할 수 있다.

유산의 인접 주변환경에 대한 이해와 즉각적인 규정 여부, 이를 위한 부차적 작업의 필요성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완충지대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성격
- 유산 관리상의 필요조건
- 유산을 향한, 혹은 유산으로부터의 중요한 전망
- 잠재적 완충지대의 현존하는 성질
- 잠재적 완충지대의 소유권, 관리, 보호(법규 포함)

완충지대는 유산의 기능, 역할, 용도와는 다른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키포인트: 별다른 보호가 없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완충지대는 무용지물이다.

문화유산의 완충지대가 주로 시각적 효과에 의거하여 결정되긴 하지만 완충지대를 결정하는데 있어 청각적 효과나 수문학과 같은 다른 근거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완충지대를 정할 때도 유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산의 가치에 대한 보호, 보전, 관리와 관련하여 완충지대의 범위 지정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나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 이론적 근거는 등재신청서의 보호를 위한 지정 부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완충지대와 유산 사이의 기능, 범위, 보호, 보전, 관리의 관계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완충지대와 유산의 보호, 보전, 관리는 통합되어야 한다. 유산과 완충지대에 관한 보호, 보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다른 기관 산하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관들 간의 책무와 협동이 명시되어야 한다.

완충지대는 지역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하고, 일관성 있게 유산의 가치를 보호, 보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용을 강화할 수 있다. 농장 부지도 완충지대에 포함될 수 있고,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식당이나 숙박업소등과 같은 관광산업 활동을 위한 부지도 완충지대가 될 수도 있다. 등재신청 시 이러한 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완충지대는 유산과 유산의 가치의 존립에 필수적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호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유산에 관한 부차적인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 보전, 관리는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완충지대는 '박물관'이나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유산을 다년간에 걸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으로부터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이하의 절차들은 완충지대를 설정하는데 있어 주목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들이다. 순서는 바뀔 수 있다.

- 외부적인 논점과 관계들을 정의하기 위해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 완전성, 특색 분석
- 이러한 분석에 의거하여 완충지대를 지정(연속유산에는 다수의 완충지대가 있을 수 있다)
- 완충지대의 잠재적 긍정적인 기회 분석
- 국내법과 지방정부의 규제 등과 같은 완충지대의 이행에 관련된 법적 규정을 고려
- 완충지대의 기능과 관련된 효과적인 이행과 조직을 보장

완충지대와 관련된 보호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등재신청 과정과 제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호 대책은 등재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완충지대에 대한 개념이 이미 유산을 포함한 영역에 대한 법규에 포함되어 있다면 완충지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아직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당사국은 국내법체계에 따라 완충지대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

완충지대가 이미 잠재목록 주위의 인접지역에 대한 부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주요한 수단 일지라도, 광범위한 주변환경에 대한 보호를 논의할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있다. 유산에 대한 대안적이고 현대적인 보호를 제공할 협정, 프로그램, 발의 등과 같은 여타의 보존방책과 협동하여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완충지대에 대한 특별한 사례도 있는데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지하에 존재하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완충지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사례연구: 완충지대

멕시코 국립대학(UNAM) 중앙대학 도시 캠퍼스(멕시코)

건물, 운동시설, 광장이 조화를 이루는 멕시코 국립대학(UNAM) 중앙대 도시 캠퍼스는 1949년과 1952년 사이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60명 이상의 건축가, 엔지니어, 예술가들에 의해 조성되었다. 그 결과 UNAM 캠퍼스는 도시학, 건축학, 토목공학, 조경학, 순수 미술이 지역 전통, 특히 멕시코 선사시대의 전통이 한데 어우러져 20세기 모더니즘을 독특하게 보여주는 표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조화로 인해 UNAM 캠퍼스는 보편적인 중요성을 지닌 사

회적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UNAM캠퍼스의 완충지대는 캠퍼스 주변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개정되었다.

움베르스톤과 산따 라우라의 초석 작업장(칠레)

초기 지정된 완충지대 범위가 너무 개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완충지대가 유산의 조경도 반영해야한다는 수정 요구가 뒤따랐다.

야로슬라블 역사지구(러시아)

초기 완충지대 범위는 강폭의 중간정도만 해당되었으나 추후 강 전체로 확대되었다.

기사의 성채와 살라딘의 요새(시리아)

살라딘 요새의 경우 완충지대는 잠재적으로 고고학적 관심 지역인 골짜기를 가로질러 확장된다.

비에리치카 소금광산(폴란드)

소금광산의 유산의 범위는 연결 통로를 포함한 모든 지하 작업장이다. 이 경우 지하 광산과 동일한 규모의 지상 면적이 바로 완충지대에 해당한다.

성 킬다섬(영국)

킬다섬 위의 유형문화재에 대해 바다 자체가 섬 주변의 보호 구역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추가 완충지대를 지정한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3.1.12 주변환경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 유산과 완충지대 외에도 유산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지역, 즉 주변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유산의 경우 유산의 외적인 특성이나 속성을 위해 주변환경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주변환경은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면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부분일 수 있다.

유산의 잠재적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내의 개발이나 변경의 예로는 높은 건물이나 풍력 발전소를 들 수 있다. 물론 이런 건물들이 유산으로부터 상당히 거리를 두고 세워졌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유산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이

해된다는 점에서 유산에 해가 될 수 있다.

주변환경과 완충지대는 동일한 의미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변환경의 범위가 더 포괄적일 수 있다. 물론 운영지침의 공식적인 요구 사항은 아니지만, 주변환경의 범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변환경과 관련해 유용한 참고자료로는 ‘유산 구조물, 유적지 및 지역의 주변환경 보존에 대한 시안 선언(ICOMOS 2005)’을 들 수 있다.

주변환경의 범위는 등재신청서의 일부로 지도에 표시해야만 하며 주변 환경은 등재신청의 묘사 부문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사례연구: 유산의 주변 환경과 관련된 이슈 - 에든버러 신·구 도시(영국)에 대한 유네스코-ICOMOS 사후 모니터링

세계유산센터와 ICOMOS 소속 전문가들은 영국 에든버러 신·구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을 조사하고자 2008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시행된 모니터링의 주 대상은 캘튼게이트 개발 사업이었다.

전문가들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진정성과 완전성 면에서 에든버러 신·구 도시의 보존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했다. 또한 고층 건물 개발을 비롯한 당시 진행 중이던 건축 공사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훌륭한 자질에 해당하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주시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및 지역 정부, 연구소, 기관, 이해당사자 측 대표와 함께 역사적 도시 조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조사했다. 캘튼게이트 공사 외에도 그들은 유산 범위 내의 리스독, 세인트 제임스 센터, 헤이마켓 및 다른 추진중인 프로젝트들 전반의 파급력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더 나은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에든버러의 위상을 15세기 이래 스코틀랜드의 수도로 인정함에 따라 에든버러는 세계유산 유적지로 지정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두 가지 별개 지역, 즉 중세 요새가 있는 구시가지와 18세기 이후 이곳에서 진행된 도시 개발로 전 유럽 도시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신고전적인 신시가지를 동시에 인정했다. 역사적 건물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이 두 종류의 대조적인 역사 구역이 에든버러에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 이 역사도시에 독특한 특성과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3.1.13 현 보존상태 - 위해요소

잠정목록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위해요소도 평가 과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등재신청 시 제공한 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정보는 현실적이고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과장되거나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유산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주장은 현실성을 반영해야 하며 상당한 위해요소를 축소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 등재를 신청한 유산을 방문 평가하는 임무의 핵심은 위해요소를 검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며, 이 작업에는 보고되지 않은 위해요소의 증거를 찾는 일도 포함된다.

위해요소에 대한 정보는 일전에 제기된 바 있거나, 향후 충분히 특정 유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예측에 바탕을 둔 정보만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의 있을법하지 않은 위해요소는 다룰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해요소에 대한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재신청서에 기록되지 않은 위해요소를 보고한 바로 다음에 유산이 등재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3.1.14 보호

등재신청 유산은 적절한 법적 보호 또는 전통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유산은 정해진 관할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이상적이며, 여기에는 다양한 법적 보호 및 기타 보호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법적 보호 및 전통적 보호는 서로 상충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며, 이 모든 조치를 다각도로 잘 활용함으로써 유산을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전통적인 보호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하며, 특히 유산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증대된다.

유산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면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유용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보호를 통해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가?
- 보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가?
- 전통적인 보호에 있어 사회적 메커니즘은 보호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가?
- 이용 가능한 모든 단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예를 들어, 전통, 지역 및 국가단위 보호)

- 유산의 가치, 완전성 및 진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과 변화로부터 유산은 보호받고 있는가?
- 보호는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호에 대한 감사 및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보호가 보존 및 관리와 통합되었는가?

키포인트: 보호는 반드시 효과적이어야 한다.

지역별로 다른 대책이 적용될 수 있지만, 유산과 그 완충지대는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한다. 유산의 가치 보호로 인해 완충지대 안에 위치한 다른 유산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뛰어난 주변 환경의 시각적 우수성에 대한 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유산의 무형적·유형적 특성을 다룬 보존 자료는 유산을 올바르게 보호, 보존 및 관리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등재신청서 양식의 7.c 절 참조).

등재신청의 초기 단계에서는 유산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관련 보호조치(예를 들어, 새로운 법안 준비)를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시간이 전체 등재신청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연구: 전통적 보호-문화유산-아스키아 무덤(말리)

17 미터 높이의 엄청난 피라미드 구조물인 아스키아 무덤은 1945년 송가이 제국의 황제 아스키아 모하메드에 의해 1945년 제국의 수도인 가오(Gao)에 건설되었다. 이 건축물은 15~16세기 동안 사하라 지역을 넘어 소금과 금 무역으로 번성했던 제국의 힘과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준다. 서부 아프리카 사헬지방 특유의 진흙건축의 전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 유적지에는 피라미드 무덤, 이층 구조의 모스크 건물, 모스크 공동묘지 및 야회 집회장이 있으며, 이들은 가오가 제국의 수도가 되고 아스키아 모하메드 황제가 메카를 다녀와서 이슬람교를 제국의 국교로 삼은 뒤에 건설되었다.

아스키아 무덤은 효과적으로 전통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유적지 관리는 2002년 가오의지사(Prefect of Gao)가 설립한 관리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이맘(Imam), 무진(이슬람 사원의 기도시간을 알리는 사람), 가오의 예술문화 지역위원회와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여러 지역 및 지방 위원회 대표들이 참여한다. 해당 협회는 법률적인 기반은 없지만 이맘과 송가이 족장이 참여하는 덕분에 강력한 도덕적 권위가 있다.

사례연구: 전통적 보호-자연유산-동 렌넬(솔로몬 제도)

동 렌넬은 서태평양에 위치한 솔로몬 제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렌넬 섬의 남부지역 1/3로 구성된다. 길이 86km, 넓이 15km의 렌넬 섬은 세계 최대의 산호섬이다. 그 면적이 약 37,000ha으로, 3해리에 걸쳐 펼쳐진 해상 지역이다. 렌넬 섬의 가장 큰 특징은 테가노 호로, 과거 환상 산호섬의 석호였다. 태평양 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테가노 호(15,500ha)는 염수호수로 울퉁불퉁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섬들이 많으며, 이 지역 특유의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다. 렌넬 섬 대부분은 울창한 삼림으로 덮여 있어 마치 20미터 높이의 차양을 쳐놓은 듯하다. 빈번한 사이클론이라는 강력한 기후적 영향과 더불어, 이 섬은 과학연구를 위한 자연 실험실이다. 동 렌넬은 관습적인 공동소유지이며 이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3.1.15 관리

세계유산의 관리는 유산의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관련이 있거나 해당 가치를 나타내는 특징과 특성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미래까지 유산의 가치, 진정성 및 완전성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관리는 유산 전체 보존의 필요성과 연결되는 전체론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유산의 모든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등재신청 유산은 관리대책을 명시하는 적절한 관리계획 또는 관리체계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관리계획 또는 관리체계가 없다면, 이들의 수립을 위한 현실적인 일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유산의 완충지대와 주변 환경을 위한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등재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관리를 받지 못한 유산은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운영지침에 관리계획이나 체계 기록이 없어도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115항)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시행중인 효과적인 관리계획이나 관리체계 기록이 등재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키포인트: 관리계획/체계는 반드시 효과적이어야 한다.

관리계획이나 관리체계에 대한 특별한 선호는 없으며, 때로 두 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관리계획이나 관리체계가 효과적이고 적합한지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일례로 일부 문화권에서는 관리계획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경험한 적이 없어서, 관리계획의 효율성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적합한 관리체도가 있어 등재신청 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유산 관리에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에 따른 변화와 도전을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비전이 있어야 한다. 해당 변화와 도전이 상당할 수준일 수 있다.

관리계획이나 체계 기록은 앞으로 시행될 '문서상'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시험과 검증은 거친 대책으로써 제시되어야 한다. 등재신청의 주요 절(보존 상태와 모니터링 등)과 유산에 대한 모든 관리계획에서 언급한 정보와 프로그램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해야 한다.

때때로 유산 관리에 여러 가지 관리계획이나 관리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계획이나 체계는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통합적이거나 보완적이며 효과적인 관리 성과를 거두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각기 다른 기관이 유산과 완충지대를 관리하는 경우나 몇몇 지방정부가 함께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유산 방문에 대한 일반인의 높은 관심, 향후의 대규모의 방문 및 유산정보와 방문객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관광산업은 세계유산에 있어 주요 사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등재신청의 일환으로 관광산업이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보호, 보존 및 관리를 준수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여야 한다. 유산에 대한 별개의 관광사업계획을 마련한 다음 일반적인 유산 관리계획이나 체계와 통합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관광사업계획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세계유산 관리계획에 대한 별도의 IUCN 자원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IUCN 2008). XXX 문화유산 매뉴얼 참조.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서작업을 해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해당 계획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등재신청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재신청을 하기에 앞서 관리대책의 시행은 장기적으로 볼 때 유산의 보존이라는 이익을 가져다주며,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 단계에서 유용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관리계획/체계는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보호 및 보존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 관리계획/체계가 실제로 현장보존성과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가?
- 다양한 관리계획/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이들은 통합되거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 특정 관리계획/체계가 다른 종류의 계획/체계에 비해 우선권이 있는가? (예를 들어 관광, 개발 및 지역경제계획)
- 이해당사자간에 유산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가?

- 관리계획/체계에는 계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으로 이루어진 순환이 포함되는가?
- 관리계획/체계에 이해당사자 특히, 유산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참여하는가? 또한 계획/체계에 대해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 현재는 물론 미래에 관리계획/체계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관리계획/체계에는 관련 역량강화계획이 포함되는가?
- 관리계획/체계에는 해당 체계가 실제로 시행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 관리계획에 재해대비방법이 포함되는가?
- 유산 관리가 보호 및 보존과 통합되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주민, 토착민, 유산 소유자와 관리자, 모든 정부기관, 관광을 포함하는 상업적 이해관계자와 비정부기구 등이 이해당사자이다.

연속유산 및 접경지역 유산의 등재신청인 경우,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각 구성요소사이에 소통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유산 차원의 관리체계가 있어야 한다.

-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구성요소 관리의 조화
- 유산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
- 특히 세계유산협약의 요구조건에 따른 모니터링과 보고의 조율

연속유산 및 월경유산에 대한 관리체계가 가능하다면 조율 메커니즘을 정기적으로 평가·강화하여 세계유산의 관리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각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가 다르고 상이한 관리체계가 적용된다면, 개별 요소에 대한 관리방법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그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조율을 거친 관리방법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기존의 관리계획 또는 체계가 매우 효과적이라면 유산을 위한 특별 관리기관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존의 메커니즘이 적절하지 않다면, 신규 특수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들은 반드시 효과적이어야 한다.

사례연구: 루아르 계곡과 고성들(프랑스)

루아르 계곡은 지역 주민과 물리적 환경, 특히 루아르 강 사이의 수 세기에 걸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도시와 마을, 대규모 역사적 건축물인 샤토와 경작지로 이루어졌으며, 대단히 아름다운 문화경관을 자랑한다.

1994년 프랑스 정부는 루아르 계곡의 일관성 있는 계획과 관리를 위해 '루아르 강 유역 환경보전계획'이라는 10년 마스터플랜을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계획은 지역의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을 망라한다. 해당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경제기관 및 협회 등 관련조직 및 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해당 유산의 평가기간동안 이루어진 권고를 받아들여, 운영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정부 당국과 기관을 대표하여 지역의 관리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유산 관리에 도움을 주는 등재신청서

등재신청서는 세계유산등재신청을 위한 문서라는 역할이외에 등재신청 유산의 지속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도움을 줄 수 있다.

- 등재신청서는 유산의 현재 상태는 물론, 향후 보호,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약속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세계유산 지위는 유산에 변화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세계유산 지위의 의미를 등재신청서에 정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등재 이후 방문객의 증가와 관광산업압력 상승을 예로 들 수 있다.
- 관리대책 제안 등 등재신청서는 평가과정에서 면밀한 분석을 거친다. 유산과 그 관리에 대한 변경이 제안될 수 있으며, 당사국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은 이러한 변경을 교섭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문화유산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해당 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이해당사자들을 동참하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참여만으로 잠재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등재신청서는 향후에 유산의 보존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주요 기준자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1.16 모니터링

바람직한 관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유산의 현재 상태, 보존 상태와 미래 상태에 대한 지표역할을 할 수 있을 다양한 주요 요인의 모니터링이다. 모니터링은 유산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산의 보호, 보존 및 관리에 있어 해당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또는 변화가 필요하지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의 모니터링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하며, 여기에는 완전성, 보호, 관리 및 문화유산에 대한 진정성이 포함된다.

등재신청서에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기술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세계유산제도에는 공식적으로 정기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에 따라 등재된 유산은 6년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운영지침 5항 참조). 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가 잘 갖추어졌다면 정기보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산의 보존 상태와 같이 일련의 요소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핵심 지표에 대한 내용을 등재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모니터링은 유산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기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견고한 성질의 유산은 시간 간격을 두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반면, 부서지기 쉽거나 급격하게 변하는 유산은 더욱 자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유용한 참고자료로 ‘세계유산모니터링, 세계유산보고서 10(*Monitoring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Papers 10*,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nd ICCROM 2004)’가 있다.

3.2 추가 팁

3.2.1 성공적인 등재신청서와 절차 검토

등재신청서를 준비하는 시작단계에서 등재에 성공한 유산의 등재신청서를 살펴보는 일은 유용하다. 기준과 기대가 시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최근 등재신청서가 과거 신청서보다 더 유용할 것이다. 또한 등재를 신청한 유산과 유사한 범주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다.

비교분석의 일환으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유산에 대한 등재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3.1.7절 참조).

키포인트: 다른 등재신청서와 절차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1998년 이후 등재된 유산의 등재신청서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하다.

- <http://whc.unesco.org/en/list> (영어)
- <http://whc.unesco.org/fr/list/> (불어)

관련 유산등재신청서를 살펴본 다음, 해당 등재신청서의 품질, 장점과 단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문기구의 평가를 살펴본다. 자문기구의 평가는 앞서 언급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신청서와는 별개로, 등재신청 준비를 위한 절차에 대해 다른 국가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몇몇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문서화되어 공개되어 있다.

- 세계유산, 이와미 은광 및 문화경관, 공식 기록, 시마네현 교육위원회, 2008
- XXX 조킨스 화석절벽

이 밖에도 최근에 등재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당사국과의 논의가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등재신청서 또는 신청절차 사례를 등재신청에 대한 기본 틀로써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차용해서는 안 된다. 각 등재신청서에는 다른 국가에서 단순하게 모방할 수 없는 고유성이 있을 수 있고, 당사국마다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절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4부 등재신청 파일의 작성 및 준비

뛰어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을 마련하고, 확실하고 방어적 유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호, 보존 및 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등재신청의 준비를 지원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등재신청서를 작성한다.

4.1 일반적 팁

4.1.1 등재신청서 작성자

등재신청서는 그 목적, 정보, 주장 및 결론에 있어 기본적으로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해 컨설턴트를 참여시키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유산등재에 성공할 수 있다. 이는 좋은 접근법이 될 수 있지만, 좋은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아마도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재신청서 작업에 함께 참여했던 지역 담당자의 경험이 장기적으로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산의 가치, 필요성, 제약과 기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향상을 도모하고,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지 여부를 심사받은 후에도 유산의 지속적인 보호, 보존 및 관리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경우, 유산의 가치는 물론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추가 요구조건에 정통한 지역 담당자의 존재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등재신청서는 정확하고 유창한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등재전담팀 또는 작성자가 영어나 불어에 능통하지 않다면, 등재전담팀의 모국어로 등재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최종 신청서를 유창한 영어 또는 불어로 번역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형편없이 번역된 신청서는 심사에 있어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1.2 등재신청의 목적

기본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는 세계유산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공식적인 신청서이다. 이는 신청 당사국이나 접경지역 유산등재신청의 경우에는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제출하는 공식 문서이다.

등재신청서의 목적은 다음의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있다.

- 유산의 구성요소와 문서기록 방법
- 유산에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이유
- 보존 상태와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유산을 보호 보존, 관리하고, 전시, 모니터링 방법

등재신청서는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해당유산 평가에 있어 기초이자, 세계유산위원회가 해당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해야 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4.1.3 등재신청서 준비절차

등재신청서를 준비하는데 있어 순서와 절차가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 비교 분석한다.
- 기준, 진정성 및 완전성 등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을 준비한다.
- 관련 특성을 규정한다.
- 적절한 범위를 규정한다.
- 설명을 준비한다.
- 유산의 역사를 준비한다.
- 등재신청서 양식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한다.

키포인트: 등재신청의 모든 절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연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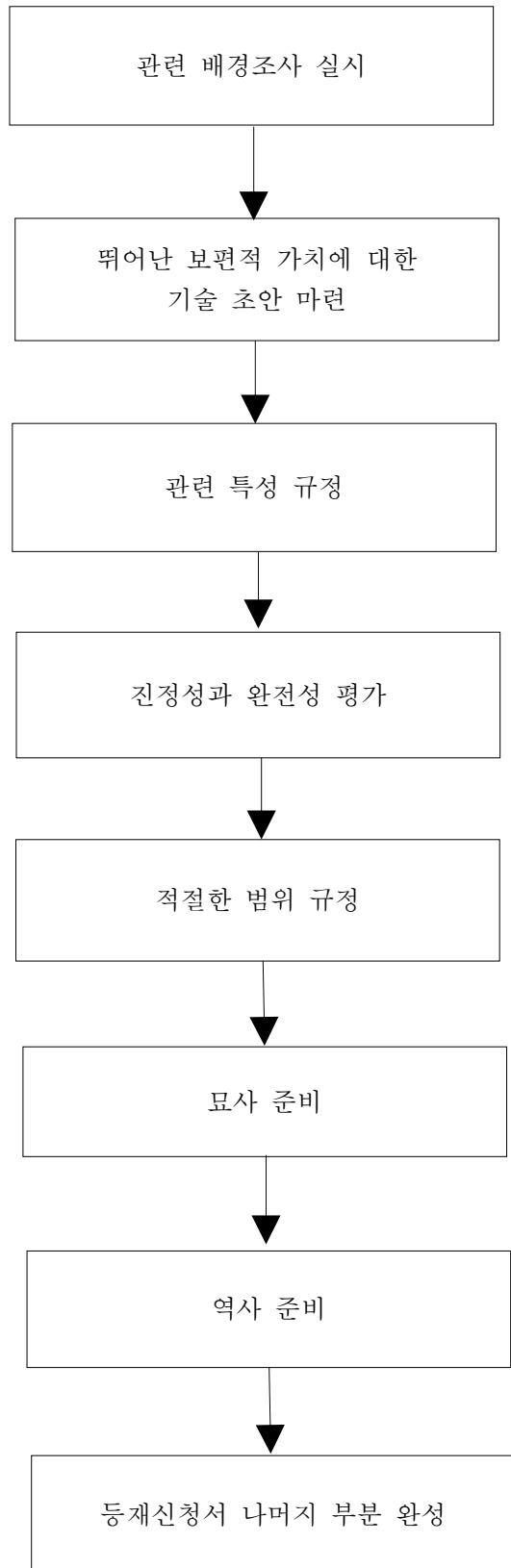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등재신청서 양식 순서를 가장 논리적인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근거사유와 해당 기준에 대한 증명 부분이 적어도 만족스럽다면 등재신청서는 전체적으로 장황한 신청서가 되어도 무방하다.

등재신청서의 특정 부분은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작성하기 훨씬 쉽고, 대개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관심을 끈다. 예컨대 정보이용이 쉽고 작성을 준비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설명과 역사관련 절은 종종 장황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해당 절이 어찌면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파악하기 전에 준비되기 때문에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역사적 연구는 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기 전에 착수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유산의 가치와의 연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사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강조하였듯이,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가장 먼저 파악한 다음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나머지 절을 작성할 것을 권한다. 설명은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연관이 있는 물리적 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관련 절에는 유산의 가치가 어떻게 발전되어왔는지 기술한다.

등재신청서 준비를 위한
권장 절차의 기본 개요



4.1.4 개요

모든 등재신청서의 첫 부분은 개요로, 등재신청의 핵심을 설명하는 주요 요소이다.

앞서 3장에서 간략하게 다룬 업무에 착수한 후, 적어도 적당한 초안단계에서 개요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본 정보를 활용한다. 최소한 등재신청서를 실제 작성하는 초기과정에 개요의 기안을 잡아서, 등재신청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개요는 등재신청서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등재신청서 작성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정보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개요를 수정할 수 있다. 이는 또 다시 등재신청서가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개요에 서술한 정보는 등재신청서 본문에서 기술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4.1.5 등재신청서 제출

등재신청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유산의 예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 유산을 설명한다.
- 유산의 역사를 간추린다.
- 유산의 중요성과 유산이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이유를 증명한다.
- 유산이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보여준다.
- 유산의 보존 상태와 기록과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한다.
-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유산의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법적 보호와 관리를 통해 어떻게 유지되고 이 과정에 누가 참여하는지 설명한다.
- 유산의 가치를 방문객 및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등재신청서의 길이와 복잡성이 신청서가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는 반드시 아니다. 등재신청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어야 하며, 터무니없이 장문일 필요는 없다. 디자인, 삽화 및 인쇄에 대해 과도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 포장에 공들일 필요도 없다.

키포인트: 등재신청서는 장문이거나 지나치게 포장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재신청서를 가능한 손쉽게 다루기 위해 상세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여 본문은 핵심 메시지를 설명하고 아주 상세한 설명으로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한다. 별첨의 상세 정보는 본문에서 언급한다. 하지만 간결하고 중요한 답변은 등재신청서 본문에 기재해야 하며, 단지 별첨 참조라고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별첨에는 등재신청과 확실히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주의 깊게 선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별첨에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등재신청서에 요약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를 선별한다. 불필요하게 방대한 양의 별첨은 확실한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방해가 될 수 있다.

등재신청서의 작성자는 유산이 무엇이며, 유산이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가치를 어떻게 보존, 보호, 관리 및 전시할 것인가 하는 핵심 메시지를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또한 핵심 메시지가 상세 정보 속에 과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등재신청서는 값비싸거나 길만 그럴듯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만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약간의 배려는 독자가 등재신청서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운영지침은 유산의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등재신청서의 사본부수를 규정한다(132.10항 참조). 사본 한부를 원본으로 간주하지만, 모든 경우 인쇄문서와 전자문서는 동일해야 한다. 세계유산센터에서 한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복사본은 평가를 위해 자문기구에 배포되며, 제공되는 모든 복사본의 내용은 동일해야 한다. 운영지침의 등재신청서 양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의한다(132항).

추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인쇄 문서

- 문서는 표준 양식으로 깨끗하게 인쇄하여 잘 정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레이아웃이 단순하고 분명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사용하는 폰트의 수를 줄인다.
- 가능하면 유산과 관련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 사진과 도표를 이용한다. 유산과 그 가치, 완전성 또는 관리 사안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보여주는 삽화와 사진을 선택한다.
- 유산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최적의 영상기록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반복 사용은 피한다.
- 문서는 반드시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등재신청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기 위해 영어 또는 불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최종 등재신청서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양식은 너무 기술적이기 때문에, 일반대중을 겨냥한 보급용 인쇄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등재된 이후에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를 만들어 등재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권한다.
- 등재신청서에서는 프레젠테이션보다는 주장과 요지의 우수성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아름다운 책자에 펼쳐진 빈약한 주장은 여전히 등재의 필요성에 대한 불충분한 주장일 뿐이다.
- 일부 등재신청서는 정교한 특수 상자에 넣어 제출되기도 한다. 정보를 상자에 넣어 포장하는 것이 실제로 편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포장의 질이 아니라 정보의 질이다.
- 관련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등재신청서를 충분히 인쇄한다.
- 등재신청서를 잘 배포하여 지역 이해당사자의 눈에 띄어야 하며,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지역 이해당사자들에게 사본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며,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이해당사자들이 해당 출판물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
- 등재신청문서 사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때로는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좋은 방법이다.
- 등재신청문서의 일반 인쇄부수는 백부에서 수 천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자 문서

- 등재신청문서의 전자문서 형태는 모든 등재신청에 있어 필수사항이다.
- 문서 형태와 페이지 번호가 인쇄문서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인쇄문서를 제작한 파일로 생성해야 한다. 인쇄본과 전자문서의 정보는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 Adobe PDF 파일로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 자문기구가 담당할 절차 전반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대개 등재신청서를 검토한다. 이는 해당 전문가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사본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사진과 지도 등 이미지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 해상도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상도가 낮은 영상자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확실하면 특히 지도와 기록사진은 해상도가 가장 높은 영상자료를 제출한다.
- 그 밖에도 문서의 파일크기를 고려하고, 특히 불필요하게 큰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문서의 해상도에 맞추어 영상자료의 비율을 조정한다. A4 크기의 문서에서 매우 크고 해상도가 높은 영상자료는 대개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PDF 파일을 제작하는데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이용하여 전체 파일 크기를 줄인다. 큰 파일 또는 고해상도로 유지해야 하는 영상자료는 별도의 파일로 별첨하여 제출한다. 최대 파일크기는 XXX MB이하여야 한다. 대용량 파일의 경우, 텍스트 전용 파일과 텍스트와 영상자료 파일을 함께 제출할 것을 권한다. 텍스트 전용 파일을 제출했다면, 영상자료 파일(지도포함)을 별도 파일로 제출한다.

- 문서에 끼워 넣을 수 없는 특이한 폰트라면, 이러한 폰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이한 폰트를 다른 컴퓨터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세계유산등재신청서의 전자문서 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신설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 모든 추가 지원 정보는 CD에 담아야 한다.

별첨

- 등재신청서 본문은 독자적으로 등재에 대한 주장과 유산의 완전성, 진정성,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핵심 요구조건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일반적으로 부록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부록을 등재신청서에 포함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재신청서 본문에 명확하고 양질의 핵심 정보를 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지원 정보를 담은 별첨의 양이 방대해지는 경우는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등재신청서 본문에서 이미 요약된 정보에 실제로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정보만을 부록에 첨부할 것을 권한다. 단순히 문서의 완성도를 위해 별첨을 덧붙이지 않도록 한다.
- 등재신청서는 별첨에 포함된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자문기구가 평가자와 검토자에게 방대한 양의 부록을 배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실용적이다. 따라서 핵심 정보는 언제나 등재신청서에서 직접 기재되어야 한다. 핵심 정보가 방대한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문기구가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4.1.6 등재신청서 준비와 제출 일정

등재신청서 작성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일정은 현실적이어야 하지만 모든 관계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완수하기를 바란다. 앞서 명시하였듯이, 작성을 시작하기 전, 예비절차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상의와 확인 작업을 거치고 적당한 지도와 삽화를 모아 정리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키포인트: 등재신청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현실적으로 정하라.

충분한 보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히 비교 가능한 다른 국가의 유산의 경우, 비교 분석을 위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하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역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사고처리 시간을 절차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문기구는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작성되었다고 종종 지적한다. 이는 등재신청서가 보류되거나 추가 작업을 위해 당사국으로 반송되는 경우, ICOMOS와 IUCN 권고의 기저에 깔린 공통된 이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한 등재신청서 제출은 성공적인 등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실상 연장시킬 수 있다.

각 단계에서가 아니라 동시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주요 서류가 수락된 다음에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자문기구가 요청했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키포인트: 준비가 되기 전에는 등재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하지 않는다.

등재신청서를 마감 마지막 순간에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제출 마감시간은 엄수한다. 등재신청서는 마감이전 언제라도 제출이 가능하다.

운영지침은 당사국이 매년 9월 30일까지 완성도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 초안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27항). 이는 당사국이 최종 제출이전에 여러 측면에서 등재신청서를 점검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회이다. 제대로 계획된 등재신청 절차라면 이러한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계유산센터의 평가는 조언일 뿐이며, 등재신청서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완성된 등재신청서를 수락한 다음 ICOMOS와 IUCN가 심사하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주장에 대한 논평이 아니다.

4.2 등재신청서 양식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공식 양식을 승인했고,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정보에 대한 가장 최근 양식을 준수해야 한다(운영지침의 별첨 5 참조). 세계유산위원회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른 등재신청 유산에 대한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식이 만들어졌다. 공식 양식에는 각 절의 요청사항에 대한 설명문을 포함한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제출 마감일에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재신청서만을 심사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완성된 등재신청서만이 심사를 위해 ICOMOS와 IUCN에 전달된다. 미완성 등재신청서는 더 이상 검토되지 않고 당사국에 반송되며, 이런 경우 미완성 등재신청서는 완성되어 다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빨라야 1년 이후에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운영지침의 별첨 5와 함께 132항에서는 완성된 등재신청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매뉴얼의 4.2절에서는 주요 절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과 함께 기존의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양식 사본을 제시한다.

하지만 등재신청서가 완성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유산 명시와 관련된 문제, 특히 제시된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합한 지도를 위한 다음 6가지 핵심요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 묘사하는 유산의 카테고리에 따라 적합한 지도의 유형을 선택한다. 대규모 유산의 경우에는 지형도를, 소규모일 경우에는 지적도를 선택한다.
- ii. 예정 경계선은 가능하면 얇아야 하지만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형도에 색을 칠해서는 안 되며,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얇지만 눈에 띄는 선이 바람직하다. 주요 위치확인용 지도는 등재신청 유산과 완충지대를 구분하는 선으로만 표시되어야 한다.
- iii. 지도는 격자좌표나 일련인 위치 좌표 값을 표시해야 한다.
- iv. 최적의 축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유산과 문화경관은 일반적으로 축척 1:50,000 지형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으나, 유산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 한 개 이상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축척은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문화유산의 위한 지도는 지적도가 최적의 선택이다. 단일 기념물의 경우, 축척이 1:2,000이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막대기형 축척을 지도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 v. 지도상에서 등재신청 유산과 완충지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범례에 확실하게 표시해야 한다(위의 ii를 참조). 주요 위치확인용 지도에는 모든 혼동을 막기 위해 다른 보호 지구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지 않는다. 지도의 범례에서는 운영지침의 전문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보호지구’, ‘보존지역’, 및 ‘역사적 지구’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vi. 범례를 포함하여 제출되는 지도와 계획안은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키포인트: 추가 조언과 함께 설명문을 주의 깊게 읽는다.

키포인트: 기본적으로 등재신청서 양식의 모든 절을 완성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웹사이트(whc.unesco.org)에서 등재신청에 대한 공식 양식의 최종버전을 확인하거나 세계유산센터에 문의한다.

[XXX 주: 다음의 등재신청서 양식은 향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수정될 수 있다.]

개요

당사국이 제출하는 본 정보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이 갱신한다. 그런 다음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반송된다.

기존 등재신청서 양식-제목	기존 등재신청서 양식-설명문	IUCN 및 ICOMOS의 추가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의 정보는 등재신청서의 본문에서 기재한 내용과 같아야 한다. • 개요에서는 어떤 유산을 등재신청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간결하게 요약한다. • 개요는 1~3페이지 길이로 짧고 간결해야 하며, 장문의 서술적 본문을 포함하지 않는다. • 개요에서 새로운 내용을 기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은 등재신청서의 3b절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 해당 절들이 등재신청서에서 잘 기술되었다면, 개요작성을 위해 내용을 축약할 필요는 없다.
국가명		
주, 도 및 지방		
유산의 이름		
초인접 초 단위까지 표기한 지리 좌표		
등재신청 유산의 범위에 대한 본문 설명		등재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지도와 본문 설명에 유산범위와 규정된 완충지대의 위치를 분

		<p>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유산 전체를 묘사할 필요는 없지만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지는 일반적인 기술을 통해 설명한다. 예를 들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재신청 유산의 범위는 <유산 이름>국립공원/문화 유적지의 범위와 같다. 동쪽과 동남쪽으로 <이름>강이, 북쪽으로 <이름>보존산림이, 서쪽과 남쪽으로는 해안선에서 간조선에 이르기까지 자연적 특성에 따라 1~5km에 달하는 완충지대가 유산을 둘러싸고 있다. • 여러 국가의 국경에 접한 유산의 범위는 <이름>국립공원(A국가), <이름>보존산림(A국가) 및 <이름>자연보존지역(B국가)의 경계이다.
<p>경계와 완충지대를 표시한 등재신청 유산의 A4(또는 편지지) 크기의 지도</p>	<p>A4(또는 편지지) 크기의 지도를 첨부한다.</p>	<p>이는 자문기구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할 평가 보고서에서 사용할 지도이다. 따라서 정확하고 읽기 쉬워야 한다. 지도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 A4(또는 편지지)크기여야 한다. • 지형도에서 발췌한다. • 유산과 완충지대에 대한 다른 색의 확실히 눈에 띄는 선을 사용하여 등재신청 유산 전체와 완충지역을 확실히 표

		<p>시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여 또는 불어로 작성된 분명한 범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등재신청 유산’을 언급하고, 연속유산인 경우에는 구성 유적지를 기재한다(이때 등재신청서에 사용한 언어를 사용한다). • 크기와 거리를 파악하기 위해 확실한 축척을 표시해야 한다. • 지도(일반 위치지도)의 한쪽 구석에 작은 상자를 이용하여 당사국에서의 유산의 대체적인 소재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A4 한 장으로 충분하지 않는 연속유산인 경우에는 여러 장의 A4 지도에 (i)전체 유산, 위치 및 각 구성요소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 한 장, (ii)개별 요소와 완충지대를 표시한 한 장 이상의 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도는 개요에 포함되어야 하며 나중의 본문에 포함되었다거나 또는 부록 참조라고 언급해서는 안 된다. <p>더욱 자세한 지형도 및 기타 지도는 등재신청서의 다른 절에 포함시킨다.</p>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은 등재신

<p>의 근거 사유 (본문에서 등재신청 유산이 지닌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p>		<p>청서 3b절의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p>
<p>유산 등재신청의 기준(기준 항목별) (운영지침 77항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 등재신청의 기준을 나열하고 기준 항목별로 100자를 초과하지 않도록 짧게 기술한다.
<p>공식 지역단체/기관 명칭 및 연락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에는 당사국 주요기관의 연락처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 하위 단위의 당사국의 주요 기관 연락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한 언급될 수 있다(예를 들어, 주 또는 지방 정부) • 국가의 연속유산의 경우, 하나의 주요 담당 기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월경유산의 경우, 각 국가의 관련 기관의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신청한 유산

주: 등재신청서를 준비할 때, 당사국은 본 양식을 사용해야 하지만 설명문 부분은 삭제 한다.

기존 등재신청서 양식		추가 조언
등재신청 양식	설명문	
1. 유산의 명시	본 절은 2절과 함께 등재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본 절은 유산의 소재 장소와 지리적 규정의 방법에 대해 위원회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연속 등재신청일 경우, 구성요소의 명칭과 소재 지역(구성요소에 따라 다를 경우), 좌표, 면적 및 완충지대에 관한 내용을 담은 목록을 삽입한다. 일부 구성요소를 구별하는 기타 사항(참조 페이지 또는 지도 번호 등) 역시 포함시킬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재신청서 본 절에서는 등재신청 유산의 소재와 면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기재한다. 제출하는 지도에 특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a 국가 (상이한 경우, 당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 등재를 신청한 국가(또는 접경지역 유산의 경우 국가들)의 이름을 언급한다.
1.b 주, 도 또는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재신청 유산이 위치한 주, 도 또는 지방을 언급하여 나열한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유산인 경우에는 주, 도, 또는 지방과 함께 국가명도 포함한다.
1.c 유산의 이름	<p>이는 세계유산에 관한 간행물에 사용될 유산의 공식명칭이다. 유산의 이름은 간결해야 한다. 띄어쓰기와 구두점을 포함해서 200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연속유산의 경우(운영지침의 137~140항 참조),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적인 이름을 사용한다(예를 들어, 필리핀의 바르크양식 교회). 연속유산의 구성요소 이름을 따로 표기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의 이름은 유산에 대한 기존 지역 및 국가명 측면에서 의미가 전달되고 유산의 특성/가치를 나타내야 한다. 명칭을 새롭게 만들기 보다는 알려진 기존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명칭이 향후 유산의 홍보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한다.

	<p>지 않는다. 각 구성요소의 이름은 1.d와 1.f의 표에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명은 띄어쓰기와 구두점을 포함하여 200자가 초과하지 않도록 간결해야 한다. • 지역 언어, 문화 및 전통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국가 또는 지역단위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일부 경우에, 두 단어로 이루어진 이름이 선택한다(예를 들어, 테 와이포우나무 공원-뉴질랜드 서남부, 우카람바-드라켄스버그 공원). • 연속유산의 경우, 전체를 총괄하는 이름을 선택해야 한다(예를 들어, 보호구역의 세 하천, 수마트라의 열대우림지역, 캐나다인 로키산맥공원). • 월경유산의 경우, 유산 이름은 관련된 양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예를 들어, 읍스 분지(러시아 연방과 몽골), 발칸 군도와 하이 코스트(스웨덴과 핀란드)). 개별 구성요소의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하기 보다는 유산 전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름을 선호한다.
<p>1.d 최인접 초 단위까지 표기한 지리 좌표</p>	<p>본 절에서는 등재신청 유산의 대략적인 중심점의 위도와 경도 좌표(최인접 초 단위까지 표기) 또는 UTM 좌표(최인접 10미터까지 표기)를 기재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에 문의한다.</p>	

	<p>연속유산인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의 이름, 소재 지역(또는 표시 가능한 범위의 가장 근접한 도시) 및 유산의 중심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표를 작성한다.</p> <p>좌표형식의 사례: N 45°06'05" W15°37'56" 또는 UTM Zone 18 Easting: ⁵45670 Northing: ⁴⁵86750</p>	
<p>1.e 등재신청 유산과 완충지대의 경계를 표시한 지도 및 도면</p>	<p>등재신청서 별첨에 첨부하고 축척 및 날짜 정보와 함께 다음 내용을 기재한다.</p> <p>(i) 최대한 큰 축척으로 등재신청 유산 전체를 담은 지형도 원본. 유산과 완충지대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본 지형도 또는 기타 첨부 지도상에는 유산에 대한 특별 법적 보호지구의 경계도 표시해야 한다. 연속유산인 경우, 여러 장의 지도가 필요할 수 있다.</p> <p>지도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http://whc.unesco.org/en/mapagencies</p> <p>적당한 축척의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도로 대체할 수 있다. 모든 지도는 완벽한 좌표와 함께 지도의 양 반대쪽에 최소 세 지점이 표시되어 지리적 위치를 확인,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자리를 다듬지 않은 지도에는 축척, 방위, 투영, 준거점, 유산이름 및 날짜가 표기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지도는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제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의 경우 필요한 지도와 도면(도안)은 유산의 종류와 역사에 따라 결정된다. 지도와 도면은 잠재적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측면을 어느 정도 나타내야 한다. • 지도와 도면의 축척, 상세항목 및 해상도가 충분해서, 경계와 특성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유산의 주변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식적인 정보를 최소화하면서 멋을 부린 지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명색이 이름뿐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문화유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큰 축척의 지형도와 또는 지적도가 언제나 바람직하다. • 유산의 특성이 지도/도면상에 또는 본문에 기재되는 경우, 일관된 이름 또는 코드 체계를 사용하여 지도/도면과 본문에서 쉽게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p>다.</p> <p>지리 정보는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가능하면 디지털 형태로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디지털 지리정보의 경우, 경계선(등재신청 유산과 완충지대)에 대한 묘사는 가능한 최대한 큰 축척으로 벡터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당사국은 사무국에 문의할 수 있다.</p> <p>(ii) 당사국 내에서 유산이 소재한 위치를 표시한 위치 지도</p> <p>(iii) 개별 특징을 보여주는 유산의 도면 및 특별히 제작된 지도는 큰 도움이 되며, 별첨에 첨부할 수 있다.</p> <p>자문기구와 세계유산위원회에 복사하여 제출하기 쉽도록, 가능하다면 등재신청서에 주요 지도를 A4(또는 편지지) 크기로 줄이고 디지털 영상자료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한다.</p> <p>완충지대가 제안되지 않았다면, 등재신청 유산의 적절한 보존을 위해 완충지대에 필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등재신청서에 포함해야 한다.</p>	<p>지도에서 사용하는 특징의 이름은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같아야 한다. 지도나 도면에서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소재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제공할 것을 권한다(최대 A4 또는 편지지 크기). • 국가에서 유산의 소재 위치를 표시한 위치 지도는 최대 A4 또는 편지지 크기여야 한다. • 또한, 유산 전체, 그 경계와 완충지대를 표시한 지형도 또는 지적도(문화유산의 경우)를 제출한다(최대 A4 또는 편지지 크기). 이는 개요에서 사용하는 지도와 같다. • 가능한 최대한 큰 축척으로 등재신청 유산, 그 경계 및 완충지대를 표시한 지형도 또는 지적도(문화유산의 경우)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본문에서 언급한 중요한 특징을 적당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상에 강조하여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유산의 경계를 보여주는 주요지도 위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 기본 지도/도면의 원본이 칼라라면, 칼라 버전을 역시 제출해야 한다. • 경계를 나타내는 지도상에 적합한 범례를
--	---	--

		<p>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범례에는 운영지침의 용어를 사용하여 등재신청 유산과 완충지대를 구분해야 한다. 경계가 분명해서 지도의 다른 선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유산인 경우에는 모든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위치 지도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각 구성요소에 대한 개별 위치 지도를 포함시켜서, 각 요소와 주변지역을 연관시킨다. A4 한 장으로 충분하지 않는 연속유산인 경우에는 여러 장의 A4 지도에 (i) 전체 유산, 위치 및 각 구성요소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 한 장, (ii) 개별 요소와 완충지대를 표시한 한 장 이상의 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연속유산과 접경지역 유산인 경우에는 유산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경계를 분명하게 표시한 지형도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기존 유산의 확대를 신청한 등재신청의 경우에는 확대된 위치와 비교할 수 있도록 기존 유산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 특별 가치, 특성 및 쟁점을 기술하기 위해 유산의 명시 절을 제외한 다른 절에서 추가로 지도는 제출할 수 있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viii)에 따른 등재신청 유산의 지질도 • 기준 (ix)과 (x)에 따른 등재신청 유산의 식생도 • 기준 (ix)과 (x)에 따른 등재신청 유산의 생물종의 분포도 • 인프라와 인프라 제안서(예를 들어, 도로, 도로건설, 댐, 향후 개발 등) • 유산으로 통하는 주요 진입로를 표시한 접근지도 • 유산의 소재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 A4 크기의 기본 지도를 주요 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추가 지도는 일반적으로 별첨에 첨부하고, 본문에 첨부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 지도의 목록과 문서에서 지도의 위치는 1e절에 포함한다. • 지도를 제출하는 좋은 방법은 A4 크기 문서에 맞추어 반으로 접은 A3 크기이다. • 지도는 전자 형태로 첨부한 CD에 담아야 한다. • 비도시 지역에 위치한 유산에 대한 등재신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형도가 필수적이다. 같은 이유에서, 도시의 유산에 대해서는 지적도가 중요하다. 컴퓨터로 그린 지도 등 도면만을 첨부한 등재신청서는 미
--	--	---

		<p>완성이라는 인상을 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의 모든 주변 환경(완충지대를 넘어)을 관련 지도에 표시한다. 상기 3.1.12절을 참조한다.
<p>1.f 등재신청 유산 면적(ha.) 및 완충지대 예상부지의 면적(ha.)</p> <p>등재신청 유산 면적: ha 완충지대: ha 합계: ha</p>	<p>연속유산의 경우에는(운영지침의 137~140항 참조), 구성 요소의 이름, 소재 지역(구성요소의 지역이 다른 경우), 좌표, 면적 및 완충지대를 나타내는 표를 삽입한다.</p> <p>이 경우 표를 사용하여, 개별 등재신청 지역과 완충지대의 면적을 명시해야 한다.</p>	
<p>2.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절 등재신청의 근거사유를 작성한 다음, 본 절을 완성할 것을 권한다. 설명 절이 등재신청의 근거사유를 부연설명하고, 근거사유 절에서 요약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와 증거와 함께 유산의 완성된 그림을 나타내는 기타정보가 여기에 기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너무 장문이 되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야 한다.
<p>2.a 유산에 대한 설명</p>	<p>본 절은 등재신청 당일의 등재신청 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야 한다. 유산의 모든 주요 특성이 언급되어야 한다.</p> <p>문화유산인 경우 본 절은 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모든 단일 건물, 건조물군, 이들의 건축 양식, 축조 시기, 건축 자재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또한 정원과 공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은 유산의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관련이 있고 유산의 전반적인 개요를 제시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유산의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유산의 모든 것에 대한 포괄적인 장문의

	<p>중요한 환경적 요인의 중요한 면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암각예술유적에 대한 설명은 암각은 물론 주변 경관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한다. 역사적 도시나 지역의 경우 개별 건물에 대한 묘사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계획이나 배치, 도로 패턴에 관한 설명도 이루어져야 한다.</p> <p>자연유산일 경우, 중요한 물리적 특성, 지질학적 특성, 서식지, 생물종과 개체군의 크기, 그리고 기타 중요한 생태학적 특징과 과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해당 생물종의 목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도착 생물종의 실태를 부각시켜야 한다. 자연자원 착취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p> <p>문화경관인 경우, 앞서 언급한 모든 내용에 따라 설명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자연사이의 소통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 <p>1절(유산의 명시)에서 기재한 등재신청 유산 전체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야 한다. 연속유산인 경우(운영지침 137-140항 참조),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p>	<p>설명 필요하지 않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이 복잡하고 길어지면, 이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상세한 설명은 별첨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앞 절에서는 경계를 구분한 등재신청 유산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유산을 제외한 다른 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소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기술될 수 있지만, 최선의 방법은 해당 요소를 별도 설명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유산을 제외한 관련 요소에 대한 기술”처럼 소제목을 이용). • 유산의 모든 주위환경(완충지대를 넘어)은 본 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상기 3.1.12 절을 참조한다.
<p>2.b 역사와 발전</p>	<p>유산이 현재의 형태와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최근의 보존역사를 포함하여 유산에 일어난 주요한 변화에 대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설명에 있어, 유산의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역사는 물론, 유산

	<p>술한다.</p> <p>기념물, 유적지, 건축물 또는 건조물군인 경우 축조단계에 대한 설명도 포함시켜야 한다. 완성된 이후 주요 변화, 철거 또는 재건축이 있었다면, 이들에 관해 기술해야 한다.</p> <p>자연유산인 경우, 유사시대 또는 선사시대에 유산의 진화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인간과 유산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렵, 어로 또는 농경에 사용된 유산 및 자연자원의 용도상의 변화나 기후 변화, 홍수, 지진 또는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야기된 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p> <p>이와 같은 정보는 문화 경관의 경우에도 필요하며,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인간 활동의 역사에 대한 측면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p>	<p>의 일반적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의 모든 것에 대한 포괄적이며 장문의 역사 설명은 불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정보는 별첨으로 첨부하거나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다. • 유산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부 관련 정보를 서술해야 한다. 길고 상세하게 기술하기 보다는 짧게 요약한다. • 다른 정보에 의지하여 주장을 펼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정보는 적절하게 인용되고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 유산의 발달역사인 경우에는 발달의 단계를 나타내는 도식을 통한 기술하는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축조시기가 다른 건축물이 혼재한 도시에서 본문의 설명과 함께 어떤 건축물이 어느 역사적 시기와 관련이 있는지 나타내는 도해가 도움이 된다. • 지도, 판화 또는 기록사진 등 기타 도해를 본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도해는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역사
--	--	---

<p>3. 등재신청의 근거 사유</p>	<p>본 절에서는 유산에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p> <p>등재신청의 본 절 내용 전체는 운영지침 75항에 명시된 등재 기준을 면밀히 참조해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산 또는 유산의 관리에 대한 세부 설명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다른 절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대신에 유산이 중요한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p>	<p>에 대한 측면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p>
<p>3.a 등재신청의 기준 (및 해당 기준 하의 등재신청에 대한 근거 사유)</p>	<p>운영지침 77항을 참조한다.</p> <p>열거한 각 기준에 대한 개별 사유를 설명한다.</p> <p>유산이 해당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다(필요한 경우, 아래의 “설명” 및 “비교분석” 절을 참조할 수 있지만, 절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3.1.4절을 참조한다. • 각 기준에 따른 근거사유는 다음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을 서술하는데 유용한 내용이어야 한다. • 근거사유는 유산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이유에 대한 실질적인 주장이다.
<p>3.b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 제시</p>	<p>앞서 사용한 기준을 토대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 제시에서는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운영지침 154~157항 참조). 특정 건축 형태이거나 서식지 또는 계획된 도시가 독특하게 잔존한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잔존 상태가 우수하거나 잔존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잔존 유물이 풍부할 수 있으며, 사라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3.1.8절을 참조한다.

	문화나 생활 방식 또는 생태계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토착 생물종, 예외적인 생태계, 뛰어난 경관이나 기타 자연현상을 집합한 경우가 될 수 있다.	
3.c 비교분석 (유사 유산의 보존 상태 포함)	유산은 다른 유사유산과 비교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비교 대상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것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비교내용에는 등재신청 유산과 다른 유산 사이의 유사성과 등재신청 유산이 다른 유산과 구분되는 이유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비교분석은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등재신청 유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3.1.7절을 참조한다.
3.d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	<p>완전성과 진정성에 대한 기술에서는 유산이 운영지침 II.D 절에서 명시된 완전성과 진정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 운영지침 II.D절에 보다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p> <p>문화유산인 경우, 나라 문서(Nara Document) (1995)에 따라 문화의 전통적인 자재 및 방법을 사용하여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록해야 한다(별첨 4 참조).</p> <p>자연유산인 경우, 유산의 완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동식물 외래종의 유입과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3.1.5와 3.1.6절을 참조한다. • 본 장에서는 유산의 범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4. 보존상태 및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a 현재 보존 상태	본 절에 기재된 정보는 향후에 등재신청 유산의 보존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유산의 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 상태에 대한 정보는 사실적이어야 하며, 과장되거나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

	<p>적 상태와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모든 위협 및 유산에 대한 보존대책에 관한 정보를 본 절에 기재하여야 한다(132항 참조).</p> <p>일례로 역사적 도시 또는 지역인 경우, 크고 작은 보수작업이 필요한 건축물, 기념비 및 기타 구조물을 기술하고, 또한 최근에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있을 주요 보수 프로젝트의 규모와 기간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p> <p>자연유산인 경우, 생물종의 변화 추이 및 생태계의 완전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등재신청서가 후일 해당 유산의 상태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비교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중요하다.</p> <p>유산의 보존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와 통계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 6절을 참조한다.</p>	<p>다. 평가 조사단이 유산을 방문해서 보존 상태를 점검한다는 사실을 유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특성뿐만 아니라 유산의 진화를 가져오는 극적인 과정과도 연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유산의 모든 특성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 보존의 상태가 복잡적이라면, 이러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도표를 이용하거나 지도/도면에 주석을 다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예컨대 한 마을에 있는 건축물의 보존 상태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지도/도면에 주석을 달아 위협의 정도나 보존 대책을 나타내는 방법이 좋을 수 있다. • 본 절에서는 유산의 현재 상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잠재적 또는 미래 위협은 4b에서 다룬다.
<p>4.b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p>	<p>본 절에서는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난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본 절에서 제시된 모든 요인이 모든 유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요인은 암시적이며, 당사국이 각 특정 유산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모든 요인이 모든 유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인 설명문의 내용에 주의한다. 요인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해당요소를 상세하게 다루려도 시도하지 않는다. • 본 절에서는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또는 미래의 위협에

		<p>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위협에 대해서는 4.a에서 언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기서 위협은 특정 유산에 대해 타당하게 예측 가능하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또는 과거에 발생한 적이 있는 문제여야 한다. 그렇지만 해당 위협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i) 개발 압력 (예를 들어, 침해, 개조, 농경, 채광)	<p>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압력의 유형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철거, 재건축 및 신축에 대한 압력.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용도를 위한 기존 건축물의 개조. 농경, 임업 또는 목축으로 인한 침해. 무분별한 관광이나 기타 용도에 따른 서식지의 변형이나 파괴. 부적절하거나 지속 불가능한 자연자원의 착취, 채광으로 야기된 피해. 자연 생태적 형성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외래종의 유입. 유산과 유산의 주위 환경을 훼손할 목적으로 유산 또는 그 주변에 새로운 중심 주거지 조성.</p>	
(ii) 환경 압력 (예를 들어, 오염, 기후변화 및 사막화)	<p>구조물과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을 기술, 요약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로 환경 악화가 발생하고 있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환경 악화의 원인을 나열한다.
(iii)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지진, 홍수, 화재 등)	<p>유산에 대한 예측 가능한 피해를 가하는 재해를 나열하고, 그 대책으로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항목별로 기술한다. 그 조치가 물리적 보호대책이거나 인력 훈련이든 상관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재해의 예상빈도와 예측 가능한 영향의 규모를 기술한다. 영향의 빈도와 규모에 따라 재난대비를 계획하고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재난대비에는 재해시 또는 이후 대응책은 물론 사전 재해대비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정보는 다른 문서를 참조하여 요약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비상/재해 계획).
<p>(iv) 방문객/관광산업의 압력</p>	<p>유산의 '수용능력'에 대해 설명한다. 유산이 부작용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방문객의 현재 규모와 미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p> <p>방문객 및 관광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은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 방문객 압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훼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암석, 목재, 풀이나 다른 지표면의 마모. 열이나 습기의 증가. 생물종 서식지의 교란. 전통 문화나 생활 방식의 단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향후 방문객 수를 예측하는 기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미래의 방문객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부작용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방문객의 현재 규모와 미래 규모에 대한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참조 인용하여야 한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의 방문객 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영향이 모니터링 되었는가? 유산에 대한 방문객/관광객 관리 계획이 존재하는가? 해당 계획은 적합하고 효과적인가? 방문객/관광객 경험을 묘사하는 바람직한 조건은 메시지와 기술, 경험의 질과 이용의 쾌적함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일반적으로 방문객/관광 관리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계획의 키포인트에 대한 요약은 등재신청서에 포함시키고, 계획 전체는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다.

<p>(v) 유산과 완충지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p> <p>해당 지역의 추정 인구: 등재신청 유산의 면적 _____ 완충지대 _____ 합계 _____ 연도 _____</p>	<p>등재신청 유산과 완충지대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수에 대해 최대한 정확한 통계수치 또는 추산치를 기재한다. 추정치나 통계수치가 산출된 연도를 명시한다.</p>	
<p>5. 유산의 보호 및 관리</p>	<p>등재신청서의 본 절은 법률, 규정, 계약, 계획, 제도상 대책 및 전통적 방법(운영지침 132항 참조)과 세계유산협약의 규정에 따라 유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어야 하는 관리 계획 및 기타 관리 체계(운영지침의 여러 조항 참조)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책적 측면, 법적 지위와 보호 대책과 더불어 일상적 관리와 운영의 실용성을 다루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14와 3.1.15절을 참조한다. • 세계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는 필수적이며, 등재신청서는 현장에서 보호조치가 제공되고 시행되는 방법을 입증해야 한다. • 효율적인 관리 계획이나 체계 문서는 등재신청 시점에 요구된다.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관리에 대한 원칙은 「세계유산유적지의 관광산업 관리: 세계유적지관리자를 위한 실천 매뉴얼 (<i>Managing Tourism at World Heritage Sites: a Practical Manual for World Heritage Site Managers</i>)」, 세계유산 매뉴얼1 (아서 페더슨, 2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p>5.a 소유권</p>	<p>해당 부지 소유권의 주요 범주에 대해 기술한다(소재 국가, 도, 개인, 지역사회의 소유, 전통적, 관습적 소유, 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유산인 경우, 소유권에 대한 정보는 표로 작성하여 기재하고 지도/도면에 주석

<p>5.b 보호 지정</p>	<p>비정부 주체의 소유 등). 유산의 관련 법률, 규정, 계약, 계획, 제도 상 위상 및 전통 위상을 기술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이나 주립 공원. 국가의 법률이나 관습에 따라 보호 받는 역사적 기념물. 기타 지정.</p> <p>유산 지정이 이루어진 해당 법령 및 지정 연도를 명시한다.</p> <p>관련 문건을 영어 또는 불어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핵심 조항에 중점을 둔 개요를 영어나 불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p>	<p>을 달아 표시하는 것이 최선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유산인 경우, 목록과 함께 보호지정에 관한 정보를 지도/도면에 주석을 달아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 본 절에서는 완충지대의 범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p>5.c 보호대책의 시행 수단</p>	<p>5.b절에서 기재한 유산의 법률, 규정, 계약, 계획, 제도상 위상 및 전통적 위상이 실제로 보호효과를 발휘하는지 기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 보호와 실제 이룩한 보호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재해야 한다. •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역시 서술되어야 한다.
<p>5.d 등재신청 유산이 소재한 시 및 지역과 관련된 현재 계획(예를 들어, 광역 또는 지구 계획, 보존 계획 또는 관광개발계획)</p>	<p>합의를 통해 채택된 계획에 대한 기술하고, 준비 일자와 준비 담당기관을 함께 명시한다. 본 절에서는 관련 조항에 대한 요약도 기술해야 한다. 7.b절에서 명시하였듯이 첨부 문서로 해당 계획의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p> <p>해당 계획이 영어나 불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로 작성되었다면, 핵심 조항에 중점을 둔 개요를 영어나 불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계획의 상태 역시 서술해야 한다. • 또한 해당 계획이 유산의 보호, 보존 및 관리와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도 기술해야 한다. • 계획의 지리적 범위나 기타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예를 들어, 계획이 유산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만 관련이 있는가?).

<p>5.e 유산 관리 계획 또는 기타 관리 체계</p>	<p>운영지침 132항에서 명시하였듯이, 적절한 관리 계획이나 기타 관리 체계는 중요하므로 등재신청서에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관리 계획 및 기타 관리 체계의 효과적인 시행에 대한 보장이 역시 이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p> <p>관리 계획의 사본 또는 관리 체계 문서는 7b절에서 명시하였듯이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하여 등재신청에 별첨으로 첨부한다.</p> <p>관리 계획이 영어나 불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로 작성되었다면, 해당 계획의 내용에 관한 세부 설명을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해당 등재신청서에 첨부하는 관리 계획에는 제목, 작성일자 및 작성자를 명시한다.</p> <p>관리 계획에 대한 세부 분석이나 설명 또는 관리 체계에 관한 기록사항을 기술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15절을 참조한다. • 관리계획/체계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관리계획/체계는 기본적으로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보호와 보존을 관리해야 한다. • 관리계획/체계는 유산의 실제 상황, 특히 문제와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 다양한 계획/체계에 속하는 연속유산이나 접경지역 유산 및 복합유산인 경우에는 해당 계획/체계의 상호보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개별 요소에 대한 통합관리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p>5.f 자원과 재정 규모</p>	<p>연간 기준으로 유산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원 및 그 규모를 명시한다. 사용 가능한 자원의 충분 여부나 기타 측면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분야나 격차 또는 부족분에 대해 명시하도록 한다.</p>	
<p>5.g 보존 및 관리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훈련 담당 기관</p>	<p>정부당국이나 기타 단체가 유산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전문지식 및 훈련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유산에 이용되는 전문지식과 훈련에 대해서 기술하고, 또한 이용 가능한 기술과 훈련을 언급한다. • 지정된 유산 관리 기관은 물론 기타 단체

		<p>에서 사용하는 전문지식과 훈련이 있을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의 특정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의 적합성과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5.h 방문객 편의시설 및 통계수치	<p>본 절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방문객 수와 패턴에 대한 통계 수치 또는 추정치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방문객을 위한 현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탐방로, 가이드, 게시물 및 간행물에 의한 해설/설명. 유산 박물관, 방문객 센터 및 통역지원 센터. 야간 숙박시설, 식당 또는 휴게시설. 상점, 주차장, 화장실 및 수색 및 구조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의 특정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의 적합성과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해당 편의시설과 유산의 보호와 보존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해야 한다. • 방문객/관광객 수는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한다. • 등재가 이루어졌을 경우 예측 가능한 방문객/관광객 수 변화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산출한다. 새롭게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우 방문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유산이 다른 지역 또는 지구에 널리 분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방문객/관광객 수는 단순히 전체 유산에 대한 값이어야 한다.
5.i 유산의 소개 및 홍보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p>본 절은 미래 세대에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소개하고 전승에 관한 명시한 세계유산협약의 4조 및 5조와 연관이 있다. 당사국에게 등재신청 유산의 소개 및 홍보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권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요약 정보가 필요하다. • 해당 정책과 프로그램은 해설계획 또는 기타 유사 계획과 통합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재원지원 및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가? • 소개/홍보와 보호/보존이 서로 상충하는가?
5.j 전담인력의 수준(전문, 기술, 유지관리)	유산 소재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과 훈련에 대해 기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의 수준은 적절한가? • 해당 기술과 훈련은 유산의 가치에 대해 적합한 수준인가?
6. 모니터링	등재신청서의 본 절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 추이에 대해 기술하기 위해 유산의 보존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산 보존 상태는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보고된다.	
6.a 보존상태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	<p>전체 유산의 보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선택된 주요 지표에 관한 내용은 표 형식으로 기재한다(상기 4.3a절 참조). 해당 지표평가의 주기와 해당 기록 보관 장소에 대해 기재한다. 이들 자료는 유산의 중요한 측면을 대변하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과 가능한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상기 2.b절 참조). 가능하면 자료는 숫자로 표시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같은 지점에서 반복해서 사진을 찍는 행위처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p> <p>바람직한 지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p> <p>(i) 자연유산인 경우 생물종의 수 또는 주요 생물의 개체군의 수</p> <p>(ii) 역사적 도시 또는 지구에서 주요 보수가 필요한 건물의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는 측정할 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 잠재적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

	(iii) 주요 보존 프로그램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될 것을 예상되는 연수(年數) (iv) 특정 건조물이나 건물의 구성요소에서 안정성 또는 이동의 정도 (v) 유산에 대한 모든 침해행위의 증가 또는 감소 비율	
--	--	--

기존 등재신청 양식			추가 조언
지표	주기	기록 보관 장소	

기존 등재신청 양식		추가 조언
등재신청 양식	설명문	
6.b 유산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 조치	6.a절에 언급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관 명칭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6.c 선행 보고 활동의 결과물	간략한 개요와 함께 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선행 보고내용을 기재하고, 출판물의 출처 및 초록을 기술한다(예를 들어, 람사르(Ramsar) 협약,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등 국제 협약 및 프로그램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보고서 내용이 이미 언급한 문제나 열악한 보존 상태인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와 시정 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기재한다. • 여전히 같은 문제가 지속되거나 보존상태가 열악한 경우에는 상기 4절에서 보고해야 한다.
7. 기록자료	등재신청서의 본 절은 등재신청 완성을 위해 필요한 여러 기록물의 점검표이다.	
7.a 사진, 슬라이드, 영상 기록, 인가 서류 및	당사국은 유산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자료는 유산의 잠재적으로 뛰어난 보

기타 시청각 자료

도록 최근의 영상자료를 제출한다(인쇄, 슬라이드, 가능하다면 전자형식의 자료, 비디오 및 항공사진).

슬라이드는 35mm 형식으로, 전자 영상은 최저 해상도 300 dpi(dots per inch:인치당 점수)의 jpg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필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고화질을 위해 Beta SP 형식의 사용을 권장한다.

해당 자료의 제출 시 아래의 명시한 것처럼 영상 목록, 사진, 시청각 자료 및 인가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유산의 설명 자료로서 공공 웹사이트 상에 게재할 수 있는 사진 최소 1매를 동봉하도록 한다.

당사국에게 제출 영상 자료 일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유네스코 측에 비배타적으로 양도할 것을 서면을 통해 무상으로 인허하도록 권고한다. 양도 대상에는 디지털 형식을 비롯해 어떤 형식으로든 그리고 어떤 지원 체제 위에서든 배포, 출간, 재생, 이용은 물론 대중을 상대로 전달할 권리 및

편집 가치는 물론 그 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기존 등재신청 양식		추가 조언
등재신청 양식	설명문	
7.b 보호지정에 관한 문건, 유산 관리 계획이나 관리 체계 기록 및 유산관련 기타 계획의 초록	상기 5b, 5d 및 5e절에서 명시하였듯이 본문에 첨부한다.	
7.c 가장 최근 기록이나 목록의 작성 형식 및 작성 일자	가장 최근에 작성된 기록이나 유산 목록의 형식 및 작성일자를 기술한다. 현재 사용 가능한 기록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7.d 목록, 기록 및 자료의 보관 장소	해당 유산 목록 기록(건조물, 기념물, 동식물의 종)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한다.	
7.e 참조문헌 목록	문헌목록의 표준 서식에 따라 주요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8 담당 기관의 연락처	본 절은 사무국으로 하여금 유산에게 세계유산의 소식 및 기타 관련 사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준다.	
8.a 준비 담당자 성명: 직위: 주소: 시, 도/주, 국가명: Tel: Fax: 이메일:	등재신청의 준비 담당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기재한다. 이메일 주소를 기재할 수 없으면 팩스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8.b 해당지역의 공식 기관/기구	유산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의 기관, 박물관, 기구, 지역사회 및 관리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통상적인 보고 전달 기관이 국가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연락처를 기재한다.	
8.c 해당지역의 기타 기관	세계유산에 대한 각종 소식 및 사안을 다루는 무료 발행지인 '세계유산 뉴스레터'를 구독해야 할 박물관, 방문객 센터 및 공공 관광 사무소 모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8.d 공식 웹 사이트 주소 http:// 연락처 이름: 이메일:	등재신청 유산의 현존하는 공식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한다. 해당 웹사이트 주소가 향후에 신설된 예정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연락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9. 당사국을 대표한 서명	등재신청서는 당사국을 대표해 등재신청서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의 서명으로 마무리한다.	

4.3 추가 팁

4.3.1. 재검토 및 수정

등재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수한 등재신청서가 되기 위해 확실히 도움이 되는 몇몇 유용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 개요와 등재신청서 본문이 일관성이 있도록 개요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한다.
- 주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분명하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재신청서 전체를 확인한다.
- 특히 여러 명의 저자가 등재신청서를 함께 작성했다면, 일관성과 양식을 맞추기 위해 등재신청서를 편집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용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때 유산과 관련이 없는 사람과 해당 국가 또는 유산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을 참여시킨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처리한다.
- 운영지침 132항에 따라 등재신청서의 완성도를 점검한다.

키포인트: 등재신청서에 대한 동료평가를 받는다.

4.3.2 연속유산 등재신청

연속유산 등재신청의 경우, 포함된 정보의 양이 상당할 수 있는데, 이는 연속유산의 각 구성요소의 수에 따라 정보가 배가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각 구성요소의 설명). 너무나 방대한 양의 정보가 수록된 경우, 이는 등재신청서를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각 구성요소의 핵심 정보에 대해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등재신청서 본문에서는 요약 정보만을 제공하고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본문에서 언급한 별첨에 첨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제5부 평가 절차

5.1 일반

필요한 사본의 수만큼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평가절차가 시작된다.

첫 번째 단계는 세계유산센터가 등재신청서의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등재신청서가 미완성이라고 판단되면, 추후 심사를 위해 자문기구에 전달되지 않으며, 해당 신청서는 다음해 또는 향후에 완성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등재신청서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자문기구에 전달되어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문기구는 등재신청 유산에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 안정성과 진진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ICOMOS와 IUCN 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운영지침의 별첨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문기구의 심사 이후 하지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신청을 논의하기 이전에, 자문기구는 1월 31일 까지 당사국에 질의서 또는 추가 정보에 대한 요청서를 보낼 수 있으며, 그 해에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신청서를 논의한다(149항).

자문기구의 검토를 위해 관련 정보는 2월 28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운영지침은 이 기한을 이후 제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라도 자문기구가 검토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당사국은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이전에 위원회 의장에게 자문기구의 평가에 있어 실질적 오류를 지적하는 서한을 보낼 수 있다(150항 참조).

당사국이 평가기간 동안 등재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발전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에 통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보가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결정 과정에서, 위원회는 자문기구의 권고를 참고한다.

5.2 IUCN 평가 절차

등재신청서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IUCN은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을 따른다. 평가 절차는 1년에 걸쳐 진행되며, IUCN가 등재신청서를 접수하는 4월에서 IUCN의 평가보고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는 다음해 5월까지 이른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1. **자료 수집.** 등재신청서, 세계보호지역의 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 및 기타 이용 가능한 참조자료를 이용해 표준 자료를 취합한다.

2. **외부 검토.** 등재신청서를 해당 유산이나 그 고유 가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독립전문가 그룹에 보낸다. 전문가 그룹에는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 IUCN의 특별 위원회 및 해당 지역의 연구 네트워크와 비정부기관의 회원이 포함된다(매년 대략 100~130명의 외부 검토자에게 연락한다).

3. **현지 조사.** 한 명이상의 IUCN 위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 조사는 현장에서 등재신청 유산을 평가하고, 관련 중앙 및 지방 정부, 지역사회, NGOs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등재에 대해 논의한다. 현지 조사는 일반적으로 5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복합유산이나 특정 문화경관의 경우에는 ICOMOS와 함께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4. **IUCN 세계유산패널 심사.** IUCN 세계유산패널은 일반적으로 12월 스위스 IUCN 사무국에서 일 년에 최소 한번은 모여서 각 등재신청을 심사한다. 두 번째 회의 또는 전화회의는 주로 다음해 3월에 필요에 따라 열린다. 패널은 등재신청서, 현지 조사 보고서, 외부 검토자의 논평, 유산자료 및 기타 관련 참고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IUCN에게 기술적인 조언과 각 등재신청에 대한 권고를 제출한다.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센터에 3월에 제출한다.

5. **최종 권고.** IUCN은 세계유산위원회 6월 또는 7월 정기총회에서 영상자료와 지도를 이용하여 평가절차의 결과와 권고를 발표하고, 제기되는 질문에 답변을 한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해당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IUCN은 당사국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허용하고 발생하는 질문 또는 사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평가 절차기간 동안 당사국과의 대화통로를 수립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IUCN이 당사국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 **현지 조사 이전** - IUCN은 당사국, 일반적으로는 당사국에서 현지 조사를 계획한 담당자에게 직접 현지 조사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보내는데, 많은 경우 현지조사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특정 문제 또는 쟁점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는 당사국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지 조사 직후** - 현지 조사동안 이루어진 논의에 기초하여, IUCN은 보완 정보를 요청

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하여 IUCN 세계유산패널이 12월에 모임을 갖기 전에 패널이 등재신청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 **IUCN 세계유산패널 이후** - 패널이 일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여전히 미흡하고 해당 쟁점이 더 확실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사국에 최종 서한을 보내 특정 마감일 까지 추가 보완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IUCN이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당 마감기한은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주: 등재신청 당시에나 현지 조사시에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가 충분하다면, IUCN은 보완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보완 정보는 특정 문제 또는 쟁점에 대한 답변으로, 등재신청서를 완전히 수정하거나 방대한 양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재신청 유산의 기술적 평가에서 Udvardy 생물지리학 분야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른 유사 유산과 등재신청을 비교한다. 이 방법은 자연유산의 객관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전 세계 차원에서 유사성을 평가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이와 함께 더욱 광범위한 생물군계 (biome) 기준에 따라 비교할 수 있는 특별 지형, 서식지 및 동식물 특성이 자연유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지리학 분야의 개념은 비교기준의 개념일 뿐이며 세계유산이 해당 기준에만 근거하여 선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국제보조협회 생물종특별서식지(Conservation International Biodiversity Hotspots), 세계야생생물기금 생태학(WWF Ecoregions),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고유조류서식지(Birdlife International Bird Areas), 식물다양성 IUCN/WWF 센터와 IUCN/SSC 서식지 분류(IUCN/WWF Centres of Plant Diversity and the IUCN/SSC Habitat Classification) 및 2004 세계유산네트워크 IUCN/UNEP-WCMC 평가(2004 IUCN/UNEP-WCMC Review of the World Heritage Network) 등 세계 분류체계 역시 유산의 세계적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세계유산은 해당영역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느냐가 핵심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절차는 IUCN, UNEP-WCMC 와 몇몇 기타 발행사가 출간한 세계 보호지역에 대한 약 20권의 참조서적 목록의 도움을 받는다. 여기에는 (1)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보호지역체계에 대한 고찰(Reviews of Protected Area Systems in Africa, Asia and Oceania) (2) 세계의 보호지역 4권(Protected Areas of the World) (3) 세계식물다양성 아틀라스 시리즈 6권(Global Biodiversity Atlas series) (4) 식물다양성 센터 3권(Centres of Plant Diversity) (5) 세계의 산호초 3권(Coral Reefs of the Word) (6) 해양 보호지역의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체계 4권(A Global Representative System of Marine Protected Areas)이 포함된다. 이러한 서적은 전 세계 국가에서 보호지역의 보존의 중요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체계 전반에 대한 고찰을 제시한다.

5.3 ICOMOS 평가 절차

문화유산의 등재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ICOMOS(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는 운영지침을 따른다(148항).

평가 절차(다음 그림 참조)에는 ICOMOS, ICOMOS의 국내 및 국제 위원회와 더불어 관련이 있는 많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활동이 포함한다. 위원들은 비밀리에 현지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파견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자문활동을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의 정기총회에 제출할 상세한 권고를 마련한다.

5.3.1 전문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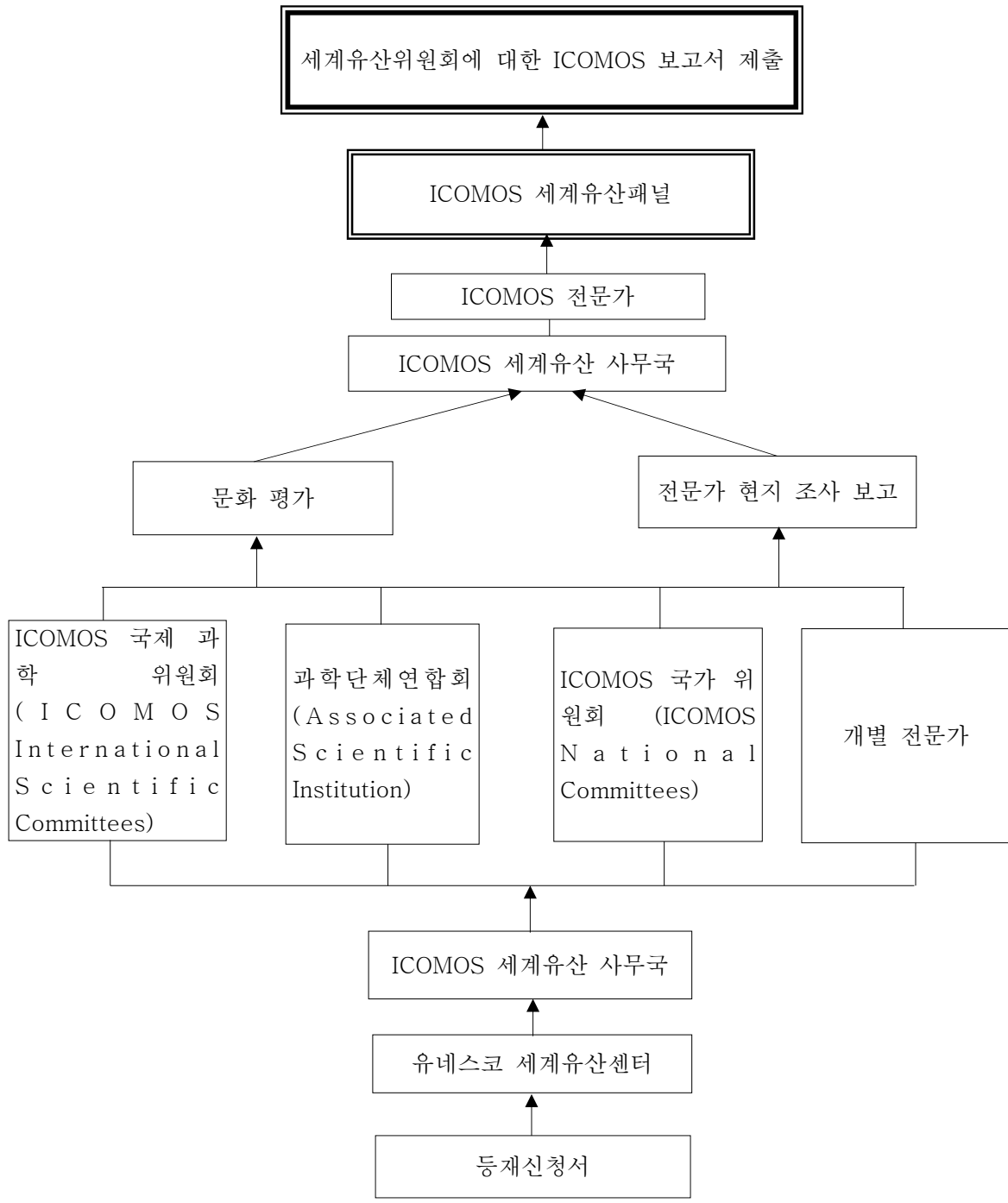
유산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신청에 대한 확실한 연례 절차가 존재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와 자문기구가 새로운 등재신청서의 완성여부를 확인하면, 등재신청서는 ICOMOS에 전달되며, ICOMOS 세계유산 사무국이 이를 담당한다. 첫 번째 단계는 함께 논의할 전문가 선정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별도의 그룹이 포함된다. 첫 번째 그룹은 등재신청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문가 학자들의 '연구' 활동으로, 가끔 ICOMOS 회원이 아닌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이는 ICOMOS 회원 중에서 특별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가 없는 경우이다. 일례로, 화석 호미니드 지역에 대한 등재신청이 있는 경우 화석학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전문가 그룹은 개별 유산의 관리, 보존 및 진전성에 있어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현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 전문가 선정 과정은 ICOMOS 네트워크 전체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ICOMOS가 파트너십 협정을 맺은 전문가 집단의 추천을 구하는 동시에, 국제 과학위원회(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s) 또는 개인회원의 조언을 구한다. 전문가 집단으로는 국제산업유산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Conservation of the Industrial Heritage, TICCIH), 세계조경가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IFLA)와 근대운동에 관한 건물과 환경형성의 기록조사 및 보존을 위한 조직(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Monuments and Sites of the Modern Movement, Docomomo) 등이 있다.

5.3.2 현지 조사

현장에서 평가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ICOMOS의 정책은 가능하면 등재신청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출신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유산 관리와 보존에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유산의 종류에 대한 높은 학문적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들

은 같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장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관리계획, 보존 관행 및 방문객 관리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에게는 등재신청서의 관련 정보의 사본을 포함한 자세한 요약 자료가 제공된다. 전문가 방문 일자와 프로그램은 당사국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며, ICOMOS의 평가단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당사국에 요청한다. ICOMOS 전문가는 해당 유산의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비밀리에 제출하는데, 이는 보고서의 사전공개가 ICOMOS와 세계유산위원회 모두에게 난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일반

Badman, Tim, Bastian Bomhard and Paul Dingwall 2008, *World Heritage Nominations for Natural Properties: A resource manual for practitioners*, IUCN

de Merode, Eleonore, Rieks Smeets and Carol Westrik 2004, *Linking Universal and Local Values: Managing a Sustainable Future for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Papers 13,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UNESCO World Heritage Center). 이용가능 사이트:
<http://whc.unesco.org/en/series/> (영어)
<http://whc.unesco.org/fr/series/> (불어)

Dingwall, Paul, Tony Weighell and Tim Badman 2005, *Geological World Heritage: A Global Framework*, IUCN

Engles, Barbara, Bettina Ohnesorge & Andrea Burmester (eds.) 2009, *Nominations and Management of Serial Na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 Present Situation, Challengers and Opportunities*, Proceedings of a workshop organized by the German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BfN) in cooperation with th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nd IUCN, November 26th-30th, 2008

ICOMOS 2005, *The World Heritage List: Filling the Gaps - An Action Plan for the Future*, ICOMOS, 이용가능 사이트: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world_heritage/gaps.pdf (영어)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world_heritage_fre/whlgaps.htm (불어)

ICOMOS 2005, *Xi'an Declaration on the Conservation of the Setting of Heritage Structures, Sites and Areas*

ICOMOS 2008, *Compendium on Standards for the Inscription of Cultural Properties to the World Heritage List*, ICOMOS.

IUCN 2000, *World Heritage and Mining*, 이용가능 사이트:
www.iucn.org/about/union/commissions/wcpa/wcpa_puball/wcpa_pubsubject/wcpa_wheritagepub/

IUCN 2003, *World Heritage in the Boreal Zone*, 앞서 언급한 IUCN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IUCN 2004, *Review of the World Heritage Network: Biogeography, Habitats and Biodiversity: A contribution to the Global Strategy for World Heritage Natural Sites*. 앞서 언급한 IUCN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IUCN 2005, *Enhancing the IUCN Evaluation Process of World Heritage Nominations: A contribution to Achieving a Credible and Balanced World Heritage List*. 앞서 언급한 IUCN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IUCN 2005, *World Heritage Thematic Study for Central Asia: A regional overview*. 앞서 언급한 IUCN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IUCN 2006. *The World Heritage List: Guidance and Future Priorities for Identifying Natural Heritage of Potential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앞서 언급한 IUCN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IUCN 2007, *Harmonisation of Tentative Lists in Central,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앞서 언급한 IUCN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IUCN 2008, *Management Planning for Na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A Resource Manual for Practitioners*, interim version, IUCN Programme on Protected Areas, IUCN World Heritage Studies, Number Five. 앞서 언급한 IUCN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IUCN 2008,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Standards for natural World Heritage, A Compendium on Standards for Inscriptions of Natural Properti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앞서 언급한 IUCN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IUCN 2008, *World Heritage and Protected Areas*. 앞서 언급한 IUCN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IUCN 2008, *World Heritage Caves and Karst*. 앞서 언급한 IUCN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IUCN 2009, *Serial na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앞서 언급한 IUCN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

Jokilehto, J 2008, The World Heritage List. What is OUV? Defin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Monuments and Sites XVI, ICOMOS,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publications/index.html> 에서 이용 가능.

Pedersen, Arthur 2002, *Managing Tourism at World Heritage Sites: a Practical Manual for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World Heritage Manuals 1*,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다음 웹페이지에서 이용가능:

<http://whc.unesco.org/en/series/> (영어)

<http://whc.unesco.org/fr/series/> (불어)

UNESCO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세계유산협약이라고도 함. 다음 웹페이지에서 이용가능:

<http://whc.unesco.org/en/conventiontext/> (영어)

<http://whc.unesco.org/fr/conventiontexte/> (불어)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다음 웹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http://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pg=00006> (영어)

<http://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lg=FR&pg=00022> (불어)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Tentative Lists. 다음 웹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 (영어)

<http://whc.unesco.org/fr/listesindicatives/> (불어)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World Heritage List, 다음 웹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http://whc.unesco.org/en/list> (영어)

<http://whc.unesco.org/fr/list/> (불어)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1994,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reproduced as Annex 4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운영지침 별첨 4로 재구성)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5, *Vienna Memorandum on World Heritage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Managing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8,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다음 웹페이지에서 이용가능:

<http://whc.unesco.org/en/guidelines/> (영어)

<http://whc.unesco.org/fr/orientations/> (불어)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in association with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1998, *Report of the World Heritage Global Strategy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xpert Meeting, 25 to 29 March 1998, Amsterdam, The Netherland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nd ICCROM 2004, Monitoring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Papers 10. 다음 웹페이지에서 이용가능: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world_heritage/gaps.pdf (영어)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world_heritage_fre/whlgaps.htm (불어)

자연 유산의 세계비교분석에 대한 추가 정보원과 세계유산 잠정목록의 검토 및 최신정보

IUCN 기술 및 주제연구

•

- The World's Greatest Natural Areas: an indicative inventory of natural sites of World Heritage Quality (1982).
- Earth's geological history: a contextual framework for assessment of World Heritage fossil site nominations (1994).
- Global Overview of Wetland and Marine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1997).
- A Global Overview of Forest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1997).
- A Global Overview of Human Use of World Heritage natural Sites (1997).
- A Global Overview of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Biodiversity (2000).
- Which oceanic islands merit World Heritage status? (1991).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pplic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o islands of the Southern Ocean (1992).
- Future directions for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Filling the Biome Gaps: a thematic approach to achiev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through World Heritage, Les Molloy (2000).

- Potential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in Europe, Lars-Erik Esping (1998).
- A Global Representative System of Marine Protected Areas, World Bank/IUCN. 4 vols. (1995).

잠재적 자연 세계유산 유적지를 파악하기 위한 특정 지역회의 보고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로젝트(initiatives)

- Task force to select a global inventory of fossil sites (1991)
- Nordic World Heritage - proposals for new areas for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1996).
- Identification of potential World Heritage sites in Arab countries (1999).
- Tropical Forest (Berastagi meeting report, 1998).
- Identification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in the Pacific (1999).
- Regional Workshop on the Nomin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Mozambique (2000).
- Seminar on Natural Heritage in the caribbean, Suriname (2000).
- Central Asian meeting (2000)
- Karst Sites in East and South East Asia (2001).
- Alpine Arc meetings (2000-2001)
- Tropical Marine and coastal sites (Vietnam workshop, 2002).
- Boreal forest protected areas (Russia, Oct, 2003)

참조

BirdLife International (1998). *Endemic Bird Areas of the World: Prioriti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Cambridge: BirdLife International.

BirdLife International (2000). *Threatened Birds of the World*. Barcelona and Cambridge: Lynx Edicions and BirdLife International.

ICOMOS. (2004). *ICOMOS analysis of the World Heritage List and Tentative Lists and follow-up action plan*.

IUCN (1975). Miklos D.F. Udvardy, Miklos. *A Classification of the Biogeographical Provinces of the World-Prepared as a contribution to UNESCO's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Occasional Paper No. 18. IUCN, Morges, Switzerland.

IUCN (1996). Assoc. Prof. Roderick T. Wells. *Earth's Geological History: A Contextual Framework for Assessment of World Heritage Fossil Site Nominations*. Gland: Natural Heritage programme, IUCN.

IUCN (1997). Jim Thorsell and Todd Sigaty. *Human Use of World Heritage Natural Sites: A Global Overview*. Gland: Natural Heritage Programme, IUCN.

IUCN (1997). Jim Thorsell, Renee Ferster Levy and Todd Sigaty. *A Global Overview of Wetland and Marine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Gland: Natural Heritage Programme, IUCN.

IUCN (1997). Jim Thorsell and Todd Sigaty. *A Global Overview of Forest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Gland: Natural Heritage Programme, IUCN.

IUCN (1997). *World Heritage Special Issue, PARKS*, Vol. 7, No. 2.

IUCN (2002). Jim Thorsell and Larry Hamilton. *A Global Overview of Mountain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Protected Areas Programme. IUCN.

IUCN (2004). *The World Heritage List: Future priorities for a credible and complete list of natural and mixed sites*. Protected Areas programme. IUCN.

UNESCO (2003). Annie Hillary, Marjaana Kokkonen and Lisa Max, eds. *World Heritage Papers 4: Proceedings of the World Heritage Marine Biodiversity Workshop*. Pari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1992). *Global Biodiversity: Status of the Earth's Living Resources*. London: Chapman & Hall.

WWF and IUCN (1994). *Centres of Plant Diversity: A Guide and Strategy for their Conservation—Volume 1*. 3 volumes. Cambridge: IUCN Publications Unit.

UNEP and IUCN (2000). Gemma Smith and Janina Jakubowska, comps. *A Global Overview of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Biodiversity. Cambridge: UNEP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UNEP-WCMC (2004) *Review of the World Heritage Network: Biogeography, Habitats and Biodiversity*. Cambridge: UNEP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연락처

기관명 및 주소	간단한 설명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의무 사항
<p>ICCROM Via di S. Michele, 13 1-00153 Rome, Italy Tel: +39 06 585531 Fax: +39 06 5855 3349 Email: iccrom@iccrom.org Web: www.iccrom.org</p>	<p>ICCROM(국제문화재보존연구센터)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정부간 국제조직이다. 1956년 유네스코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ICCROM의 규정된 기능은 부동산 및 동산 문화유산의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문서작업, 기술 지원, 교육, 대중인식 확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p>	<p>협약과 관련한 ICCROM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교육에 있어 최우선 파트너 •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상태 모니터링 • 당사국이 제출한 국제원조 요청 검토 • 역량강화 활동을 위한 자원투입 및 지원
<p>ICOMOS 49-51, rue de la Federation 75015 Paris, France Tel: +33 (0)1 45 67 67 70 Fax: +33 (0)1 45 66 06 22 Email: secretariat@icomos.org Web: www.icomos.org</p>	<p>ICOMOS(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 사무국을 둔 비정부 조직이다. 1965년에 설립되었으며, 건축과 고고학 유적에 이론, 방법론 및 과학 기술의 적용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964년 기념건조물 및 유적의 보존과 복구에 관한 국제헌장(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의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p>	<p>협약과 관련한 ICOMOS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신청을 한 유산을 평가 •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상태 모니터링 • 당사국이 제출한 국제원조 요청 검토 • 역량강화 활동을 위한 자원투입 및 지원
<p>IUCN Rue Mauvemeys 28 CH-1196 Gland, Switzerland Tel: +41 22 999 0160 Fax: +41 22 999 0025 Email: wcpa@iucn.org Web: www.iucn.org/wcpa</p>	<p>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은 1948년 설립되어 국가 정부, NGOs와 과학자를 세계적인 파트너십으로 한데 아우른다. 연맹의 목적은 자연의 완전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모든 이용이 공정하고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일 수 있도록 전 세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권장하고 지원</p>	<p>협약과 관련한 IUCN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신청을 한 유산을 평가 •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상태 모니터링 • 당사국이 제출한 국제원조 요청 검토 • 역량강화 활동을 위한 자원투입 및 지원

	<p>하는데 있다. IUCN 사무국은 스위스 그랑드에 소재한다.</p>	
<p>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Tel: +33 (0)1 4568 1876 Fax: +33 (0)1 4568 5570 Email: wh-info@unesco.org Web: whc.unesco.org</p>	<p>1992년 설립된 세계유산센터(UNESCO World Heritage Centre)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유네스코 내의 핵심이자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한다. 센터는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세계유산위원회와 세계문화센터의 정기총회를 조직하고, 유적지 등재신청 준비에 대해 당사국에 조언을 제공하고, 요청을 받아 세계유산기금을 통해 국제적 원조를 조직하며, 유적지의 상태에 대한 보고활동과 유적지가 위협에 처한 경우 긴급구조 활동을 조율한다. 또한 기술관련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계유산목록과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유산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젊은층의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세계유산문제를 대중에게 알린다.</p>	